



5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5호

(루게 535)



◆◆◆◆◆◆◆◆◆◆

## 차 례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	4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	5
<b>김일성</b> 대원수께 영광을! .....	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b>김정일</b>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	9
영광의 광장이여 .....	9
조선의 5월 .....	10
수도의 어느 한 거리에서 .....	11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	11
조선의 노래 .....	12
영광의 50성상 .....	12
영광의 우리 총련 .....	13
작품의 대를 바로세워주시여 .....	14
백두산에 갈매기 나네 .....	17
지동이 일다 .....	18
5호물동가에서 .....	20
기적소리 .....	21
우리 선동원 .....	23
모래불 .....	29
결의 .....	35
소설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의 구현문제 .....	41

날 보고 쇠돌밖에 모른대.....	46
나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	47
내 고향 어머니품아 (외 1 편) .....	49
모교에서 .....	50
반제재판소 .....	50
고달부 .....	51
종구나, 이런 밤은! .....	59
땅이 하는 말.....	59
관산나루언덕에서 .....	60
광주의 어머니에게 .....	62
우리는 고발해야 한다.....	63
고쳐부르는 나의 류행가 (외 1 편) .....	64
반미의 기발 .....	64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창건자, 령도자이시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혁명전쟁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시기 우리 인민의 진정한 혁명무력인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인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제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온 나라를 금성철벽으로 튼튼히 다지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령도하시는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위대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전술, 풍부한 군사적업적과 다방면적인 경험을 창조하시여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여 조국과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할것을 결정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령도하시는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위대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전술, 풍부한 군사적업적과 다방면적인 경험을 창조하시여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시였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1992년 4월 13일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한평생을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치시며 민족의 통성과 사회주의승리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에 넘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부원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80성상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치시어 만대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가장 걸출한 혁명의 수령의 위대한 력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인민대중이 민족해방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주체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승하고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신 민족해방의 구성이십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밝히시고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시었으며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역센 역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으로 우리 조국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준엄한 시기 당과 국가, 군사 사업의 모든 중하를 지니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화의 위험에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식민지망국노로서 무참히 짓밟히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기상을 누리에 떨치는 혁명적인민으로, 그어떤 원썬들의 침략책동에도 끄떡없이 자기의 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과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안팎의 원썬들의 준동을 짓부시면서 당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전당이 유일한 사상과 령도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반석같은 통일체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필승불패의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공화국정권을 우리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을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가장 자주적인 정권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가장 공고한 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참다운 인민의 무장력을 창건하시고 해방후 그것을 정규적인 혁명군대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군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어 조선인민군을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력으로, 원수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의 안전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일당백의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당과 진정한 인민의 정권과 불패의 혁명무력이 있음으로 하여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앞으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이 땅우에 승승장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우리 식으로 철저히 수행하며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시였으며 우리인민을 천리마대진군으로 불려일으켜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었습니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참다운 사회주의나라,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유력한 주체의 나라로 자랑떨치게 된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주체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승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을 계속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상혁명이 확고히 선행되고 기술혁

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물질문화생활에서 획기적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혁명의 실천은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훌륭히 마련하여주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라는것을 확증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총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시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게 인민대중자신이 사회전반을 관리운영하는 새로운 정치방식을 세워주시였습니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방법과 관리체계의 확립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회관리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실현한것으로서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완성시키는데 공헌하신 위대한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령도중심에 굳게뭉쳐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을 주체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뿐아니라 혁명위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먼 앞날에도 전당, 전민이 하나의 사상과 령도를 따라 혁명의 명맥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하기 위한 온민족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을 제시하시고 한없이 넓은 포용력으로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을 조국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심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

포들이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통일의 구성으로 우리러받들고 통일된 강산에서 민족의 영예를 떨쳐나갈 굳은 각오밑에 90년대에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을 비상히 높이시였으며 자주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혁명과 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여 자주성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우리시대 혁명운동의 원로로, 견결한 원칙성과 고결한 의리를 지니시고 세계의 반제자주위업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해주시는 위대한 투사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십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위대한 사상과 특출한 령도풍모를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세기의 위인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는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과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는 두 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 빈터우에 인민의 새 생활을 일떠세우는 두차례의 간고한 복구건설투쟁과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는 여러 단계의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위업들을 당대에 빛나게 수행하신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영재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과 투쟁경험을 주는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를 세우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 당과 혁명의 생명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밝히시고 우리 혁명을 철저히 우리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지난날 사대와 교조로 곡절과 시련을 겪던 조선혁명을 주체성의 원칙에서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혁명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확고한 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을 해나가는 자주정신이 투철한 당과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오늘의 격변하는 정세와 현실에서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선혁명을 시종일관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비범한 선견지명과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굳기높이 되새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을 벌려오신 전기간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시였으며 혁명의 난국을 한몸으로 막으시고 령할무쌍한 방략과 전술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확고히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길에서 준엄한 시련의 고비에 여러번 부닥쳤으나 그때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락관에 넘쳐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오늘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도 인민대중이라는 드팀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으시면서 철두철미 인민의 념원과 요구를 반영한 로선과 정책들을 세우시고 언제나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오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고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인민적령도로하여 우리 당은 것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도 사소한 로선상 착오나 오류도 없이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정치적불안정이나 소요도 모르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속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이있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며 당과 수령은 인민들에게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민들은 당과 수령을 어머니로, 아버지로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이 위

대한 일심단결에 그 어떤 시련과 도전도 물리치고 우리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는 필승의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업적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하고계시는 크나큰 공헌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어 대대손손 길이 전하여질 것이며 만대에 빛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며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원수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 동지를 영원히 수령으

로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갈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더욱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절절한 념원과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1992년 4월 15일

## 김일성대원수께 영광을!

김철

만세!

만세!

그이께 영광

**김일성**대원수께 영광, 영광을!

아, 어찌하여 지금 이 시각 우리 눈에는

그이의 모습을 잠시나마 가리우며

눈물이 넘쳐나느냐

어찌하여 환호하던 목조차 짝 메여버리느냐

이런 때 어찌하여 천만마디 말도 모자라는것인가

가슴에 새기노라

그이는 주체의 기치로 지구의 축을 바로세우신

시대의 영걸

그이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무릎꿇린

강철의 령장

혁명이란 혁명은 다 해보시고 다 이기신

백전로장, 혁명의 사령관

그이는 은인

그이는 스승

그이는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

하여 그 모든 존칭을

하나로 합쳐 부르고부르는

우리의 대원수!

**김일성**대원수!

만세!

만세!

오늘의 이 환희

이 격동을 안고

조국의 하늘이며, 땅이며

천세만세 푸르라

영원토록 번영하라

아-

**김일성**대원수!

민족의 구성, 만민의 태양이신

그이께 영광을! 그이께 영광을!

(1992. 4. 13)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것을 결정한다.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조 선 로 동 당      중 앙 군 사 위 원 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1992년 4월 20일

## 영광의 광장이여

김휘조

설레이며 흐른다 대오가 흐른다  
위훈의 군기들이 펄럭이며 흐른다  
폭풍치는 환호소리 만세소리  
하늘땅을 진동하는 인민군절의 광장  
번뜩이는 총검의 물결, 철벽의 대오가  
그이 앞으로 굽이친다

노을을 펼치며 밝아온 아침해살에  
눈부신 빛을 뿌리시며  
단상에 높이 서신 **김정일**장군  
손길높이 열병대오에 답례하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웨쳐도 끝없는 만세소리 환호소리  
천만대오가 지축을 울리며  
그이앞을 지난다  
그이 찾으셨던 비오는 먼 초소  
보초병의 어깨에 비옷을 걸쳐주실 때  
목메여 흐느끼던 그 마음들이 뜨겁게 흐른다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쁘다고  
병사들을 못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그이의 안녕을 지켜 잠못들던  
전호숙의 낮과 밤들이 여기 흐른다  
근위해병들이 발구름높이 지난다  
하늘엔 억센 매들이 날은다

아, 그이  
우리의 혁명무력을 영광찬 한길로 이끄시며  
전군, 전민의 가슴에  
자위의 총검 안겨주시며  
이 땅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인류를 위해 시대가 받아들여올린  
그이를 높이 모시고 따를  
불같은 일련단심이 여기 흐른다  
철의 맹세, 산악같은 의지가  
자위의 총창에 비껴흐른다

꺾을수도 불태울수도 없는 신념이  
넘치는 광장이여  
자주의 한길로 나아가는  
세계의 마음들이 그이께로 향하고  
빛나는 미래가 태동하는 이 흐름앞에  
제국주의는 전율하리니

오, 광장이여  
위대하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그이를 우러르는 도도한 흐름  
영원한 승리의 흐름이 굽이치는  
광장이여, 영광의 광장이여

## 조선의 5월

강인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푸른 하늘이 제일이고  
땅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름진 대지가 제일인 이 강산에  
웃으며 온 5월! 로동계급의 명절!

이날따라 아침은 더 상쾌한듯  
재우치는 걸음들엔 나래가 돋힌듯  
바라보는 공장의 굴뚝은 존엄에 넘쳐라  
달려가는 기관차는 엄엄한 기상을 펼쳐라

저기 가슴 들먹이며 거리를 활보하던  
화력발전소의 타빈공청년들  
어느새 5월1일경기장이 바라보이는  
릉라도 푸른 숲 유원지에 들어섰구나

행복이 떨기져 흐르는 통일거리  
방금 락랑다리를 넘어선 젊은이들  
빠젼이 드러낸 앞가슴엔  
주련이 달린 훈장들

대동강반 여기 주체사상탑아래선  
청동빛 군상속에 마치를 든 로동계급이  
농민과 인테리와 함께  
주체의 봉화를 거연히 받들어진듯

오는이 가는이 그 누구를 봐도  
성스러운 로동의 보람속에  
뜻깊은 명절을 맞는 환희의 울조림  
우리 식 사회주의로 몇몇한 령도계급의  
금지로움...

오, 력사에 물어보자  
로동계급이 출현하여 수백년  
언제 있었더냐 이 땅의 로동계급처럼  
이렇듯 존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해방후의 어느 봄날  
5.1절 시위행렬 맨 앞장에  
국가의 간부들을 세우려던 일군들을 타이르시며  
로동자들을 먼저 세워주신 수령님의 그 믿음

대건설의 그 나날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 하시며  
땀흘리는 로동자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

새 집을 지으면  
로동계급에게 첫 입사증을 주시고  
새해 첫인사를 하여도  
로동계급을 먼저 께으시며 축복하시는

아, 진정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자애로운 령도자를 받들었기에  
당도 로동계급의 당  
사회주의도 로동계급의 락원이 되었더라

이 지구우에 수백의 당이 있어도  
진정한 로동계급의 당은 우리 당!  
이 행성우에 수억의 로동계급이 살아도  
참으로 긍지높은 로동계급은 우리 로동계급!

일심단결로 수령을 옹위하고  
일심단결로 당의 위업을 받드는  
이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품모!  
이것이 조선의 가풍이며 철칙!

행복이여 긍지여  
5월의 푸르른 하늘아래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소리쳐 자랑하노라  
세상 제일로 행복한 로동계급의 이 존엄을!

자랑하노라 충효는 통일거리의 저 은빛창문을,  
살같이 달리는 궤도전차의 경쾌한 경적소리를,  
그리고 솔푸른 모란봉에 올라  
로동계급의 모습을 찍는 젊은이들의 저 웃음도...

길이 빛나라, 5.1절 로동계급의 명절이여!  
보게 되리라, 만국의 로동자들이여  
온 세계 자주화의 광장에  
조선의 마치, 조선의 로동계급은  
성스러운 첫 군상을 펼치리라!

# 수도의 어느 한 거리에서

리석

살랑대는 미풍에  
꽃향기 목메게 풍겨오고  
길가의 파아란 잔디  
푸른 주단 곱게 펼쳐놓은  
어느 한 봄날

씨불임으로 바쁜 농장마을 찾으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담한 일용품공장에 들리시여  
소비품가치수를 늘일 방도  
지배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돌아오고계시여라

새로 일떠선 고층살림집 층층 창문들  
해빛에 눈부시고  
물뿌린 거리로  
고운색 뺨스들이 분주히 오가고  
아이들의 노래소리 랑랑하게 울려퍼지는  
활기찬 수도의 거리

달리는 차안에서  
거리를 살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부관에게 조용히 물으시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저 집이 무슨 상점인가고

달길새 없이 드나드는 출입문  
나오는 사람들 얼굴마다  
기쁨이 어렸어라  
장난감 들고 나오는 아이들  
갖가지 부엌세간 손에 든 아낙네들...

구역직매점이라고 말씀드리자  
구역직매점, 구역직매점이라...  
거듭거듭 되뇌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웃음피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인민의 기쁨 그러보시는것인가  
날마다 커가는  
이 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인가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최고목적으로 삼는다 하시며  
해별이 뜨겁게 내려쬘이던  
8월의 그날에 친히 소비품전시장에 나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온 나라 인민들의 축원을 받으셔야 하던  
2월의 생신날 하루마저  
일군들과 오랜 시간  
인민생활문제를 의논하시던 친애하는 그이

아, 그이께서 바치신 사랑의 나날이  
오늘은 저렇듯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  
이 거리에 물결치며 향기 풍기거니

꽃속에 향기속에  
기쁨의 열매 주렁져 무르익는  
이 봄날의 한순간마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선  
인민의 행복을 가꾸고계시여라!

가사

##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리영호

위대하신 손길로 3대혁명 이끄시고  
비범하신 예지로 대건설 펼쳐가시네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조국의 룡성변영 만대에 이루어가시네

자애로운 사랑으로 인민을 안으시고  
베푸시는 은정으로 행복 안겨주시네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인류의 새봄을 만발하게 꽃피우시네

향도의 별빛으로 남녘땅 밝히시고  
향도의 별빛으로 온 세계 밝히시네  
아, 친애하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자주통일 주체위업 승리로 이끄시네  
아, 자주화의 한길로 세계를 인도하시네

(1992. 2. 5.)

## 조선의 노래

피. 씨. 샤르마

동무여 노래를 부르자

주체사상의 노래를

조선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라 조선의 노래를

부르자 부르자 우리모두 부르자

통일의 노래를

**김일성** 주석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라 노래를

언제나 노래를 부르자

《통일조선의 노래》를

자주성의 노래를

부르자 부르자 동무여 부르자

(필자는 네 팔전국기자구락부 서기장임)

## 영광의 50성상

마마두 아부칸

꽃으로 수놓아진 50성상입니다

온갖 열매들이 주렁졌습니다

위훈으로 빛나는 50성상입니다

조선은 친선과 우애의 샘터입니다

당신의 손길아래

위대한 지도자동지는

현대적공장들이 일떠서고

세계인민들의 단결의 중심이십니다

풍요한 벌들이 일떠섰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력사입니다

친애하는 당신께서 꽃피워주신

당신의 50성상은

국제친선의 과원에

(필자는 세네갈청년작가협회 위원장임)

# 영광의 우리 총련

(총련)정화수

신록이 우거지고  
방초가 꽃향기 뿌려  
남들은 저마다  
산길 들길 찾아가는 5월이건만

총련의 5월은  
산과 들에  
록음방초 펼쳐는 계절

오늘도 총련은 여기에 있어라  
동포들을 찾는 길  
신문독자 늘어가는 바쁜 길우에  
우리 말, 우리 노래 높이 울리며  
혁신운동 마감을 다그치는 길우에

오늘도 총련은 여기에 있어라  
학원을 짓밟는자, 불지르는자들 제끼는  
항의규탄의 마당에  
동포들과 살림을 지키는곳마다에

밤낮도 없어라  
계절도 없어라  
70만의 대변자, 보호자로  
조국의 건설과 통일로 인도하는  
동포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태어난 그날부터 이 길을 걷고  
이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총련  
그는 주체의 눈부신 산아  
해외에 둘도 없는 애국애족의 대렬  
그가 없이는 발전잡 잘수 없는  
조국을 대신하는 어머니품

하늘이 낮고 땅이 좁던 지난날  
노예로 살아온 우리였건만  
주권을 가졌어도 조국을 잃어  
남의 품에 드놀며 룡락도 당한 우리  
얼마나 모대기며 찾아온  
재일동포 재생의 길이였던가

줄을 지어 밤하늘 건느는  
기러기떼 오히려 부러웠고  
떼를 지어 강남을 가는

철새들이 기록하게 느껴졌더라

항일의 첫걸음부터  
흩어져간 겨레들의 념원도 안고 걸으신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  
미제를 죽치시는 전화의 나날에도  
진창길 헤매던 우리를 아파하시어  
드디어 은혜로운 해살 비쳐주시었으니

1955년 5월 25일,  
아사구사공회당을 뒤흔든  
그날의 만세와 환호소리  
오늘은 일본땅을 뒤흔들고  
행복의 노래, 희망의 노래로 울려 퍼진다

나아갈 길을 찾고  
공화국공민된 영예를 찾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참삶의 보람을 지니게 된 재일동포들

그날이 있는지 어언  
한세대가 넘는 세월  
우리는 늘 들어왔더라  
한개의 나라가 할일을 하는 총련  
세계에서 가장 애국적인 해외교포들

살아서는 가장  
값높은 삶의 길을 걷고  
죽어서도 그 이름  
총련을 따라 함께 가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 걸으신 길을 잇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끄심따라  
통일의 광장까지 이어갈 길우에  
언제나 푸르싱싱 록음방초 펼쳐갈  
영광의 총련대오

축하를 드린다  
축복을 드린다  
은혜로운 해빛아래 나아가는  
빛나는 로정에  
희망찬 앞길에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 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 작품의 대를 바로세워주시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을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으로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애독되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처음부터 오늘과 같이 훌륭하게 창작완성된것은 아니였다.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처음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가운데서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항일유격대 창건시기까지를 포괄하여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를 창작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은 조선인길림소년회, 반제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등 수많은 혁명조직들이 탄생하는 경위를 중심선으로 하여 쓰다보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해당 년대에 조직전개하신 위대한 혁명 사적들과 업적들은 비교적 개괄되었으나 그 혁명 사적들과 업적들을 통일하고 관통하는 사상주제적인 기둥이 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 집단이 달라붙어 수정대안을 세우고 년대기형식은 기본으로 하면서도 가능한것 사상주제적인 기둥이 서도록 수정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작품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작가는 물론 전 집단이 창작적고민에 싸이게 되었다.

초판을 찍어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보이고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신통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들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리시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초판을 위대한 수령님께 올려 가르침을 받도록 하여주시였다.

1970년 12월 15일이였다.

이날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를 쓴 작가는 영화부문 예술인들의 무대공연시연회에 참가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게 되었다.

승용차에서 내리시여 환호하는 일군들과 예술인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속에 서있는 작가를 알아보시고 곧장 그의 앞으로 걸어들어오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영광이어서 어쩔바를 모르던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황급히 인사를 올리고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참으로 반갑다고, 건강은 어떤가 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작가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건강하다고 말씀 올리자 그이께서는 요즘 작품때문에 고심하고있다고 하는데 몸을 잘 돌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혁명의 려명》)를 읽으시면서 자신께서는 소설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다 알수 있으나 독자들이 다 알수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작가는 장편소설에 심중한 부족점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당대시기의 력사적 사실과 사건, 실재한 사람들을 소설에다 반영하다보니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던것이다.

작가는 이튿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또다시 전달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으면서 작품의 결함을 더 통철히 느끼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설을 다 보시고 교시가 계시였다고 하시면서 소설이 기본적으로 되었으니 몇군데 고치면 될것이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는 순간 작가는 가슴속에 치밀어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작가는 영화예술인들의 무대공연시연회가 끝난 다음 창작실에 돌아와서도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이 창작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와 관련하여 다시 말씀을 주시였다고 하는것이였다.

작가는 크나큰 걱정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소설이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민족주의거두 안창호가 길림에 온것이 소설에는 27년 여름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1928년에 민족주의자들의 3부통합회의때에 왔다고 그리고 차광수에 대한것은 따로 큰 소설을 하나 쓸수 있는데 여기에 함께 썼다고 하시였으며 또 오가자생활도 큰 소설로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군

의 음성은 깊은 감동에 젖어있었다.

작가는 크나큰 감동과 자책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문학작품에서 수령님을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일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것만큼 논의들이 많을수 있는데 그럴수록 창작가들은 열정이 있고 고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저명한 작가는 수정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의 참기 어려운 압력속에서도 끝까지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건설에 대한 로선을 고수하였으며 혁명적인 작가로서의 절개를 지켰다고 감명 깊게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가들이 머리에 든것이 없으니 좋은 소설을 써내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이 불 영화제목까지 일일이 정해주시었다.

작가는 넘치는 걱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기에 것처럼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 작품의 완성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사랑과 은정이 밀물처럼 가슴에 안겨들어 눈곱이 뜨거워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고무되어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왕성한 창작적열정을 안고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 수정작업이 잘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작가는 또다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자리까지 권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정한 음성으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에 대하여 다시금 교시가 계시였다고 하시면서 소설이 너무 전기같은 감을 주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작품수정방향까지 가르쳐주시었다.

작품수정방도를 찾지 못하여 모대기고있는 작가의 심중을 헤아리고 하시는 은정깊은 말씀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결함을 밝혀주는 명철한 가르치심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의 제목도 총서 《불멸의 력사》로 하고 매 작품마다 독립적인 소설제목을 달아서 1, 2, 3권으로 할데 대하여 다시금 지적하시었다.

창작실로 돌아온 작가는 커다란 창작적흥분을 안고 작품수정에 달라붙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작품전반에서 전기같은 감을 없애느라 애썼고 장편소설의 제목도 《태양이 솟는다》를 《혁명의 려명》으로 고쳤다.

이렇게 제목까지 고치고나니 장편소설이 종전보다 퍼그나 좋아진것이 알렸다.

그러나 어딘가없이 아직도 작품의 대가 똑바로 서지 못한듯한 불안감이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4. 15문학창작단에서는 여러차례의 토의끝에 이시기 초고가 끝난 몇편의 작품들과 함께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초판을 다시 찍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였다.

그때로부터 얼마 지난 1972년 12월 16일 아침이었다.

4. 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에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가들은 모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야 짐작되는바가 없었다.

제나름의 생각을 굴리며 당중앙위원회 청사에 들어선 작가들은 전혀 뜻밖의 소식에 모두 놀랐다.

그들을 맞아준 한 일군이 격동된 목소리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4. 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쓴 4편의 장편소설 초판을 다 읽으시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거칠고 부피 두터운 초고심의본을 이렇게 빨리, 그것도 4편을 한꺼번에 읽어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들이였다.

더우기 그때로 말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과 국가 사업전반을 돌보시는 가운데서도 혁명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느라 대극장 창가에서 새벽노을을 맞이하시던 참으로 분망하신 시기였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원고지로 근1만 5천여매나 되는 방대한 량의 소설심의본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읽으시고 작품의 완성을 위한 방도까지 밝혀주시는것이 아닌가!

장편소설 4편을 읽자면 일을 전폐하고도 한달은 읽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심의본분독을 맡은 일군들조차 그때까지 아직 1편 혹은 극상해야 2편정도의 작품을 읽는데 불과하였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누구보다 먼저 4편의 작품을 모두 읽으시고 강령적인 가르치심까지 주시였다고 생각하니 작가들의 가슴은 더더욱 달아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인 말씀을 전달 받은 그들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끓어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4편의 소설을 한편 한편 갈라서 그 우결함을 상세하게 분석하시고 수정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이 가지고있는 우점과 근본약점, 그 수정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신 초기혁명활동들을 내용으로 한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이 작품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신 혁명활동과정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하여나가신 과정이었으며 조선혁명의 장래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과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완성해나가신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시기에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었다.

이 시기는 실로 간고하고도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혁명활동로정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들의 온갖 모략과 탄압의 마수가 뒤따르며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 민족주의우두머리들이 제가끔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서로 《명도권》을 쟁탈하려고 날뛰는 참예한 정치무대에서 독창적으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나가시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조직전개하신 혁명투쟁시기를 잘 형상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이 기본적으로 옳게 형상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몇가지 문제들에서는 부족점이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2년 10월 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내용을 참고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의 출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자신께서 성장하시는 과정에 특히 학생시절에 부딪친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교시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뒤이어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벌어진 두가지 현상을 보시고 혁명을 그렇게 하여서는 안되었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으시고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과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교시하시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는 이 두 측면을 소설에서 생활적으로 잘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는 순간 작가들은 높은 령마루에 올라 온 세상을 내다보는것 같은 심정

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이 작품의 근본약점이 소설의 형식이나 양상을 바로잡지 못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소설의 핵을 이루는 종자를 바로잡지 못하는데 있다는것을 깨우쳐주시는것이였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초기혁명활동시기의 방대한 력사적사변들을 보여주고있는것만큼 우리 혁명의 려명을 불러온 주체사상의 출발점과 주체사상의 시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출발점, 주체사상의 시원이며 근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의 그 방대하고 꼭절다단한 사변들의 밑바닥을 줄기차게 관통하는 핵이며 이작품에 깊이 심어야 할 종자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퇴위주신 눈으로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니 소설에 맥락없이 기록되었던 방대한 사적들과 사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리공담과 추잡한 과정을 반대하시고 그들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묶어세우시고 혁명의 자주적힘을 키우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위대한 혁명적전환, 위대한 주체사상의 출발점을 마련하시는 하나의 거창한 산 력사로, 생동한 소설화폭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는것 이였다.

작가는 비로소 자신이 낡은 미학관에 사로잡혀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방대한 혁명사적을 깊이 연구하여 종자를 발견하고 형상을 꽃피울 대신 먼저 내놓은 기존틀에 방대한 혁명사적들을 맞추어넣으려고 하였다는것을 깊이깨닫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종자를 잡게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작품창작에서 력사적의의도 높이고 작품의 철학적성과 예술성도 높일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에서 반종파투쟁을 잘 형상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 형상방도도 친히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사적들을 작품에 잘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사실 초판에서는 작품의 종자가 똑똑히 심어지지 못하다보니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에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투쟁의 하나였던 반종파투쟁도 깊이있게 형상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품의 종자를 예술적으로 잘 꽃피우려면 세부들을 옳게 형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당시 인력거군을 멀리하고 천대하는 한 부자놈의 행동을 보시고 인



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지배하는 착취사회의 모순되고 불공평한 사회현상에 분개하시어 이런 세상을 뒤집어엎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시었다고 하시면서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때 일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차례 회상하시었다고 하시면서 길림에서의 인력거군사건을 잘 형상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작품에서 정치적으로려없이 잘못 서술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바로잡아주시었다.

수백페이지가 넘는 장편소설의 갈피갈피에서 고려없이 썼거나 잘못된 하나의 표현도 찾아내시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부각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고마운 은정에 작가들은 눈앞이 흐려움을 어쩔 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의 초판에서 나타난 근본결함으로부터 스쳐지날수 있는 자그마한 세부와 하나의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밝혀주시고 그 수정 방향과 방도들을 명백히 가르쳐주신후 다음해 4월 15일 명절을 계기로 출판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안겨주시었다.

작가는 신심과 환희를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력사적사변들과 혁명위업들 그리고 생활자료들의 밑바닥에 깔려 줄기차게 흐르는 주체사상의 발생 발전과정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는 립장에서 주인공들의 느낌과 갈등, 각이한 인물들의 성장과정

과 생활세부들을 펼쳐나갔다.

이렇게 작가는 땀심을 들여 작품을 수정완성하여 1973년 4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을 다시 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였다.

1973년 5월 25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정완성하여 올린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을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반영한 작품들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작품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소설을 읽어보니 작가들이 심오한 사색과 탐구,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는것이 알린다고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작품의 초고로부터 그이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지도를 받고서야 작품을 완성할수 있었던 작가는 기쁨과 함께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을 그대로 출판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소설이 나가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소설을 빨리 출판하여 공화국창건 25돛기념출판물로 할데 대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이렇듯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 가사

# 백두산에 갈매기 나네

정도희

천하절승 백두산에 아침노을 불타는가  
만리창공 치솟으며 흰갈매기 훨훨 나네  
산을 넘어 들을 넘어 천리 먼길 달려온 너  
백두산의 아름다움 네가 더해 멋이로다  
  
금빛으로 물들여진 억센 나래 활짝 펴고  
은물결로 출렁이는 호수가를 훨훨 나네  
혁명의 뜻 어려있는 성스러운 백두산상

그 자욱을 노래하려 바다 멀리 네 왔구나  
  
금수강산 나의 조국 날아갈곳 하 많아도  
온 세상이 찾아오는 백두산을 못떠나네  
끊임없이 차고넘친 그 마음의 바다우에  
흰갈매기 날아들어 백두산을 노래하네  
아 백두산에 갈매기 나네

## 지동이 일다

소화 19년이라하면 1944년이다.

강남갔던 제비가 해묵은 제 둥지로 날아오고  
벗꽃이 만발하게 피어나던 계절이니 의례히 이무  
렵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즐거워지기마련  
이다.

일본사람들이 신성시하며 우상으로 떠받들고있  
는 124대 천황 히로히도도 못사람들처럼 봄을 맞  
을 때면 늘 마음이 즐거웠었다.

그런데 이해봄엔 왜 이리도 마음이 울적할까?

꽃을 각별히 사랑하는 천황이지만 정원에 아름  
답게 핀 꽃을 봐도 기쁘지 않았고 그 꽃을 찾아  
반기는 나비를 봐도 즐거움을 느낄수 없었다. 궁  
녀들의 교태도 천황의 기분을 돌려세우는데는 아  
무런 효과가 없었다.

천황의 입에서는 자주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  
어나왔다.

일본은 지금 궁지에 빠지고있다. 아니 궁지에  
갇혀있고 빠져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수 있을까? 천황  
은 줄곧 이 생각뿐이었다.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천조대신)도 기울어져가는  
《대일본제국》의 운명을 어찌지 못하는 모양이었  
다.

여직까지 천조대신은 일본을 얼마나 부흥시켰  
던가.

크지 않은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날이 갈수록  
세력이 더 뻗쳐 마침내는 동양의 맹주로까지 되  
었다.

이 아마데라스 오미까미에게 천황은 물론 온  
일본국민이 빌었다.

진자참배는 일본인들의 생활에서 떼수 없는 부  
분이였고 아마데라스 오미까미는 그들의 뱃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다.

진자참배는 조선사람들에게도 강요되었다. 그  
것때문에 일제말기인 1944년까지 조선에 세운  
큰 《진자》만 하여도 60여개나 되었고 건설중에  
있는것도 무려 939개나 되었다.

아무리 빌어도 천조대신은 기울어져가는 일본  
의 운명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천황은 일본에 닥친 불행의 화근이 조선에 있  
는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사령부에서 보내온 밀보  
(비밀보고)들을 보면 모두 기상천외한것들이기때  
문이었다.

《대일본제국》에 선전포고를 한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의 항일유격대는 천지조화를 일으키고  
천변만화하는 술법을 써서 100만관동군이 교양이

앞에 취처럼 꼼짝 못한다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  
를 추격하던 《황군》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바  
람에 몇천명씩 그속에 빠져 무리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바위돌로 굳어지게 한다고도 하였다. 또 어  
느날밤에는 멀쩡하던 놈들이 백두산에 새로 솟은  
새별에서 내뿜는 빛을 보자 모두 눈이 멀어서 소  
경이 되어버렸다는것이였다.

조선총독과 관동군사령관은 우는 소리를 했다.  
축지법을 쓰고 풍운조화를 부리는 **김일성**장군 항  
일유격대는 오직 《하늘의 아들》인 천황만이 맞  
서볼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를 읽고난 천황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천황이라는 거  
룩한 체면도 건사할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력대로 일본천황들은 즉위한후에 다른 나라에  
가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지어 궁성밖을 나가본  
적도 별로 없었다.

히로히도의 경우만 봐도 황태자시절엔 몇군데  
가보았으나 천황으로 즉위한후엔 늘 궁성안에만  
박혀있었다.

레외이긴 하지만 괴뢰 《만주국황제》로 부의를  
들여앉힌후 그를 일본으로 불러들이고 역으로 마  
중나간적이 한번 있었고 간또대지진때 피해현장  
을 돌아본답시고 궁성을 나온적이 있었다. 그후  
세월이 퍼그나 지나 일제가 패망한후 맥아더사령  
부에 항복하기 위해 흰기를 들고 궁성을 나왔던  
것도 들어야 할것이다.

이처럼 천황이 궁성밖을 나온것을 힘들게 꼽을  
정도이니 조선에 가보겠다는것은 참으로 경이적  
인 일이었다.

천황은 궁내부대신을 불렀다.

《짐이 조선을 다녀오려 하니 경은 이제부터 행  
차준비를 서두를지어다.》

궁내부대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처음엔 말귀도 알아듣지 못했었다.

《폐하, 무슨 말씀이시온지 소신은 그 뜻을 가  
늠하기가 어렵사옵니다.》

천황은 궁내부대신을 한동안 쏘아보더니 버럭  
성을 내며 《어서 행차준비를 서두르라》 하고 같  
은말을 되풀이했다.

궁내부대신은 또 뭐라고 조아렸다.

《천자이신 폐하께서 출궁하시어 나라안을 돌아  
보시는것도 실은 존귀하시고 위엄높으신 천황의  
인품에 손상이 가는데 속국인 조선에까지 가신다  
는것은 하늘을 노엽힐 일로소이다. 한번 더 심  
량하셔서 조치하옵소서.》

《경도 지각이 있으면 알겠거늘 난파선이 된 <

대일본제국>이 바다물에 가라앉는것을 뻔히 보고도 가만있으란말이나?》

궁내부대신은 조금도 물려서지 않았다.

《아니옵니다. 일본은 난파선이 아니라 폭풍도 뚫고나갈 전함입니다. 아마데라스 오미까미께서 우리 일본의 운명을 구원해주실것입니다. 오로지 폐하께서 옥체건강하셔야 제국에 안녕이 깃들것인즉 조선에 가신다는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조선에선 날마다 하오 4시가 되면 지동이 이는데 심상치 않은 일인줄로 아옵니다.》

천황은 펄쩍 놀랐다.

《지동이 일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조선에 지진이 인단말이나?》

《지진은 아니옵니다. 그 지동은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부터 뻗어나오는데 반도인들은 국운이 열릴 조짐이라고 모두 기뻐하고있습니다.》

《국운이 열리다니? 그럼 조선에 국운이 열린단 말이나? 좀 자상히 말해봐라.》

천황은 안달이 났다.

《예, 하오 1시이후엔 먼저 백두산이 있는 함북도 땅에 지동이 일고 그다음엔 함남도와 평북도 땅이 흔들리고 차례로 평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땅이 움직인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폐하의 안녕을 어찌 담보할수가 있겠습니까?》

《피이한지고, 그게 무슨 변고인가? 누구든 조선 땅에 보내여 그 사실을 자상히 알아올지어다.》

천황은 이렇게 말하고 피곤한듯 옥좌에서 일어나 내실로 들어가버리고말았다.

다음날 천황은 제 동생을 직접 조선에 보내라는 어지를 내렸다.

그리하여 천황의 동생은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가 조선에 첫발을 들여놓은곳은 부산이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 하오 4시가 좀 지나자 정말 경상도땅이 부르르 떨리었다.

우르릉 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가 잠시동안 났다. 지진은 아니었다.

(이것이 백두산에서부터 인다는 지동이란 말인가?)

그는 더럭 겁이 났다. 누구보다 지진세례를 많이 받아온 일본인으로서는 땅이 흔들리는데는 여간 겁이 나지 않았다.

그는 그길로 뺑소니를 쳐 궁성으로 돌아오고말았다.

동생에게서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천황은 더 골머리를 앓았다.

천황은 제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건딜수가 없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함부로 궁성을 나설수도 없었다.

그날밤 갑자기 붉은 기운이 궁성에 비끼여 불이타오르는것 같았다.

천문을 맡은 관리가 말하기를

《이상한 기운이 궁성에 내리비낀것을 보면 나라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아, 하늘이 천자를 이처럼 몰라보시며 신명이 이다지 무심하단말인가? 일월이 명랑하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단말이나?》

천황은 더는 궁성안에 박혀있을수 없었다.

그는 즉시 궁내부대신을 불러 조선으로 떠날 차비를 하라고 어명을 내렸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천황의 행차를 말리지 못했다.

천황은 몇 안되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모르게 조용히 궁성을 나섰다.

겁이 많은 그는 백두산에서 제일 먼곳에 있는 제주도에부터 가자고 하였다.

제주도에 간 황제는 또 질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백두산에서 제일 먼 제주도땅도 바로 그 시간에 웅- 소리와 함께 드르릉 하고 지동이 일었던 것이다.

천황은 생각하면 할수록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해난 천황은 본토에까지 가볼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천황은 그시로 돌아와 입궁하고말았다. 그리고 자기가 조선땅 제주도에 갔었다는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이라고 엄명을 내렸다.

천황은 도무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정말 신령스러운 그 백두산의 조화일까? 머리를 싸쥐고 고민하던 천황은 낮말은 새한테서 듣고 밤말은 쥐한테서 듣는다는 꾀많은 한 신하를 불러들였다.

《그대는 이제 당장 조선으로 건너가 지동이 이는 원인을 알아오라.》

천황은 그를 은밀히 조선으로 파했다.

그 신하는 조선으로 건너가 변복을 하고 사람들속에 들어갔다.

로인으로도 변장하고, 아이로도 변장하고 지어는 아낙네로까지 변장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귀를 기울였으나 별로 신통한것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다만 백두산장군별결에 새로 모성과 자성이 나타나 그 삼태성이 광휘로운 빛을 뿌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동이 일군한다는것밖에 더 알수가 없었다.

신하는 할수없이 궁성으로 되돌아가 천황한테 그대로 여쭙지 않을수 없었다.

《뭇이 어쨌다구? 백두산에 삼태성이 떴다구?》

천황은 전율하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뜨자 궁성의 유리창이 깨어  
지고 기와장이 날아나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실은 그때부터 《대일본제국》이 내리막길을 걷  
기 시작한것이다.

(아, 일본은 망하고말았구나!)

천황의 뇌리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비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저멀리 백두  
산쪽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세개의 큰별이 명멸  
하고있었다.

천황은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그러나  
《대일본제국》의 천황이 쉽게 물러설수는 없었다.

그는 긴급 《어전회의》를 열어놓고 이른바 《2  
천년래의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공궁이를 하였  
다.

력사적사실은 이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일제는 1944년 7월 21일 군부살인두목의 하나  
인 악명높은 육군대장 아베 노부유키를 제9대 조  
선총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놈도 어찌는수가 없었다.

그후 한해가 지나 일제는 끝내 망하고야말았  
다.

극동군사재판소에서 오그랑수를 써 겨우 벗어  
난 천황은 그뒤에도 조선땅에 지동이 일군하던  
원인을 몰라 궁금해하였으나 종시 알지 못했다.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밀영이 개영된후 고향집  
안에 있는 쪽무이 지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스디여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던 이 전설을 마  
무리하게 되었다.

일제말기 우리 나라 땅에 때없이 지동이 일군

한것은 그때마다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쪽무이 지도를 가지고 지도놀이를 하셨기때문이라  
는것이다.

함북도지도쪽을 쥐시면 함북도땅에 지동이 일  
고 평남도지도쪽을 만지시면 평남도땅이 움썸했  
다고한다.

천하술법을 다 지니시고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  
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천지조화  
를 부리시었다는것이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다.

해방직후 청진시 수원인민학교를 찾으신 친애  
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왜놈들이 쓰던 지구의를 보  
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지구의에 그려진 지도를 자세히 들  
여다보시다가 왜놈들의 땅과 우리 나라를 빨간색  
으로 같이 칠해놓은것을 발견하시였다.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황  
국신민화》를 고창하던 왜놈들이 조선과 일본을  
한나라로 표시한것이였다.

격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먹으로  
일본지도를 새까맣게 칠해놓으시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날 온 일본땅에 갑  
자기 검은 구름이 뒤덮이면서 느닷없이 소낙비가  
한동안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  
린시절부터 천지조화와 풍운조화를 한몸에 다 지  
니고계신다고 즐겨 말하군하였다.

김우경 정리

## 5 호물동가에서

조성관

무릎을 걷고도 넘나들

5호물동-

산도 이 산 다름없고

땅도 이 땅 다름없건만

개천같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국의 땅이란다

강너머엔 흙이 없어서더나

그날의 투사들의 눈물에 젖던

한줌의 흙... 그 흙을

내 또한 한웅큼 움켜서 친다

거기에 나무가 없어서더나

그날의 투사들이 안고 돌던

아름드리나무... 그 나무를

내 또한 쓸어 비빈다

제 나라 제 땅의 흙

제 나라 제 땅의 나무를

내 여기서 난생 처음으로 보는듯

투사들이 띄워준 그 눈으로

그들이 안고 살던 그날의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보는

아, 조국의 땅 5 호물동가

## 기적소리

림재성

두줄기 궤도우로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쉬임없이 달리는 열차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철도일군들과 의사를 나누기 위하여 기적으로 신호를 한다. 말하자면 기적소리는 철도일군들이 나누는 특수한 《언어》인것이다.

내가 그 기적소리에 남다른 감동과 지어 친근감까지 느끼기 시작한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부터였다. 함흥철도관리국(지금의 동부철도총국)의 어느 한 중간역 전철원이었던 나는 근무중 많은 시간을 통신감시근무로 보냈다. 그때 철도에서는 사령지휘통신과 열차폐색선이 따로 없고 하나의 구간선화선을 리용했고 또 열차운전의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야간 통신감시근무를 썼던 것이다.

나의 이웃 정거장 감시근무성원들도 어린 동무들이었는데 대부분이 처녀들이었고 장난꾸러기들이었다. 우리는 적비행기가 나타나지 않거나 열차가 없을 때에는 지루한 공간을 메우기 위해 장난질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비번일에 20~30리길을 오가면서 소박한 정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사이에는 형제와 같이 정이 두터워져 전화기에서 귀설은 목소리가 들려오면 손맥이 풀리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이웃역에 대한 적비행대의 집중폭격이 있었다. 여름밤이었다. 원산, 양덕, 함흥 세 방향으로 철길이 뻗어있는 이 간선분기역에 대한 적비행대의 폭격은 집요하고 악착스러웠다. 그날 전선으로 나가는 주요 군수열차가 많았는데 적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분기역을 지키고있던 인민군대의 대공화력도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참으로 크지 않은 정거장 하나를 가운데 놓고 철과 철, 불과 불의 대격전이 벌어졌다. 적비행대는 여러개의 편대를 지어 가지고 파도식으로 밀려오면서 한톤짜리 폭탄을 수백발씩 집중적으로 떨어군하였는데 그럴때의 역구내는 말그대로 불바다가 되었다.

나는 역장과 함께 높은 언덕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보았다. (우리 역에서는 분

기역이 뻥히 내려다보였다.)

《아, 다 죽었구나!》

나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절망적으로 부르짖다가 소리내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열여섯살이었던 나는 비번날이면 서로 오가면서 정을 나누어오던 처녀가 놈들의 폭격에 잘못될것만 같았던 것이다. 하긴 사방 막힌데라곤 없는 구룡지대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분기역에서는 적비행대의 공습을 방공호하나에 의존하고있었으니 그 무시무시한 시련을 견디어낼것 같지 못했던것이다. 두메산골에서 살다가 기차구경을 한지 겨우 한해밖에 되지 않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겁도 났었다.

그런데 이때 문득 귀가 멍멍해지는 요란한 폭음속에서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오는것이였다. 한번 또 한번 여무진 그 기적소리는 첩첩히 드리운 어둠과 요란한 폭음을 뚫고 기운차게 메아리쳐왔다. 전반생을 철도에서 복무한 나이 지숙한 역장이며 선로반장까지 한동안 얼퍼름해서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의혹의 한순간이 지나자 누군가 《살았소, 살았어!》 하고 웨치는 것이였다.

나는 제일먼저 가설운전실인 방공호로 달려갔다. 때마침 기다렸다는듯이 전화종이 찌르륵거리더니 귀익은 처녀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흐읍!》하고 나는 또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난 다음 교통운수부문 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전쟁때 지방에 출장나간 당중앙위원회의 한 간부동무가 우연히 어떤 인민군전사와 함께 함흥 지방의 어느 농촌에서 하루밤 류숙하게 되였습니다. 그날 밤에 주인집로인은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먼곳에서 적기의 폭격소리와 함께 평상시와 같이 기관차의 힘찬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에 로인은 <젊은이들, 저 기적소리를 듣는가?>고 물었습니다. 인민군대전사동무는 듣노라고 대답하면서도 늘 듣는 소리기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그 로인은 말하기를 <우리는 저 기적소리가 안들릴 때에는 밥먹을 생각도 잠잘 생각도 나지 않고 손뱁이 다 풀리오. 그러다가도 저 소리만 들려오면 전선에 있는 우리 아들이 총탄도 받게 되고 식량도 받게 되려니 생각하고는 안심이되어 잠도 자고 일에도 수백배의 힘을 내게 되오>라고 하였습니다. 로인은 그날 밤 그 기적소리를 듣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줍니까? 이것은 우리의 철도운수가 아들딸들을 정의의 싸움터로 내보낸 우리의 후방인민들과 전선을 얼마나 밀접히 연결 시키었으며 교통운수일군들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으며 철도운수일군들의 영웅적투쟁이 승리에 대한 인민들의 신심을 얼마나 고무하여주었는가를 말하여줍니다.》

나는 수령님의 이 교시를 생각할 때마다 심대 사춘기에 체험한 그 여름밤을 돌이켜보곤한다.

그때로부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 나의 머리에 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렸다. 그러나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에 체험한 생활의 한토막이어서인지 지금도 멀리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기적소리를 듣노라면 가슴이 몽클해지면서 추억은 어느덧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그 잊을수 없는 여름밤으로 달린다.

하지만 두줄기궤도우로 달리는 그 기적소리가 시사해주는 참뜻을 안것은 얼마전이었다.

지방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밤중에야 북방의 어느 한 역에 도착하시였다. 군일군들은 그이를 맞이한 기쁨에 휩싸여 어서 숙소에 가실것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숙소에 가면 거기 있는 동무들이 또 수고를 하게 되겠는데 이대로 여기 열차칸에서 자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거듭 청을 올렸으나 그이께서는 굳이 사양하시며 수원들에게 숙소에 가라하시고 자신께서는 열차에 오르시였다.

어쩔수 없는 일앞에서 수원들은 하는수 없이 대책을 세워 역을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기적소리를 울리지 말며 속도를 최대한 늦출데 대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열차들은 조용히 구내로 들어오고 슬그머니 빠

져나갔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승강대로 나오시여 한일군에게 역구내가 왜 이리 조용한가고 물으시였다. 사연을 다 들으신 그이께서는 웃음어린 안색으로 열차에서 자면서 기적소리를 듣지 못하고서야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열차의 기적소리는 곧 조국의 숨결이며 맥박입니다, 여느때와 같이 마음껏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리도록 하시오,

그래야 나도 잠들수 있을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조국의 숨결을 이어주는 기적소리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들으며 전후 조국해방전쟁을 총화짓는 뜻깊은 장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깊은 뜻을 다시금 리해할수 있었다. 또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째서 것처럼 철도운수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가를 깨달을수 있었다.

조국의 숨결! 달리는 열차에서 기관차가 울리는 하나의 고통속에서 조국의 숨결을 느끼시는 지도자동지이시기에 다단한 국사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도 5.18무사고정시운전이라는 역사적 증송투쟁을 발기하시였고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진두지휘해주신것이라. 하여 오늘의 우리 철도운수는 20세기 산업혁명의 유물인 증기기관차를 후대교양을 위해 필요한 박물관으로 말끔히 쫓아버린 나라로 되었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시원을 마련해주신 철도중랑화의 큰 걸음을 내디딘 존엄있고 위대한 사회주의조국으로 된것이다.

10대 사춘기시절부터 나의 전반생은 두줄기궤도우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변심을 모르고 달리는 열차와 함께 흘렀고 후반생역시 그렇게 될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속절없이 흘러간 동요시절을 회고하는 참신한 심정으로 폭연에 흐려진 조국의 하늘가로 우렁차게 울려퍼지던 기적소리를 들으면서 격정에 겨워 엉엉 울던 그 여름밤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기적소리를 조국의 숨결로 이어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을 생각하며 그이께서 우리혁명의 수위에 서계시는 한 기적소리는 영원히 멈춤없이 더욱 우렁차게 울려퍼지리라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우리 선동원

황정일

금야군 신성협동농장은 흑돌령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산간농장이다.

서당골, 새골, 엄정골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물들이 모여 신성천을 이루고 그 좌우편 산비탈들에 강냉이밭들이며 파수밭, 뽕밭들이 널려있다. 그리고 아담한 살림집들과 농장관리위원회, 문화회관을 굽어보듯 푸른 숲에 둘러싸인 봉화재, 운구봉이 우뚝 솟아있다.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기로 소문났던 이고장에 오늘은 해마다 알곡풍년, 과일풍년이 들어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노래하고있다. 특히 조명숙동무가 선동원으로 일하고있는 4작업반 2분조에서는 올해에도 벼 정보당 8.5톤, 강냉이 8.2톤을 수확함으로써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124.9%로 넘쳐했다. 이 자랑스런 성과의 근저에는 분조를 하나의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고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선동원 조명숙동무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는것이다.

흑돌령 기슭에 피어난 《90년대의 붉은 선동원》조명숙! 과연 그는 어떤 길을 걸어 90년대의 첫기슭에 우리 농촌선동원들의 본보기로 충성의 붉은꽃으로 피어났는가.

### 새출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일꾼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1985년 4월 하순.

영광스럽게도 전국선동원대회에 참가하여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고 돌아오는 조명숙동무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를 반기듯 연록의 새싹들이 움튼 길가의 백양나무가지들에서 아름다운 메세들이 즐겁게 지저귀고있었다. 평양으로 떠날 때는 아직 비닐박막에 덮여있던 강냉이영양단지모들이 벌써 강냉이밭들에 옮겨져 봄을 맞은 고향의 들판을 더욱 푸른 빛으로 단장시키고있었다.

주절대며 흘러가는 개울물소리, 밭을 가는 트랙터발동소리 ...

조명숙은 등에 진 배낭을 추스르며 걸음을 빨

리했다. 강냉이모를 옮겨심고있는 분조원들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왔던것이다. 분조를 떠난지는 불과 열흘도 못되었지만 퍼그나 오래 헤어져있은듯 마음부터 앞서는 그였다. 그들과 함께 자신이 받아안은 영광과 기쁨을 빨리 나누고싶었다.

《선동원동무가 온다!》

누군가 먼저 밭머리에서 환성을 올리자 여기저기서 모를 옮겨심던 사람들이 허리들을 펴며 일어섰다. 조명숙동무는 삼시간에 분조원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모두들 잘 있었어요?》

그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어깨에서 배낭을 받아들던 분조장 한상익동무가 《에크-》 하며 허리를 굽혔다. 무엇이 들었는지 배낭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자 우리 선동원동무가 왔는데 좀 쉬었다하지...》

분조원들의 뒤전에서 누군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석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당비서 박효석동무였다. 조명숙동무는 법석 떠드는바람에 인차 그를 알아못본것을 부끄러워하며 수집게 인사를 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단발머리인 자기에게 선동원의 임무를 맡겨주며 우리 함께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보자고 고무해주면 리당비서였다.

분조원들은 밭머리의 잔디밭에 빙 둘러앉았다. 보고싶던 정다운 모습들이였다. 동창생 녀동무들이며 타고장에서 시집온 리순애, 박영실 아주머니들, 제대군인 청년들과 신입농장원들의 애젊은 얼굴들... 그들 뒤전에 웃음을 짓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있는 리당비서와 작업반장 김종석동무... 선동원대회소식을 이야기하고난 조명숙동무는 조심스럽게 배낭을 풀어헤쳤다. 그러자 잘 생긴 강철 삽날들이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경탄의 목소리들이 터져올랐다. 그는 분조원들에게 삽을 나눠주기 시작하였다. 스물다섯개였다.

박효석동무는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대회가 끝난후 남들은 화장품이며 친척, 친우들에게 나눠줄 기념품들을 마련하느라고 백화점들을 찾아다녔을테지만 저 처녀선동원은 뜻깊은 평양삽을 기념품으로 안고온것이였다. 분조농사부터 생각하는 선동원의 진정에 모두들 감동하였다.

삽을 다 나눠주고나서 조명숙동무는 이렇게 호소했다.

《전 지난해에 짬짬이 70톤의 풀을 뺐어요. 올해에는 그 두릅을 베려고 결심했어요. 땅이 척박한 우리고장에서 풍년가을을 마련하는 길은 땅의 지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모두 지난해보다 두릅, 세릅씩 풀을 베자요, 열톤을 베었던 사람은 스무톤을 베고 스무톤을 베었던 사람은 마흔톤을 베자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봐요…》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제대군인 김동무가 벌떡 일어서며 손을 내휘둘렀다.

《웁쇼! 나도 올해에 선동원동무처럼 백톤이상의 풀을 베겠소.》

《하하. 임자는 좀 힘들걸…》

중년남자들속에서 누군가 시까슬렀다.

《왜요?》

《금년에야 오죽 바쁠라구… 처녀 선보려도 다녀야지 장가도 들어야지.》

《하하》, 《허허…》

여기저기서 즐거운 웃음소리들이 터졌다. 그러나 김동무는 비위살충제 처녀들쪽을 흘금 바라보았다.

《여기에 처녀들이 줄지어 앉았는데 시간랑비하며 선보려는 왜 다녀요. 우리 분조장동무처럼 제격 한사람 골라잡으면 될걸…》

이미 지난해에 명숙의 동창생인 김경녀와 결혼한 한상익분조장은 한순간 얼굴이 붉어졌으나 그만한 룡담에 주눅이 들 그가 아니었다.

《좋네, 수리 선동원동무만큼 풀을 베면 내 고운처녀 골라주겠어… 그전에 안돼.》

다시 즐거운 웃음소리들이 터져 휴식참의 발머리는 흥성거렸다. 그때 아주머니들속에서 누군가 말했다.

《저 그동안 선동원동무의 노래를 듣지 못하니 별스레 포전이 조용하두만… 이 기쁜날 한곡조 부르는게 어때요?》

《그게 좋겠소!》

《한마디 들어봅시다.》

조명숙동무는 일어섰으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분조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이다. 뒤편에 앉아 담배를 피워문 리당비서가 고무해주듯 두눈을 꿈쩍해보였다.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새봄이 왔네  
아름다운 농장벌에 새봄이 왔네

맑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가 봄을 맞아 한껏 푸르른 운구봉 저 멀리로 울려가기 시작하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대오의 앞장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던 그의 노래소리

였다.

한상익동무는 문득 지난해 여름 강냉이이삭비료 주기때의 일을 회상했다. 이삭비료주기작업은 기계화하기 어려운 힘든 작업이었다. 아침부터 일을 다그쳐 서당골포전을 끝냈는데 하늘이 갑자기 흐려오고있었다. 만약 장마가 들이닥쳐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수 있어 분조장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해는 얼마 없는데 아직 새골 어귀의 3정보의 강냉이밭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분조원들은 퍼그나 지친듯 여기저기 풀밭에 드러눕기도 하고 그늘밑에 앉아서 해뿌리를 쳐다보기도 했다. 이대로 휴식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다시 분조원들을 일켜세워 건너편 강냉이밭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는 결심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였다. 결단성이 있고 패기있는 젊은 그였으나 벌써 며칠째 지쳐있는 분조원들을 새골포전으로 데리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새골밭 어귀에서 조명숙동무의 명랑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어느새 발머리참을 하고난 그가 비료다래끼를 메고 강냉이밭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조명숙동무의 힘찬 노래소리는 지쳤던 분조원들의 가슴속에 새힘을 주며 샘물처럼 흘러들었다. 한사람, 두사람 새골 강냉이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명숙동무! 고맙소…)

한상익동무는 눈물이 글썽하여 분조장의 구렁이없이 새 포전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분조는 끝내 계획대로 강냉이 이삭비료주기를 말끔히 끝낼수 있었다…

조명숙동무의 노래가 끝나자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것은 영광을 안고 돌아온 자기네 선동원을 열렬히 축하하는 민음의 박수소리였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일으킬줄 아는 선동원이었다.

## 온 농장에 라오른 불꽃

조명숙동무는 이해에 풀베기를 남번저 시작하였다. 그는 집앞의 풀퇴적장을 다시 크게 만들었다. 깊이도 종전보다 한길이나 더 깊게 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혀를 찼다.

도대체 저 큰 구덩이에 무슨 풀을 채운단말인가? 그러나 명숙동무는 동요없이 열심히 풀을 베었다. 아침, 점심, 저녁 짬짬이… 그리고 달밤에도 풀을 뺐다. 그에게는 년중 달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을 기록한 자그마한 수첩도 생겨났다. 마당앞의 풀퇴비높이는 차츰 키가 자라났다. 그러



나 안타까운것은 일부 사람들이 풀베기에 섰듯 따라나서지 않는것이였다. 오히려 어떤 동무들은 두눈이 움푹 꺼져들고 입술이 초들초들 말라가는 그를 측은하게 생각하거나 동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속에는 명숙동무가 모르게 풀을 베어 그의 집풀퇴적장에 쌓아주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자기를 아껴주는 가목한 마음들에 한순간 가슴이 찢어졌으나 조명숙동무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과연 그런값은 동정이나 받자고 자신이 풀베기를 시작했던말인가...

어느날 이른새벽, 낮을 들고 문밖을 나서던 조명숙동무는 주춤했다. 우유빛 안개가 떠도는 행길저쪽으로 누군가 다급히 트랙토르를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방금 퇴적장에 부리워놓은 한가정도의 풀을 발견하였다. 트랙토르가 부리워놓은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다급히 트랙토르바퀴자국을 따라 종주먹을 쥐고 달려갔다. 한참 뛰어가니 마침 트랙토르가 신성한 기슭이 멈춰서있었다. 누군가 옷등을 벗어붙인채 세수를 하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분조장 한상익동무였다. 온밤 풀을 베것이 분명했다. 그의 아리도리는 이슬에 젖어 후줄근했다.

세수를 하고난 한상익동무가 물 한바께쓰를 떠서 트랙토르에 끼었으려다가 조명숙동무를 발견하고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에없이 심각한 표정을 한 명숙동무의 모습에 기가 질렸다.

《풀베기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조명숙동무의 목소리는 답답하게 울렸다. 내심 흥분을 참는것이 확인하였다.

《풀베기를 돕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한상익동무는 시치미를 뚝 떼었다.

《당장 우리 집앞으로 차머리를 돌리세요. 난 그런 녹거리동정으로 자기의 결의를 완수했다고 사람들앞에 나서고싶지 않아요. 동무의 눈에는 내가 아마 제 이름이나 내보자고 그런 목표를 내걸고 아득바득 애쓰고있는것 같았겠지요? 정말 분해요...》

《명숙동무, 저 사실은...》

한상익분조장은 떠듬거리였다. 그는 량심가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한상익동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선동원의 풀베기목표를 빨리 점령해치우고싶었다. 그래서 어제밤에 사로청원들을 데리고 운구봉막바지에 가서 풀을 베놓았다가 새벽에 남몰래 실어왔던것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이야...

《우리끼리니 한번 흥금을 터놓고 말해보자요.

분조장동문 왜 자기의 풀퇴비생산계획을 수행하려 하지 않나요? 그러니 분조장동무의 그늘밑

에서 편안히 낮잠을 자는 분조원들이 없어지지 않는거예요. 난 우리 집 풀퇴비높이가 한메터 높아지는것보다 우리 분조 전체 동무들의 풀더미가 한뿔이라도 높아지는게 더 기뻐요...》

한상익동무는 가슴이 후끈 달아오르는것을 느꼈다. 선동원의 진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였다.

《명숙동무, 용서하오. 내 생각이 좀 짧았더랬소. 나도 이제부터 동무처럼 풀을 벨테요. 난 마치 자기는 풀베기의무가 없고 선동원동무만 그어떤 사회적인무가 있는것처럼 생각했던말이요. 땅의 지력을 높이는 문제야 어디 한두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지.》

《분조장동무, 고마와요.》

분조장의 시원시원한 대답에 조명숙동무는 눈물이 나오도록 반가웠다. 선동원과 분조장의 뒤를 따라 풀베기를 직심스레 하는 분조원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만갔다. 그것을 보는 명숙동무의 마음은 기뻐했다.

선동원! 그는 앞장선 사람이다. 얼마디의 말보다도 한번의 실천행동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그보다 더 효과적인 선동이 어데 있을것인가.

그러나 조명숙동무네 풀퇴적장에는 정채불명의 풀단들이 계속 생겨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조원들속에는 더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승벽내기로 자기네 풀무지를 높이 쌓는데 열중하고있었다.

8월의 어느 달밝은 밤이었다. 딸애의 풀베기를 도와주려고 대문밖을 나서던 아버지 조왕수동무는 누군가 퇴적장에 풀을 부리워놓고 아래길로 사라지는것을 보았다. 그는 엄정골에서 풀을 베고있는 딸을 만나 그 이야기를 했다. 조명숙동무는 대뜸 그가 누구라는것을 알아맞췄다. 얼마전 길에서 얼핏 스쳤는데 그가 파수반선동원 유영태동무였던것이다. 뒤에서 자기를 말없이 도와주고있는 혁명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오는것을 느꼈다. 언젠가 군당에서 조직한 선동원강습에 갔다오던길에 그는 1분조선동원 한순남아주머니와 유영태동무랑 마을앞 방천뜰에서 다리쉬를 한적이 있었다. 조명숙동무는 그들에게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의 감명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앞줄 가운데 서있는 한 녀성일군을 아버지수령님께 소개하시면서 이 동무가 붉은 선동원리신자동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조명숙동무는 앞으로부터 일곱번째 줄에서 있었지만 그이의 음성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심장에 새겨두었다. 스물다섯해전의 처녀선동원을 아직도 잊지 않으시고 몸가까이 세워주신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에 조명숙동무는 온몸을 불태우는 전류와도 같은 강한 환희와 감격에 휩싸였었다.

(인생을 바쳐 선동원으로 살리라. 시대와 인민이 기억하고 당과 수령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참된 선동원이 되리라. 그보다 더 큰 삶의 보람, 인생의 행복이 어데 있겠는가!)

그렇게만 살수 있다면 자기의 청춘, 자기의 인생을 열백번이라도 다 바쳐 살 조명숙동무였다.

그날 유영태동무는 갈림길에서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명숙동무! 동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꼭 60년대의 농촌선동원 리신자동무와 같은 붉은 선동원이 돼주길 바라오.》

바로 그렇게 뜨거운 고무를 해주던 유영태동무였기에 말없이 밤마다 그를 위해 풀을 베었던 것이다

며칠후 리당에서 진행한 선동원모임에서 돌아오던길에 조명숙동무는 유영태동무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동무의 진정은 무척 고마워요. 그러나 우린 선동원이 아닌가요. 유동무는 왜 파수반사람들을 풀베기전투에로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저를 위한 그런<희생>을 하세요. 고향땅을 살찌워 높은 알곡수확을 내는 일이 어찌 우리 분조에만 한한 일이겠어요. 모든 농산반들, 파수반, 공예반들이 다 펼쳐나서도록 우리 선동원들이 앞장서자요 네?...》

유영태동무는 말없이 굳게 그의 손을 잡았다.

풀베기전투의 불길은 파수반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유영태동무가 수백톤의 풀베기목표를 내걸자 3반 선동원 김경률동무도 호응하여나섰다. 선동원들을 따라 모든 농장원들이 일떠섰다. 마을은 밤낮으로 들끓었다. 농장적으로 200여톤을 뎌 세대가 30여세대, 150여톤을 뎌 세대가 100여세대로 늘어났다. 풀베기전투는 이듬해에도 계속되었다.

조명숙동무는 1988년에는 850톤, 1989년에는 900여톤, 1990년에는 1,400톤의 자급비료를 생산하였다.

옛날부터 척박하기로 소문났던 신성땅은 자급비료무지속에 뒤덮였다. 땅은 주인들의 수고를 알아주기 시작했다. 새콤, 엄정꿀 운구봉 기슭에는 이땅이 생겨 처음보는 대풍이 들군했다. 사람들의 줄기찬 로동이 드디어 열매를 맺은것이였다. 조명숙-그는 맘보다도 실천행동으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선동원이였다.

## 《난 너때문에 결근 못하겠어》

분조원 리순애아주머니는 날과밤있고 일손이 결핍 30대의 녀인이다. 언제나 힘든 일의 앞장에서 분조원들을 도와주며 명랑하게 살고있는 그가 몇년전만 해도 이고장에 시집올것을 후회하며 금야읍으로 나가지 못해 안달아하던 아련하고 의지약한 녀성이였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는가.

리순애아주머니가 갓 시집온 어느해 강냉이밭 김매기때였다. 해종일 메마른 서덜밭에서 먼지를 들쓰며 김을 뎌 리순애는 작업이 끝나자 그만 풀썩 발머리에 주저앉았다. 농사일에 습관되지 않아서 힘은 곱으로 빼고도 제일 뒤꼬리에서 마지못해 따라가던 그였다. 분조원들은 떠들썩하며 산비탈을 내려갔으나 그는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강냉이밭머리에 앉아 일어설념을 하지 않았다. 고향의 선광장마음이 그리워졌다. 가만히 앉아서 집채같은 마광기를 운전하던 처녀시절이 못건디게 눈앞에 떠올랐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을의 전공으로 일하는 남편을 구슬려 금야읍에라도 나가 살고싶었다. 그 생각에 어찌나 움찔했는지 리순애아주머니는 누군가 살금살금 자기 등뒤로 다가오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사위는 땅거미가 깃들어 어둑어둑해왔다.

《아이참, 여태껏 여기 있었군요...》

서글서글한 목소리... 선동원 조명숙동무의 목소리였다. 리순애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선동원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본것 같았던 것이다.

《모두들 시내가에서 몸을 씻으며 웃고 떠드는 데 순애아주머니가 없더군요. 자 어서 가요.》

조명숙동무는 그의 손목을 잡아 이끌었다.

리순애는 그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그가 이끄는대로 걸음을 옮기던 순애는 시내가 옆의 큰길에 나서서야 발머리에 호미를 두고 온것을 생각하였다. 다시 돌아서자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선동원도 눈치채지 못한것 같았다. 호미를 두고 온것을 알면 그가 비탈밭으로 달려갈것이 뻔했다. 그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책에 잠겨 타박타박 걸음을 옮겨놓던 그는 어떻게 자기 집 대문앞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비로소 그는 조명숙동무가 자기를 위해 우정 고개 하나를 더 넘어왔다는것을 깨달았다.

《선동원동무, 미안해요. 저 함께 들어가 저녁이나 해먹고 가요...》

조명숙동무는 웃으면서 가볍게 사양했다.

《저녁 동자질이나 도왔으면 좋겠는데 우린 또 모임이 있어요. 잘 있어요...》

조명숙동무는 종종걸음으로 어둠속에 사라졌다.

리순애는 한참이나 그의 뒤를 바라보며 허를 갔다. 어데서 저런 힘이 샘솟는지 몰랐다. 그는 도대체 피곤을 모르는 처녀 같았다. 아마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군의 혈통이 그를 차돌멩이같은 단단한 처녀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온몸이 찌뻣한게 꿈쩍하기도 싫었다.

《어디 아픈 모양이구만. 몸을 봐가며 일할게지...》

남편 양상해가 군말없이 일어나 아침을 지었다.

《움쩍말구 한 사날 폭 쉬구려...》

남편은 이불깃까지 여며주며 문밖을 나섰다. 저녁무렵에 조명숙동무가 찾아왔다. 리순애는 자는척하였다. 그는 머리말에 감기약이며 누르끼레한 물약 같은것을 내려놓더니 부엌으로 내려갔다.

푹...푹 부엌에서 나무가지를 꺾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조명숙동무가 불을 때기 시작한것이였다. 이윽고 밥가마가 끓고 아래목이 따끈따끈해왔다. 리순애는 더는 누워있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다.

《명숙동무, 그만뒤요. 이제 세대주가 오면...》

그는 뒤말을 잊지 못했다. 조명숙동무는 방안을 후끈하게 달궂놓더니 식전에 약을 먹어야 한다면 약봉지를 꺼내들었다.

《이제 약을 먹고 땀을 폭 내면 거뽀할거예요.》

리순애는 가슴이 뭉클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조명숙동무가 돌아간후 밖으로 나가려던 그는 토방우에 놓여있는 자기의 호미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호미는 흙 한점없이 깨끗이 씻어져있었다.

이튿날 점심시간에도 또 조명숙동무가 찾아왔다.

집에서 할머니가 담근 메주장이며 쑥갓이며 부루 등을 한소랭이나 가져왔다. 부루쌈을 좋아하는 자기의 식성을 그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리순애아주머니는 더 누워있을수 없었다. 그다음날 아침 그는 일터로 나갔다.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 선동원을 더 고생시키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조명숙동무는 그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났어요?...》

리순애는 그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한 이튿새에 퍼그나 그와 가까워진듯이 느껴졌던것이다. 그는 짐짓 두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했다.

다.

《난 너때문에 결근도 못하겠어!...》

조명숙동무는 허리를 싸쥐고 깔깔거렸다.

며칠후 쉬는날이였다. 리순애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있는데 《아주머니 있어요?》 하며 조명숙동무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가슴에 한쌍의 토끼를 안고있었다. 솜은 감장토끼이고 암놈은 재빛이었는데 둘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랐다.

《순애아주머니, 토끼를 한번 길러보세요. 오물 오물 풀만 먹고사는게 참 재미있어요.》

《글쎄 학교시절에 좀 길러봤는데...》

《아저씨보구 토끼우리나 크게 만들어달래요.》

그날중으로 멋진 토끼우리가 만들어졌다. 조명숙동무는 하루가 멀다하게 토끼우리에 들려서는 먹이풀도 넣어주고 청소도 해주곤하였다. 한쌍의 토끼는 눈에 띄이게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해 가을 암토끼는 첫 새끼나이를 하였다. 앞가슴에 흰점이 다문다문 박힌 두마리의 얼룩토끼와 세마리의 재빛토끼를 낳았다. 리순애는 신기하여 손벽을 치며 환성을 터치였다.

《아유, 이 흰점박이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가!》

뒤에서 웃음을 짓고 서있던 남편이 한마디했다.

《할머니나 증조할아버지때에 그런 놈들이 있었겠지...》

《아이참, 요것들한테도 뭐 할머니가 있나요?》

《그럼 뭐, 하늘중천에서 홀렁 떨어졌게... 다 퍼줄이 있는거요.》

《호호...》

두사람은 오랜만에 즐겁게 웃었다. 이듬해에 리순애아주머니는 30여마리의 토끼를 길러냈다. 조명숙동무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다음해에는 100마리의 토끼를 길러내자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리순애는 선동원이 자기를 이고장에 정이 붙게 하느라 얼마나 애쓰고있는가를 다는 모르고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이였다. 분조장은 리순애아주머니에게 박영실을 비롯한 세명의 갓 시집온 젊은 녀인들을 데리고 새골포전에 가서 영양단지를 찍을 과업을 주었다. 그들이 작업준비를 갖추고 떠나려는데 조명숙동무가 리순애아주머니를 불러세웠다. 그는 품속에서 자그마한 선동자료를 하나 꺼내주면서 《휴식참에 한번 해봐요.》 하고 말했다. 리순애는 두눈을 크게 뜨며 손을 내저었다.

《아유, 나같은게 어떻게 선동을 다 해요...》

그러자 조명숙동무는 새물새물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주머니는 이미 실천적모범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걸요. 그 경험담을 한번 재미나게 아주머니

들한테 이야기 해봐요. ...》

그가 준 선동자료의 제목은 《모든 가정들에서 집짐승을 많이 길러 무축농가를 없애자》였다. 이 무렵 조명숙동무는 당의 방침을 받들고 무축농가를 없애기 위하여 집에서 내온 새끼돼지들을 분조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오리, 계사니들도 시험적으로 길러보고있었다.

선동원의 말을 들은 리순애는 신심이 생기는것을 느꼈다. 자기한테 여태껏 진정을 쏟아부어온 뜨거운 마음이 후덥게 상기되었던것이다. 그는 조명숙동무에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러다 나도 선동원이 되는게 안야요?》

《호호. 선동원이 되는게 뭐 나빠요. 우린 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선동원들이 돼야해요. ...》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걱정어린 어조로 덧붙였다.

《지금 박영실아주머니랑 민동무랑 분조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들떠있는데 잘 도와주지요.》

리순애는 눈곱이 뜨거워울랐다. 얼마전에는 민동무의 결혼식에 뜻깊은 기념품을 안고가기도 하고 집짐승을 수매한 돈으로 박영실아주머니의 시동생의 옷가지까지 마련해다준 조명숙동무였던것이다. 리순애는 속으로 굳게 결심하였다.

(나도 우리 선동원처럼 살리라. 분조농사를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치리라. ...)

그후 리순애아주머니는 해마다 100여마리의 토끼를 길러내어 집집에 새끼토끼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국가에 많은 털가죽을 수매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분조야말로 생활의 참된 보금자리임을 심장으로 터득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싶어 못견뎌답니다! ... 명숙동문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는 우리 선동원이랍니다.》

×

세월은 흘러 조명숙동무도 애기어머니가 되었다.

금야의 룡산땅에 고향을 둔 제대군인 김봉구동무와 결혼했던것이다. 한 선동원처녀의 고향땅에 대한 사랑과 리상을 함께 꽃피워주고싶어 신성리를 찾아온 청년이었다. 가정을 가진 조명숙동무는 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해

마다 분조포전에 내는 풀퇴비는 줄어들줄 몰랐고 정보당수확고는 나날이 높아만 갔다.

꿈에도 잊지 못할 1990년 3월 23일, 조명숙동무는 또다시 《전국 선동원 및 5호담당선전원 열성자회의》에 참가하였다.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그는 토론까지 하였다. 그는 온 나라가 아는 선동원이되었다.

5년전 마음속깊이 다졌던 뜨거운 맹세가 현실로 꽃피난것이였다. 영광의 시각은 그의 앞에 다가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앞줄 가운데에 서있는 조명숙동무에게로 천천히 다가오시였다. 조명숙동무는 삼가 옷깃을 여미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온몸을 사로잡는 크나큰 걱정으로 목이 짝 메였다.

《어버이수령님, 농사에 대해선 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평범한 농촌선동원이 울리는 심장의 맹세에서 힘을 얻으신듯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고맙소!》 하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조명숙동무의 랑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흘렀다. 빨간 리봉을 팔랑거리며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하는 모내기전투장에 나가 농사를 잘 지어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노래를 부르던 유치원시절부터 시를 읊고 선동문을 랑송하던 중학교시기를 거쳐 12년간의 선동원생활의 그 어느 한 순간에도 잊은적 없던 절절한 그소원! 단발머리 소녀의 꿈으로부터 그 소원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으며 삶의 목표로, 지향으로, 고귀한 리상으로 자라나 오늘은 참된 열매를 맺게된것이 아닌가!

조명숙동무의 가슴은 새로운 각오와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불타올랐다.

(이 한몸 거름이 되어 밭이랑에서 굳어질지언정 맹세는 헛되지 않으리라!)

고향마을은 충성의 맹세를 안고 돌아오는 조명숙동무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조명숙동무가 온다!》

《우리 선동원동무가 온다!》

랭상모씨뿌리기를 다그치던 분조원들이 여기서 행길로 달려나가며 그를 반기였다. 조명숙동무는 그모두를 한품에 안을듯 두팔을 벌리며 마주 달려갔다. 이 정다운 사람들! 근면한 고향사람들! 이들의 힘을 불러일으키면 세상에 못해낼일이 무엇이랴. 그의 마음속에는 벌써 황금가을이 물결치고있었다.

## 모래불

김창현

세월이 지나는데 서촌의 간석지제방너머에는 다시 모래불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바다기슭에 흰띠를 두르며 솟아나는 이 모래불을 백사장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모래불은 아직은 감탕에 게발리지 않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었다.

바로 그 은빛모래불로 두 사나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철색의 얼굴에 홀가분한 배낭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은 칠순에 가까웠고 그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느라 한발 뒤에서 크게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중년의 사나이였다. 이를테면 그들은 차림새도 걸음새도 나이도 달랐다.

《모처럼 만나기는 했어도 나는 오늘 다녀올데가 많네. 오전에는 모래불을 돌아보며 몇군데 개량조개를 심을 자리를 확정해야 하구 오후쯤은 바람새를 봐서 알섬에 나가 굴이며 섭조개줄도 뜯어 옮겨놓아야겠고, 아마 거기서 밤을 새게 될지도 모르겠네.》

아바이는 모래불처럼 희석희석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년사나이를 은근히 쫓으려들었다. 그러건말건 중년사나이는 얼굴에 웃음까지 지으며 아바이의 뒤를 따르기만 했다.

바로 어제밤에 있는 일이었다. 무남도통자구 상업관리소 소장 오철흠은 요즘 바쁜 김장철때여서 밤낮없이 나다니다가 며칠만에 집에 돌아왔다.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머니는 무엇에 크게 상심한 빛을 띄우고 손자들을 늙힌결에 우두커니 방바닥을 짚고 앉아있었다. 아들을 기다린듯한 어머니는 철흠이 들어서자바람으로 문기부터 시작하였다.

《서촌의 회만아저씨에게 다녀왔느냐?》

《아직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뻔히 지켜보는 어머니의 주름잡힌 눈가에는 큰 노여움이 실려있다.

《너를 도와준 아버지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매정스럽단 말이냐. 백리나 천리라도 그렇지!》

어머니는 더욱 격해하였다.

오철흠이 군대에서 후방부문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되어 이곳 상업관리소소장으로 된것은 불과 두해전의 일이다.

주민들은 제고장에 돌아와 고향사람들을 위해서 극성스레 일하고있는 오철흠을 모두 존경하였다.

게다가 사람들은 한뼘 이고장에서 상업일군을

했던 그의 아버지를 잊지 못하여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는 평판까지 덧붙여 어머니의 마음을 한결 기쁘게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그가 올해 김장철에 이르러 큰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사람들앞에 비난과 봉변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것이다. 어떤 선행자가 말하듯이 상업일군의 직분이란 걸핏하면 주민들에게 귀먹은 욕쯤은 듣게 마련이고 그것을 한귀로 흘리기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럴만한것도 아니었다.

자고이래 무남사람들은 겨울김장철이 되면 서촌의 유명한 갯가지 젓갈품을 가지고 김장속을 준비하느라 칼도마소리를 높여왔다. 김장속에 서촌 조개젓갈품이 아니면 김장맛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서촌조개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유명한 조개산지였던 서촌의 넓은 앞바다가 간석지로 둘러막히었다. 그러니 뜰앞에 있던 서촌의 바다가 깊은 바다로 되어 멀리 나갔으니 누구도 상점에 찾아와 젓갈품을 내라고 조를 사람도 없게 되었다.

그래도 오철흠은 한두해동안 자동차를 가지고 멀리 광양까지 나가 조개젓갈품을 실어다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한창 바쁜 김장철에 수송도 문제려니와 여러가지로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오철흠은 올해 김장철공급명세에서 조개젓갈품목록은 아예 그어던지고말았다. 그의 타산으로는 김장용속감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물동량도 큰것이 아닌것만큼 동해바다의 겨울철 물고기를 해결하여 다른 집을 실을 때 방통을 달고오자는것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해는 동해바다의 겨울철물고기가 늦게 들었다. 남새며 조미료가 다 들어오고 사람들은 김치독을 가지고 있는데 물고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속에서 의견이 비발쳤다. 얼굴이 흙빛으로 된 오철흠은 사흘낮사흘밤을 전화통을 붙들고 앉아있었다. 궁여지책으로 그 어떤 비상한 미봉책을 쓰자고 해도 때는 이미 기운것이였다.

그러한 때 어데선가 흠잡을데 없는 젓갈품이 무남으로 실려들어왔다. 이것은 실로 낭떠러지기까지 밀려나갔다가 구원의 손길을 만난것과 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것은 한때 서촌의 간석지제방을 막는데 큰일을 하였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그곳 수산협동조합에서 바다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있는 라희만아바이가 보낸것이였다.

《글쎄 회만아바이가 아니었다면 어쩔번했느냐.

아바이가 남모르게 큰 수고를 했다. 그건 아바이가 바다를 지켜준덕이다. 아무리 바다가 멀리 나갔다가하더라도 서촌과는 큰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제 우물을 두고 남의 집에 가서 드레박을 찾는척이 됐나보다.»

이렇게 되어 오철흙은 이튿날새벽에 길을 떠나게 되었고 서촌의 바다길에서 희만아바이와 마주치게 되었던것이다.

두사람은 말없이 도래굽이를 돌아섰다. 거기에는 아직 잔교라기보다 바다에 사다리를 내질러놓은듯한 나무가 있었다. 그래도 거기에는 몇개의 안강망선과 쪽배들이 매여있었다.

오철흙이 거기에 오르자 자기가 넘어온 고개길이며 낮익은 산발들이 한눈에 확 안겨왔다. 아직은 실어들이지 않은 누런 벼단들이 개간된 논벌에 무둑무둑 수없이 널려있었다. 간석지제방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황금의 벌이 누워있었고 그너머에는 끝간데없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있었다.

희만아바이가 젊은이들처럼 쪽배에 훌쩍 뛰어내렸다. 오철흙이도 뒤따라 뛰어내렸다. 매생이같은 배가 기우뚱거렸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아바이는 긴 작살같은것으로 배를 떠밀고나서 노를 잡았다. 노를 물밑에 깊숙이 박고 확확 배머리를 돌려잡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

《노를 저에게 주십시오.》

오철흙은 아바이의 손에서 노를 빼앗으려 들었지만 아바이의 손탁은 여간만 세지 않았다.

《이건 내가 얼마전에 하나 장만한거네. 모래불을 장참 걸어다니자니 발굽도 시고 이젠 힘이 부쳐. 이젠 바다기슭으로 스적스적 노를 배기며 다니니 얼마나 험하고 신선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내 자가용이라나!》

아바이는 자랑스럽게 꺾꺾 웃었다. 아직도 근력이 좋은 아바이는 두다리를 뻗고 팔쪽에 힘을 주었다. 배는 앞머리를 휘저으며 기술을 따라 미끄러져나갔다. 오랜만에 배우에 올라보는 오철흙의 마음은 상쾌하였다. 그는 바다물에 손을 잠가보기도 하였다. 마가울의 싸늘한 날씨에 비해서 바다물은 뜨뜻하였다. 그는 손끝을 입에 가져갔다. 역시 바다물은 강물처럼 습습한것이 아니라 짹짹하였다.

오철흙은 무릎에 놓은 가방을 이리저리 옮겨잡으며 바재이는듯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까 길에서 변변히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일할줄 모르는 저를 도와 큰일을 맡아주셨습니다. 여러해 서촌의 바다기슭에서 떠나지않고 모래불에 숨은 동조개 한알이라도 더 캐내어 무남사람들에게 보내주려고 애써오는 아바이의 진정을 두손모아 뜨겁게 받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오철흙의 진정에 넘친 말이었다.

《내 이제 이 바다가에서 지축거리며 무슨 큰일을 치라만 그래두 내가 있는이상 무남에 조개젓갈같은것이야 왜 떨구겠나. 사실말이지 내가 이 바다에 조개를 떠옮긴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되지나 않는가 하여 여러해 속을 태워왔는데 이렇게 간석지제방너머에 또 모래불이 생겨나고 단물이 흘러드니 갖가지 조개류가 번식하기 시작했네.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얼마간 건진것을 가지고 젓갈을 담그어본것인데 제대로 맛이 들었는지 모르겠네.》

아바이는 수염발이 허연 턱을 흠치며 흠족해하였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젓갈을 보내주어 무엇이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사람 너무 그러지 말게. 난 자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만한 사람이 못돼.》

《우리 상업관리소에서는 아바이가 보내준 조개값을 후히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오철흙의 입에서 이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바이의 얼굴은 대변에 이그러졌다. 이마에 난 그의 주름살이 더 깊이 패이며 오철흙을 뻔히 지켜보았다.

《자네가 그 값을 돈으로 치를수 있을까!》

아직도 두눈에 정기가 빛나는 아바이의 얼굴은 갑자기 엄엄한 표정으로 변하였다. 노를 세우고 담배불을 붙여든 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언제건 자네를 불러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것을 후날로 미루기로 했네. 하지만 자네와 이렇게 맞다들고보니 별수가 없구만. 아마도 서촌의 앞바다에 생긴 조개이야기를 하자면 멀리 세월을 거슬러올라야 할것 같네.》

아바이는 노를 세웠다. 불시에 방향을 잃은 배는 잔물결에 오르내리며 기슭으로 다가갔다. 희만아바이의 이야기가 멀리서 물려오는 민물소리처럼 은은히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해방된 무남의 거리에는 재생의 숨결이 불어왔네. 건국의 마치고리가 요란하던 바다기슭에는 밤낮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선소의 높은 상가대우에서는 용접광이 불탔네.》

모두가 해방의 감격으로 들쭉들쭉하는 때에 나도 서촌의 바다구석에만 처박혀있을수 없었네.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칠것처럼 무작정 무남으로 달려나왔으나 맞춤형 일자리도 없었고 당장 학교같은데를 붙자고 해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네.

마침 이무렵 무남에는 몇개의 소비조합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쓸 사람들을 물색하였네. 나는 소비조합이라는데를 찾아갔지. 거기서는 대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학교의 급사노릇도 했고 주산알도 웬간히 튀길줄도 안다는 나의 소경력을 듣고는 나를 석산소비조합이라는데로 배치하더군. 예라, 그래도 도회지에 꼭 박혀있으면 무슨 수가

나겠지 하고 석산소비조합상점이라고 쓴 간판을 찾아갔네. 나는 명색이 상점이라고 하기에 내가 보아온 백화점같은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갖가지 상품이 진렬장에 놓여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상점의 진렬장은 반반하였네. 행랭그런 상점안을 휘둘러보면 빈 독가지뿐이었고 매장에는 소금이 아니면 된장, 무오가리같은 등숙들이 놓여있더군.

나는 애당초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일할수 없었네. 그때 거기에는 시소비조합에서 한 일꾼이나와 도와주고있었는데 나는 그에게 한번 모르고 잘못 든 길이니 다른데로 보내달라고 졸라댔지. 그때마다 무던했던 그 사람은 나같은것이라도 농칠가봐서인지 이제 도상업일꾼양성소를 나온 오성훈이라는 사람이 배치받아오는데 책임자가 온 다음에 의논해보자고 하더군.

그러던 어느날 《실사증》이라는 표쪽이 며칠째 매달려있는 상점출입문을 누가 자꾸만 두드려댔다. 귀먹은체하고 사무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나는 절로 짜증이 나더군. 그래서 나는 《뭐요!》 하고 소리치며 사무실에서 뛰쳐나갔네. 출입문밖에는 허름한 옷차림에 물푸레자루감을 한짐 짊어진 30안팎의 다부지게 생긴 청년 하나가 와 서있더군. 《여긴 장마당이 아니요. 그런건 사지 않소.》 나는 출입문안에서 손을 내저었지. 그러자 청년은 먼지가 부엌게 오른 유리창에다 오성훈이라는 제 이름자를 쓰더군. 그바람에 나는 허겁지겁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나가 <기다렸습니다. 뭘 이런걸 무겁게 지고왔습니까?> 하고 갑자기 상냥한 사람이 되어 그의 어깨에서 짐을 받아내렸네, 그는 자루감이 귀한 고장이여서 한 짐 사지고 떠나긴 했으나 봄비는 기차칸에서 뱃뻗이 서오느라 땀방울이나 흘렸다면서 그것을 사무실에까지 끌어들이더군.

나는 그동안 석산조합이 생겨 겪은 갖가지 애로를 물쏘아놓듯하였네. 그는 우는소리에 고개만 끄덕이며 내 얼굴만 물끄러미 뜯어보더군. 나도 그를 가만히 눈여겨보니 그의 얼굴이 전혀 생면부지 같지 않아.

이런 때 뒤길로난 창문을 두드리는 손들이 보였네. 창문을 열어젖혀보니 밤교대로 나가는 사람들이었네.

<소금 몇되 팔구 실사, 된장 몇되 팔구 실사, 어데 소비조합사람들과 이야기나 해보겠소. 그래 아무리 소금발을 타고 앉아있는 고장이로서니 서촌의 앞바다와 고개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에게 소금국만 먹여야야 되겠소.>

<서촌에 조개젓갈같은것은 흔치 못하더라도 새우며 진땀이것 같은것은 사다가 팔수도 있잖소.>

<우리가 배 한척을 만들어 물위에 띄우는동안 여기서는 너무도 오래 낮잠을 자고있는게 아니요.>

좁은 창문으로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이 비발쳐

들어왔네. 이것은 분명 소비조합이 당하는 모욕이었고 수치가 아닐수 없었네. 난 오성훈의 앞에 이런 꼴을 보이게 된것이 여간만 난처하지 않더군. 그래서 나는 공손히 그들에게 용서를 빌듯 말했다.

<손님네들, 좀 조용조용히! 나는 여기서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야 우리 책임자 동지가 왔습시다.>

그러자 바깥의 사람들은 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 책임자라는 <동지>가 누구냐고 하였네. 그러자 오성훈은 웃으며 창밖으로 머리를 쭉 내밀더군.

<아 자네가 안보인다고 했더니 이렇게 뻤군. 우리 함께 왜놈의 채찍밑에서 일하던 때를 잊지 말자구!>, <자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지켜볼만도 하지.>

창밖의 사람들은 오성훈을 보자 저마다 한마디씩 남기고는 제풀에 돌아갔네. 오성훈의 마음은 어수선했던 모양일세. 아직도 소비조합은 간판만 크게 내걸었지 제구실을 못하고있었으니 말일세. 그는 창밖에서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소비조합창문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는것만 갈아서인지 한참동안 창턱에서 물러서지 못하더군.

그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소비조합의 전망은 암담했고 새 사람이 온다고 해도 용빼는 재간이 없다고 보았네. 어데서 무엇을 주겠다는데도 없었고 사울것도 없었으며 그나마 새로 운영되기시작하는 생산합작사 같은것도 아직은 씨원치 못했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이런 봉변을 더당하기전에 내뺄는것이 상책이라고만 생각했네. 아직 소학물림의 애송이나 다름없던 나는 저로서는 남다른 포부가 있었던것만큼 벌써부터 이런데서 손에 된장찌끼나 게바르며 묻혀있을수 없었네. 그러니 나에게 무슨 체면같은것을 돌볼새가 있었겠나. 그래서 오성훈이에게 실토정을 하며 보내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하였네. 네 나이보다 한 십년은 년장자였던 그는 내 의견을 중등에서 꺾지 않고 죄다 듣고나서 소란하던 창문을 닫으며 말했다.

<동무는 방금 창밖의 일을 보지 못했소. 내가 동무의 소원이라면 어데든 못보내주겠나. 하지만 아직은 우리 함께 손잡고 일해보자구.>

나는 아무 소득도 없이 그의 얼굴을 뻗히 지켜보는 순간 그제야 문득 어느해 여름날 서촌의 고개밑에서 그에게 도움을 받던 일이 생각나더군. 그때 소학교를 졸업한 나는 네 나이포래들은 소금을 허열게 뒤집어쓰고 <염부군>이 되지 않으면 바다에서 조개주이나 하였는데 나는 무슨 행운을 만났던지 그 학교의 급사로 떨어졌네. 무슨 일에서나 양순하고 고분고분했던 나를 쓸모있게 보았던 모양이야. 나는 그자리를 큰 벼슬자리나 얻은 것처럼 생각했지. 웬간히 포부도 있고 야심이 만

만했던 나는 거기서 상급학교의 길을 닦아볼수도 있었고 잘되면 몇해후 학교서무자리라도 하나 얻을수 있다는 희망이였네.

그해 나는 남다른 부지런을 피우며 서툰채간에 남의 소를 얻어끌고 무남에 나와 겨울에 쓸 화목을 실어들었네. 어느 하루 고개길을 오르는데 소는 뻔뻔에 더위를 먹었던지 애송이 주인을 알아보았던지 멩에를 벗어던지며 주저앉기만 했네. 갈길이 바쁘고 약이 오른 나는 고삐를 코뚜레에 껴여 우차바퀴에 매놓고는 소를 두들겨채기 시작했네. 허나 소는 눈알만 데룩거리며 꿈쩍도 않더군. 그때 고개길에 오르던 남모를 청년이 다가서며 내손에서 몽둥이를 빼앗아던졌네. <소를 그렇게 치기만 해서야 언제 질을 들여가지고 가겠나.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다루기탓이야!> 그 청년은 우차바퀴에서 풀려나온 소가 받으며 들었지만 그놈을 끌고나가 풀도 뜯기고 개울에 내려가 물도 먹이고 서늘한 그늘밑에서 쉬우고 난 다음 멩에를 메워주더군. 나는 그때 그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남기지 못하고 제갈길을 가고말았네. 생각하여보니 바로 그 청년이였어. 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제혼자 웃었지. 오성훈이도 문득 그런 생각이 났던지 나를 마주보며 벅긋이 웃더군. <잘못 걸려들었군!> 나는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벌떡났네. 그가 나를 그 황소처럼 열려서 끌고 다닐것만 같더라 말일세.

생각하면 아득한 옛말같지. 나는 바로 자네 아버지 오성훈이를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

그후 나라의 시책으로 소비조합의 형편이 훨씬 달라지긴 했어도 오성훈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네. 자체로 무슨 큰일을 하여 나라에 보탬을 주자고 해도 어디서 밑천을 잡을데가 없었네.

결국 오성훈은 무슨 큰 일판을 벌릴 작정으로 나를 파도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여기 한적한 바다가로 끌고나오고야 말았네. 그때 여기는 소금밭에 둘러싸여 동쪽밀에 집들이 다문다문 널려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나와 몇해전 <염부군>들이 모여살던 초막 하나를 얻었네. 우리는 여기서 덕장을 높이 올려매고 조기, 칼치며 전어 등속들을 사서 말리였고 독가지들에는 새우며 건뎡이것을 담그기 시작했네. 그런데 그때 오성훈은 서촌에 유명했던 조개젓을 많이 담그려고 했지만 그럴만한원천을 얻지 못하여 안달아하더군.

일제말기에 이르러 공장의 폐설물과 기름찌기가 이 기슭으로 마구 흘러들었네. 그바람에 모래불에 묻혀살던 그 술한 조개류들이 숨구멍이 막혀 죽어버렸네. 이제 파도에 씻기여 모래불이 때를 벗고 다시 조개가 흘러들자면 아직 여러해를 기다려야했네. 그리하여 여기 사람들은 그 몹쓸 세상이 이 서촌의 조개밭까지 말리었다고 탄식하

면서 이 앞바다에 어서 빨리 조개가 들날이 오기를 기원하였네. 하지만 오성훈은 이 앞바다에 흔치 않은 조개한알이라도 더 주어 젓을 담그어보려고 사람들을 동원하여가지고 모래불에 나가 온종일 살았네.

그때 동쪽에 나앉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갈피를 잡을수 없었네. 해방의 만세바람에 무슨 큰일을 칠것처럼 무남으로 달려나갔던 녀석이 소비조합이라는데서 오성훈의 손탁에 잡히여 제고장의 동쪽밀에 와 덕장의 파리를 날리고 앉아있었으니 그 꼴이 뭐겠나. 나만이 아닐세. 온 여름 얼굴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밀물에 쫓기여 뛰어다니는 오성훈을 볼 때 그의 몰골 역시 나만 못지 않게 가궁해보이더군.

그때도 이 바다는 한없이 설레였고 동쪽의 언덕받이에는 고운 꽃들이 피어있었네. 나는 긴 한숨끝에 축대를 쓰거운줄도 모르고 질근질근 씹으며 생각하였네.

이 앞바다에 조개같은것이 뭐람! 그것이 이 앞바다에 언제부터 생겼기에 이것이 전날부터 이곳 사람들의 등골을 죄다 빼간단말이야. 나는 한때 이 동쪽밀을 걸으며 허망하기 그지없으나 곱씹던 생각이 다시 되살아나더군. 어찌하여 여기 사람들은 저 좁은 소돌목을 막아 이 드넓은 땅을 얻으려하지 않을가! 그러면 이고장사람은 이 앞바다의 모래불에 숨은 조개며 맛, 물우에 뛰는 새우며 물밑을 기는 꽃게 같은것이 없이도 잘 살수 있지 않을가! 무엇때문에 사람들은 한뼘 저 뜨거운 폐약벌에 등매기를 태우며 허리가 굽도록 저 모래불만 헤집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눈앞에는 이 앞바다가 일망무제한 옥토별로 변하여 누런 황금이삭을 싣고 설레이는것만 같았네.

사람의 욕망이란 끝이 없어 한자리에 주저앉아 앉은방아를 찢기싫어하는 오성훈은 조합의 재산을 얼마간 몽그리자 이번에는 저 광량에까지 나가 조개를 실어들일 잡도리를 하더군. 벌써 한두행보에 조합재산이 늘고 그것으로 상점의 진렬장이 환하도록 장식하였네. 이제는 그 누가 조합의 폐창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고 수도가에 모였던 아낙네들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자네를 <소비조합집아들>이라고 부르며 안아주기까지 하였네. 성수가 난 오성훈은 이듬해에 와서는 봄철부터 서둘러대었네. 결불에 묻어다니는 나만이 죽도록 고생을 사서 하는판이지. 한여름 조개가 마니를 지고나면 의복이 께창났고 조개가마니에서 흘러내리는 잔물에 등대기며 종다리가 터갈라졌네.

나는 더는 참을수가 없었어. 오성훈이에게 내놓고 말했지. 뭐 제 돈을 버는것도 아닌데 너무 극성을 부리는게 아닌가고... 그리고 올가을에는 학교로 꼭 보내달라고 더욱 보채대었네. 그럴 때마다 오성훈은 그러마 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터



갈라진내 종다리에 약간 발라주었어. 그러면서 그는 내가 애써 다니던 야간고급중학교에 착실히 다니라고 이르기도 하였고 도에 하나밖에 없던 수산전문학교에 보낼 의향이었던지 거길 한두번 다녀오더군. 나는 차츰 그의 진정이 뜨겁게 느껴지자 그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났어.

그해 우리는 여름이 잡히자 배를 가지고 광랑 쪽에 나가 조개를 나들이기 시작했네. 어느 하루는 조개가마니를 두 배에 가득 나누어싣고 안강 망선에 끌리어 돌섬을 에돌고있었는데 갑자기 물결이 사나와지며 파도가 세차게 일었네. 하마트면 두 배가돌섬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날판이었는데 그래도 끝배가 용을 쓰는바람에 천만다행으로 그 위험한 고비는 넘어섰네.

차츰 바람형세가 더욱 세차졌네. 꼭 무슨 일을 낼것처럼 하늘이 시킴해오며 밀물까지 덮쳐들더군. 끝배가 바줄을 팽팽히 헤여가지고 발버둥치듯 통탕거리며 간신히 끌었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조마조마했네. 바다의 횡포는 무서운것일세. 서촌의 소돌목 가까이에서 이르러 그만 활시위처럼 팽팽히 당겨졌던 바줄이 꼬리를 치며 튕겨져나갔네. 홀몸이 된 기관선은 앞뒤로 돌아치며 바줄을 던져댔지만 높이 오르내리는 파도우에서 그것을 받아낼 재간이 없더군.

<희만이 노를 잡으라구, 서촌으로!> 앞배에탄 오성훈이 내지르는 소리가 가망에 들렸네. 바다가에서 자라 노쯤은 배길줄 알았던 나는 노를 뽑아들었네. 배전에서 부서지는 물갈기가 뺨을 때렸고 파도가 덮치며 등허리를 쳤네.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내가 과연 무슨 힘으로 그 배를 밀고 소돌목여귀에까지 왔었는지 알수 없네.

무겁게 짐이 실린 배는 더는 몸부림치다 못하여 뒤집히고말았네. 뒤이어 오성훈이 앞서 가던 배도 내모양이 되고말았네. 나는 뒤집혔다 솟아오른 배잔등에 기어올라 오성훈이를 목이 갈리도록 불렀지. 그는 파도에 휘말려들었다가는 다시 머리를 솟구쳐대며 나에게로 헤엄쳐오더군. 울상이 된 나는 그의 팔을 이끌어잡으며 부르짖었네.

<조합재산을 몽땅 바다속에 처넣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합재산을 제 앞바다에다 처넣었으니 다행이지!>

오성훈은 무슨 장한 일이라도 하고난 사람처럼 별쑥히 웃기까지 하였네. 알수 없는 일이더군.

바로 그해 전쟁이 일어났네. 자네아버지와 나는 전선으로 떠났지. 전쟁이 끝나자 나는 곧바로 학교로 갈가하다가 먼저 무남으로 달려왔네. 풍문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서촌의 앞바다에 전예없이 많은 조개가 한벌 쪽 깔렸다는거야.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전에 석소비조합책임자가 뿌린 것이라고 하더군. 나는 그런 소문까지 듣고보니 한때 나를 이끌어준 자네 아버지가 더욱 보고싶

어지더란말일세.

그때 자네 아버지는 군관복에 견장만 떼고 벌써 시상업관리소 부소장이 되어 일을 시작했더군. 그는 전쟁판에서 몸성히 돌아온 나를 보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는 전날처럼 자기와 함께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고 은근히 내비치더군. 나는 그전날 그의 황소다루듯하는 솜씨에 다시 걸려들가봐 대학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했네. 했더니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자기가 전날에 나에게 다짐한 약속을 잊을번했다면서 몹시 미안해했네. 허참, 생활이란...》

두사람은 저벅저벅 바다물을 밟으며 물에 내리었다. 해가 높이 오르자 바다가의 싸늘하던 뎡기가 가시여 지고 모래불은 따뜻해지었다.

라희만아바이는 배낭을 끄르고 낫을 꺼내들더니 동쪽에서 시들어넘어진 풀대며 삭정이를 한아름걸어안고왔다.

《내가 이 모래불에서 자네에게 맛을 보일게 있다면 조개구이뿐일세. 모래불에서 조개나 파가지고오게.》

오철흠은 모래불을 헤집기 시작하였다. 조개는 커녕 아무것도 나지지 않았다.

《더 깊이, 그것들도 겨울을 나야했기에 깊숙이 박혀있네.》

희만아바이가 덩불에 불을 놓으며 소리쳤다. 오철흠은 팔을 걸어붙이고 깊숙이 모래불을 헤치었다. 참말로 그속에는 차돌같은 대합이며 개량조개가 한벌 쪽 깔려있었고 드문드문 길쭉한 맛이 기둥처럼 꽃혀있었다.

오철흠은 그것을 가방우에 한가득 담아가지고왔다. 아바이는 그것을 굵이 밀으로 기계 한줄로 썬 세우더니만 그우에 불을 덮었다. 한참 썩썩소리가 나더니 쫄쫄한 바다공기만 떠돌던 모래불우에 달작지근하고 고소한 냄새가 풍겨올랐다.

아바이는 장난삼아 낫으로 송곳처럼 뾰족하게 꼬챙이를 쥐고있었다. 그는 그 하나를 철흠의 손에 쥐여주며 옷불을 걸어내었다. 노랗게 익은 조개가 하나같이 입을 벌리고있었다. 뾰족한 꼬챙이로 속살을 꿰니 그것이 쭈쭈 빠져나왔다.

아바이는 그것을 꿰어들고 이제는 나이타에서 오는 부연 눈길로 먼바다를 내다보며 또다시 회억을 더듬는것이였다.

《세월은 또 멀리 흘렀네. 나는 남들보다 늦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간석지건설장들에서 일하다가 끝내는 여기 간석지건설사업소 부기사장으로 오게 되였네. 오랜 세월 마음속으로만 품어오던 나의 꿈은 오늘에야 비로소 현실로 되였고 이제야말로 내가 고향사람들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바칠때가 왔다고 생각했네.

간석지제방공사준비가 한창 진척되던 때 공사현장에서는 여러 관계부문 일꾼들과 시내 공장기업소일꾼들까지 모아놓고 협의회가 열렸네. 그

사람들속에 이제는 허리가 구부정해보이는 자네 아버지의 얼굴도 눈에 띄우더군. 나는 먼저 간석지건설의 총계획도를 걸어놓고 그것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였네. 소돌목의 량쪽산을 헐어 제방을 쌓는 방대한 공사, 장차 광랑반도와 잇닿을 제방길, 그밑에 펼쳐질 황금벌, 나의 설명은 신이 났고 나의 웅변은 또한 현란하였네.

그때 자네 아버지는 안경다리만 자주 매만지며 먼 바다만 내다보더군. 협의회가 끝날무렵 자네 아버지가 일어났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싶은것은 이 앞바다의 조개밭은 어찌되는겁니까?>

자네 아버지의 입에서 갑자기 조개소리가 나오자 모두가 하 웃었네. 그때 이 앞바다에 큰 벌이 생긴다고 춤추듯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조개같은 이야기는 동문서답같은 물음이 아닐수 없었어. 그제야 나는 자네 아버지와 내가 오랜 세월 키워온 꿈이 서로 달랐다는것을 알수 있었네.

세월은 이쩔수 없는거네. 그새 자네 아버지는 나이가 있어 그자리에 새 사람을 앉히고는 물러났지. 나는 그제야 자네 아버지가 발편잠을 자게 되었다고 생각했네.

그무렵 소돌목의 동쪽이 기본적으로 막히자 그 드넓던 모리불과 감탕밭이 삽시에 말라들기 시작하였네.

어느날 밤, 나는 급히 실어올 짐이 있어 프락포트를 몰고 모래불로 달렸네. 무연한 모래불이 온통 길인가싶게 거칠데가 없었네. 아직 바다물이 채 마르지 않은 골재를 넘으려고 속도를 죽이고 나가는데 난데없이 웬 사람 하나가 모래불에 동복을 들쓰고 누워있는것이 비쳐들더군. 전조등빛에 놀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프락포트의 앞을 막아섰네. 나는 급제동을 걸고 차에서 뛰어내렸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불빛앞에 서있는 사람은 자네 아버지였어.

《이 밤중에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이렇게 소리쳤지만 그는 통탕거리는 프락포트소리때문에 내소리를 듣지 못했던지 모래불에 세워놓은 몇개의 조개가마니를 가리키더군. 그것을 실어달라는 뜻이었네. 나는 자네 아버지를 도와 그것을 걷어 싣고 둘이 운전칸에 올랐네.

전조등의 한줄기 불빛만이 탐조등처럼 움직이며 모래불을 비치었네. 나는 그 불빛만을 내다보며 생각했네.

어쩌면 사람이 세월을 따라 이처럼 변할수 있단말인가. 모래불이 말라드는 때 한알의 조개를 버리기 아까와 그것을 캐며 녹진 모래불에서 밟

을 보내다니. 이젠 할일도 없으니 집에 조개가마나라도 실어들여 보렴을 하는것이 그리 나쁠것도 없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프락포트를 곧추 몰다가 서촌길쪽으로 차를 꺾었네. 그랬더니 조는듯 가만히 앉아있던 자네 아버지가 화닥닥 놀래며 어쩔셈으로 손을 뻗쳐 운전대를 짊 잡더군.

《어데루 가?! 차를 동쪽우에 올려세워주게.》

《어찌자는겁니까?》 나도 놀래며 큰소리가 나왔네. 그러자 자네 아버지는 내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소리쳤네.

《여보게, 조국의 지도가 넓어지고 여기에 새 땅이 생기는게 왜 나쁘겠나. 하지만 저 동쪽너머에 조개를 다시 심는 일도 그만못지 않은 일일세. 그래 이 모래불속에서 주인을 잃고 죽어가는 한알의 대합, 동조개, 바스레기가 우리의 재부가 아니란말인가. 이 모래불이 간석지로 둘러막혀 마를수는 있어도 저 제방너머 시퍼런 우리 바다야 어델가겠나. 바다가 멀리 나갔으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나가야 할게 아닌가! 그래 저 새 바다의 모래불에서 다시 숨쉬게 될 조개가 우리의 재부가아니란 말인가!

사람들을 교양하게. 여기는 내 마지막 서식장이야. 자네들이 프락포르며 자동차를 마구 몰아대니 내 밤잠을 집에서 잘수 있겠나!》

아, 이것이 내가 자네 아버지와 한 마지막 대화가 될줄 어찌 알았겠나. 나는 자네 아버지처럼 멀리 바다 한끝까지는 내다보지 못했어. 땅우에 솟는 재부만 보았지 바다밑에 숨은 재부같은것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

사람이란 몇날을 지내보고는 알수 없어. 평생을 같이 지내고 보느라면 그 진속을 알수 있어. 여보게, 이 백사장의 모래불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가. 그우에 사람들의 눈에 띄우는것이란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이 모래불속에 것처럼 깨끗한 자기의 량심을 바쳐 조국의 재부를 깊숙이 묻고갔네.

또 세월은 멀리 흘러 내가 이 바다가에 나앉게 되었네. 자네 아버지가 한생토록 가꾸어온 이 모래불을 지키자고 말일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령감은 말년에 편히 쉬지도 못했어, 모래불에 나앉아 새까맣게 탄 얼굴을 벗어보지도 못했다고 하겠지만 난 그걸 후회하지 않네.》

두사람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래불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갔다. 발자국이 찍히기 시작한 동쪽밑에서 아직도 모닥불이 연기를 피워올리고있었다.

## 결의

김송인

제X수력건설사업소 지배인 최남호는 다섯번째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서 시계를 보았다. 시침이 열을 가리키고있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작업복이 걸려있는 말코지로 성급히 다가갔다. 건설장의 생활이란 참 묘한것이어서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도 정작 현장에 나가려고 서두를 때는 미처 숨돌릴새도 없이 들이닥치는것이였다. 오늘이 바로 그런날이였다. 새로 개발되는 채석장과 보조언제건설장으로 급히 나가보려고 차를 대기시켜놓았는데 경리과장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났었다. 《잠깐만》이라고 하던 경리과장과는 담화가 거의 이십분이나 걸려서 끝나자 이번에는 이웃농장 관리위원장이 또 들어왔다...

최남호지배인은 점점 마음이 초조해났다. 오늘 저녁에 있을 참모회의에서 그는 사업소앞에 부과된 계획과제를 무조건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었던것이다. 보고문은 이미 써놓았었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읽어보니 몇가지로 세워놓은 대책안들이 적극적이 못되고 두리뭉실하여 혼자 소견에도 불합격이였다. 그래서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혁신안이 제기되었다는 보조언제건설장으로 나가려던것인데 벌써 오전 한것이 거의 다 가고있는것이다. 최근에 와서 그는 어떤지 사업에서 때때로 자신심을 잃고 소심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은근히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나이때문인지 아니면 능력부족인가 하고 생각해보지만 워낙 조직적수완과 전격력있는 일군으로 평판이 높았던 최남호로서는 그것이 선뜻 수긍되지 않았다.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짧은 기간에 해내자고 하니 예상치 못했던 난관과 애로가 많았지만 그는 그것이 결코 그때문에 생기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따금씩 엄습해오는 이 마음속 불안과 위구는 어디서 오는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작업복을 길아입고있는데 등뒤에서도 손기척소리가 났다.

(또 손님인가.)

문앞에 귀밑머리가 하얀 늙수그레한 녀인이 송구스런 자세로 서있었다. 얼추 보아도 환갑을 넘긴 나이였다.

최남호는 초조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손님과 마주앉았다. 지배인의 친절에 늙은 녀인은 한결 활기를 띠었다.

《수고합네다. 내 지배인어른한테 꼭 알아봐야 할 일이 한가지 생겨서 럽치불구하구 이렇게 찾

아왔세다.》

《그렇습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최남호는 조금하던 마음대신에 은근히 호기심이 동했다.

《내 여기 건설장에서 일하는 강원숙의 에미웨다. 수풍에 있는 집난이한테 나들이 갔다오던길에 애를 데리구 갈가 해서 들렀습수다...》

(애를 데리구가다니?)

최남호는 영문을 알수 없어 고개를 기웃했다.

그는 딸이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가고 물었다.

어쩐지 강원숙이라는 그 녀성적인 이름이 귀에 설지 않다. 어디서 들었던가 하고 애써 기억의 갈피를 들켰으나 점점 안개속이다.

《무슨 직장이라구 하든가, 내 한번 듣기는 했는데. 편지주소루는 함숙1호동 8호실이웨다. 지배인어른한테 내 뭘 숨기겠수. 우리 애말이웨다. 원래 고집이 여간 아니여서 이래저래 스물여덟이나 먹여 지난 정월에야 겨우 살렸수다레. 그래 한시름놓는가 했더니 약혼을 하구 한주일도 못되여 집을 떠나서는 두달이 지나도록 얼굴 한번 안비치니 이런 야단이 또 어데 있겠수.》

《허허, 거참. 왜 그런답니까. 어머니마음에 무슨 짐작되는것은 없습니까.》

《땡어리숙은 제 에미두 모른다구 속시원히 말을해야 짐작이라두 해보지유. 그저 단마디명창이웨다. 발전소건설이 끝나기전에는 여길 뜨지 않는다는거웨다. 그래 내 그 건설이 도대체 언제면 끝나냐구 따졌더니 이제 1년이 남았다는가, 저희들끼리 무슨 약조가 있었는지 사둔집에서두 다 리해를 하고있으니 걱정 말라구 제편에서 되려 설복하러들지 않겠수. 그런데 내 오늘아침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니 그애 말만으로는 그 1년이라는게 도무지 미덥질 않아서 몇사람 불들구 물어보았는데 제가끔 된다 안된다 판소리들을 하길래 속시원히 지배인한테 알아보자구 찾아왔수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걸음을...》

최남호지배인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저도 모르게 심각해졌다. 그도 그럴것이 최남호는 딸 약혼소리로 시작된 늙은이의 이야기가 갑자기 공사기일과 같은 신중한 문제로 번져질줄은 짐작도 못했었다.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얼른 진정을 못했다. 원숙이라는 그 녀자는 어머니의 지꼇은 성화에 못이겨 제 좋을대로 공사기일을 말했을수 있으며 또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소책임일군인 지배인은 생각나는데로 말할수 없으며 또 말해서도 안되는것이다. 일은 참 딱하게 되였다.

도대체 그 녀자는 어떻게 되어 1년이라는 기간을 불렀으며 그리고 발전소건설이 끝나기전에는 왜 여기를 뜨지 못한다고 뽀을 세우는가, 가슴속에 그 무슨 말 못할 깊은 사연이라도 품고있는가, 혼자생각에 잠겼던 최남호는 불현듯 늙은이의 의욕이 실린 시선을 감추고서 서둘러 입을 열었다.

《어머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건설하는 발전소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설대상중의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을 하더라도 앞당겨 끝내려고 떨쳐나섰습니다. 그러니 발전소건설도 멀지 않아 끝나게 될겁니다. 맥의 따님은 제가 책임지구 될수록 빨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을 했으니 결혼을 하구 애인을 따라가는건 응당한 일이지요.》

최남호는 늙은이의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그저 두리문실 귀맛좋은 소리만 엮어댄것 같아 얼굴이 뜨끈해났다. 그의 눈앞에는 문득 며칠전에 있었던 생산협의회 정경이 떠올랐다. 지난달 계획을 미달한 몇몇 직장장들이 앞에 나서서 호된 추궁을 받고 자기비판들을 하였다. 그중 보조연계건설을 맡은 직장장이 자기 차례가 되자 일어서서 래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월된 전투과제까지 무조건 해내겠다고 불같은 결의를 다졌다. 그의 토론을 주의깊이 듣고있던 사업소 당비서가 《동무는 전달에도 무조건 해내겠다고 다짐을 했던것 같은데... 단단히 명심하십시오. 인간의 존엄과 진가는 요컨대 조직과 집단앞에서 다진 결의를 어떻게 리행하는가에 달려있다는걸 말이지요.》 하고 충고를 주었다. 최남호에게는 지금 당비서의 그때 그 말이 어쩐지 새로운 뜻과 무게를 가지고 가슴에 안겨드느것 같았다. 최남호는 늙은이를 따듯이 바라주고나서 탁상일력 뒤등에 《강원속이를 만날것 - 합숙 1호동 8호실》 하고 써놓았다.

×

보조연계건설장으로 뻗은 좁고 울퉁불퉁한 산협길로 《갱생》호 승용차 한대가 누런 먼지를 말아올리며 패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차는 몹시도 들추었다. 최남호지배인은 손잡이를 단단히 틀어잡고 창밖을 묵묵히 내다보고있었다. 산기슭음달에는 아직도 잔설이 희끗희끗 쌓여있으나 그 반대쪽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떠도는것 같았다. 건설장에서 가장 간고하면서도 비능률적인 계절인 겨울이 바야흐로 봄아씨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한것이다. 어떻게 하면 눈앞에 박두한 좁지도 덥지도 않은 건설장의 좋은 계절을 당의 의도대로 공사속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리용할것인가... 최남호의 사색은 줄곧 이 한점으로 쏠리고있었다.

《지배인동지, 한가지 물어보랍니까.》

차가 평탄한 길에 들어서자 운전사는 지배인쪽

을 흘끔 결눈질해보며 웃음기어린 음성으로 물었다. 생각에 잠긴 최남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자 그 어머니 왜 왔답니까.》

《동무 아는 어머니요?》

《그런게 아닙니다. 아까 저보고 지배인 사무실이 어텐가 묻길래 또 시간을 지체시킬것 같아서 왜 찾는가 되물었더니 기분이 좋지 않아 하면서 대답을 안하더군요. 혹시 우리 건설장에 지원온게 아닙니까.》

《지원? 동무 과연 사람을 웃기누만. 그 어머니 나이가 열만지 알기나 하오.》

최남호는 빙긋이 웃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운전사의 어깨를 툭 쳤다.

《가만, 동무 언제 강원속이라는 이름을 들어본적이 없소, 강원속이...》

《강원속이요...》

두눈을 껌벅거리며 기억을 더듬던 운전사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했다.

《지배인동지를 보고 로동자는 이신작적을 하면 안되는가고 묻던 그 처녀말입니까.》

《아, 옳소. 맞았소. 동무 기억력이 좋구만. 그일이 언제던가, 재작년 가을이던가.》

《그런것 같습니다. 그때는 골재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음-》

최남호는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다. 차츰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날 있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최남호는 차를 타고 어슬렁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는데 골재선별장 맞은편 굽인돌이길에서 질통을 무겁게 지고가는 한 처녀와 맞다들렀었다. 최남호는 차를 세우고 혼자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었다. 지배인을 알아본 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머뭇머뭇하면서 선뜻 입을 열지 못하다가 다시 재촉을 해서야 길을 수리하고있노라고 허안의 소리로 대답했다. 최남호는 호기심도 나고 어텐가 의아쩍은 생각이 나기도 해서 그의 뒤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길을 벗어나서 곧 자기쪽으로 내려가더니 지고간 자갈을 와르르 쏟아놓았다. 거기엔 그렇게 날라간 흙자갈이 몇차분은 잘되게 쌓여있었다. 질통을 추슬러올리며 돌아선 처녀는 얼굴을 활짝 붉히며 딱한 표정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거긴 길이 아니지, 솔직히 말해보오. 그건 뭘 하자는거요?》

최남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처녀는 약간 망설이다가 큰 용단을 내린듯 질통을 버렸다.

《지배인동지, 길을 내고있습니다. 여기를 메우고 선별장까지 길을 끝추 내면 자동차들이 저쪽으로 에돌기보다 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최남호는 지형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처녀의 주장에 공감에 갔다. 예도는 구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단축될것 같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운행에 편리할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첫눈에 벌써 똑똑하고 당돌해보이는 이 처녀가 왜이제야 비로소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는 생각이들었다. 지배인의 심중을 넘겨짚은듯 처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지, 어떤분들은 타산이 무척 밝은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왜 그렇지 못할가요. 이번 일만보아도 그렇습니다. 전 며칠을 두고 여러가지방법으로 측정해보았습니다. 길을 퍼놓기만 하면 한번 운행에 적어도 3분은 절약됩니다. 자동차 한대가 하루에 보통 열다섯탕은 뛰는데 한번에 3분이면 여덟시간에 45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동차 10대면 450분, 결국 하루에 자동차 한대를 거저 얻는 폭이 되는데 왜 그러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제기할 때마다 그저 토론해보자보자 하면서...》

과연 그랬다. 옳았다. 얼마나 알뜰하고 간진 살림꾼인가! 최남호는 곧 일을 바로잡으리라 결심했다.

《신호공이라 했지. 이름은 뭐요?》

《강원숙입니다.》

《이름이 좋구만. 그런데 일군들이 리해를 안해 중단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신작직을 하고있구만. 응, 허허.》

처녀의 얼굴이 팔기빛으로 물들었다.

《그럼 저... 로동자는 이신작직을 하면 안됩니다.》

《하하, 왜 안되겠소. 나부터 벌써 이렇게 감화되지 않았나.》

(그 처녀였구나. 똑똑하구 이악하구 당돌한 처녀였지. 그리구 보면 분명히 가슴속에 무슨 속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녀자야.)

차는 가파로운 둔덕길을 숨가빠 치달아 올랐다가는 스프르 미끄러져내리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길가의 나무들이며 전주들이 집어던진듯이 회회 뒤로 물러갔다. 앞서달리던 화물차들이 자지러진 경적소리에 놀란듯 옆으로 비켜섰다. 감미로운 회역에서 벗어나기 아쉬운듯 말없이 앞을 주시하고있던 지배인이 갑자기 상반신을 앞으로 수그리며 입을 열었다.

《저 적재함에 실은게 진흙이 아니요?》

열댓미터앞에서 《승리》호 자동차 한대가 달리 고있었다.

《진흙... 그런것 같습니다.》

《보조엔제 차같은데.》

《웁습니다.》

물고 대답하는 사이에 《갱생》호 승용차는 화물차를 뒤떨구고 앞서나갔다.

(보조엔제차인데 진흙이라, 진흙을 쓰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아니다. 진흙을 공용히 실어갈

리는 없다. 그렇다면...)

생각을 굴러볼수록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있을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보조엔제건설장에서 제기된 새로운 혁신안과 관련이 있을상싶기도 했다. 지배인은 차를 세우고 내려섰다. 뒤미처 달려오는 《승리》차를 향하여 손을 쳐들었다. 차는 삐익- 아츠라운 소리를 내며 지배인옆에 와서 멎었다.

《왜 그럼... 아, 지배인동지.》

상반신을 내밀고 소릴 지르던 운전사는 지배인을 알아보고 황황히 차에서 내려섰다. 키가 흰칠하고 얼굴이 불깃불깃한 청년이다.

《수고하오. 보조엔제로 가요?》

최남호지배인은 진흙이 가득 실린 적재함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진흙은 뭇에 쓸거요.》

《엔제중심강토를 할겁니다.》

운전사청년은 방금 뭔가 좋은 일이 있는듯 기분이 다소 들떠보인다.

《중심강토? 아직 땅이 녹지 않았는데 중심강토를 하기엔 좀 이르지 않소?》

최남호는 자신의 예감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짐짓 고개를 저으며 불만조로 말했다.

《언땅을 까내고 합니다. 잘됩니다. 정말입니다.》

운전사청년은 마치 지배인이 당장 그만두라고나 한듯이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초조해하였다.

(땅이 저절로 녹아주기를 앉아서 기다릴수 없단말이지. 아직 스무날은 있어야 녹을테니까. 그렇다고 언땅을 까낸다. 가능한가...)

최남호는 머리를 수긋하고 적재함옆을 왔다갔다하였다.

《지배인동지, 우리는 벌써 퍼그나 해제했습시다.

직장장동지도 어제저녁에는 정식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지배인의 기색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던 운전사청년이 조심히 한마디 더 했다. 최남호는 걸음을 멈추고 운전사청년의 얼굴을 뚫어질듯이 바라보다가 성큼성큼 화물자동차로 다가가 운전칸으로 올랐다.

《좋아, 같이 가보기오. 여기서 어물거리고있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는 승용차를 향하여 소리쳤다.

《동무는 지금 곧 경리과에 가서 과장동무 지시를 받도록 하오.》

《갱생》운전사는 입맛을 썩 다시고는 군말없이 차를 돌려세웠다. 드문히 이런 《변》을 당하군했던것이다. 부르릉- 두 차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떠났다.

《직장장이 승인했던말이지. 그전엔 반대를 했댔소?》

최남호는 눈도 코도 입도 큼직큼직하게 생긴 운전사청년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아닙니다. 그저 좀더 토론을 해보자고 했더랍니다. 보수주의를 부린건 없었습니다.》

《허허, 걱정마오. 비판을 하자는게 아니오.》

최남호는 운전사청년의 그 순진하고도 소박한 지조가 또한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동무 어떻게 되어 언땅까지에 그렇게 관심이 높소. 혹시 동무가 그 발기자가 아니오.》

《헤헤, 아닙니다. 그저 적극적인 지지자, 방조자였다고 말할수 있지요. 우리가 사색을 실어가는 타임현장에 이악쟁이 처녀가 하나 있는데 발기자는 바로 그 신호공처녀입니다. 그그저께밤이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새로 나온 영화를 돌린 다기에 저녁밥을 먹고 술근술근 걸어가고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찾더군요. 바로 그 동무였습니다. 그는 무척 반가와하면서 막무가내로 내팔을 잡아끄는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서 언제4호 구역으로 함께 가자는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악쟁이가 또 무슨 엉뚱한 일을 벌여놓았나 하고 생각하면서 몇걸음 따라가다가 일부러 그의 손을 탁 뿌리치면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하지 않으면 안가겠다고 잡아땀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호 웃으면서<별일 아니야요. 언땅을 좀 까주세요.〉하는것이었습니다.<언땅? 그건 다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야.〉하고 나는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악을 부릴 때처럼 두눈이 울퉁해서 입술을 감쳐물었다가 총알같이 내쏘는것이었습니다. 《동무는 매일 차를 끌고 드나들면서도 중심강토를 못하는게 안타깝지도 않아요. 머리가 돌지 않아 새로운 공법은 못내놓아도 관심이야 가지고 살아야지요.》

난 그만 앓은벼락을 맞은셈이 되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서 한마디 했지요. <흥,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고작 연구를 해냈다는게 언땅 까기로구만. 도대체 정신이 있소없소. 그러지 않아도 로력이 긴장한판에 무슨 수로 그걸 다 까낸단말이오.〉 그러자 그는 좀전과는 달리 펄 부드러운 어조로 <그래서 전투가 아니나요. 온 나라가 대건설전투로 들끓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땅이 저절로 녹기를 편안히 앓아 기다리고만 있겠어요.〉

우리 먼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나는 그만 그 말에 감동되어 응하기로 했습니다. 일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쥐고 시선을 창밖으로 던진채 단숨에 쪽 내리쬘던 운전사청년은 열자리가 너무도 조용한것이 이상하던지 흘끔 돌아보았다. 지배인은 팔짱을 끼고 두눈을 꼭 감고있었다. 일순간 운전사의 얼굴에는 섭섭한 빛이 언뜻 비졌다. 아니다. 지배인은 자고있지 않았다. 그가 눈을 감은것은 깊은 감동과 자책의 물결이 망막을 흐려놓았기때문이었다. 그 물결속에서 그는 콧속 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린 남달리 이악한 처녀의 모습을 그려보았고 탕탕 튀어나는 곡괭이자루에 부르튼 손바닥도 보았다. 하루 한시라도 발전소건설을 앞당기자는 일념으로 살며 일하는 청년건설자들...

최남호지배인은 운전사청년이 말을 끊은지 이속해서야 눈을 떴다.

《거참 좋은 동무로구만. 그런데 동문 또 상당한 이야기군이야. 한데 처녀가 그 중요한 일에 왜 하필 동무를 방조자로 점찍게 되었소. 이상하지 않소.》

저르기 정색을 한 지배인의 얼굴은 룡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운전수는 시물시물 웃었다.

《지배인동지, 우린 서로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우린 한마을에서 자랐고 학교도 함께 다니고 건설장에도 함께와서 일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내 눈에는 그가 언제나 단발머리처녀때처럼 어리게만 보이는데 앞으로도 아주머니라는 소리를 할것 같지 못합니다. 그는 중학교때부터 툭툭하고 이악쟁이로 소문났었습니다. 건설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것만으로 만족하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네일내일 가리지 않았고 무슨 일이나 참견하기 좋아해서 한때 <삐침돌이>란 별명까지 붙여뒀었습니다. 비판을 한다 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독보를 하는데 건설장이라고 해서 담배를 피우면 되는가, 뜨개질을 하면 되는가, 정문이 없다고 작업시간에 마음대로 상점에 물건사려 나가면 되는가... 한마디로 그는 맵싸구 당돌하고 답답해보일 정도로 원칙이 강한 녀자였습니다...》

최남호는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화제에 오른 처녀가 바로 자기가 만나보려고 작정을 한 그 녀자라는 예감이 굳어져갔다.

어느덧 차는 보조연체건설장에 들어섰다. 작업장은 말그대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오색기들이 기운차게 날리는속에 곡괭이날이 번뜩이며 반원을 긋고 정머리를 때리는 메질소리가 가락맞게 울렸다. 근색모자를 쓰고 입에 호각을 문 후리후리한 몸매의 처녀가 가쁜가쁜 뛰어나다며 자동차들을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들이밀고 빼내고 하는데 그 숨씨가 여간 아니었다.

《동무가 말한 신호공처녀가 바로 저 동무 아니오?》

《그렇습니다.》

《이름은 강원숙이구.》

《아니 지배인동지 어떻게 그 동무 이름까지 아십니까?》

《그럴 일이 있소. 허허.》

최남호는 다시 만나자고 운전사청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나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작업장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

《...이렇게 되면 중심강토 시공이 얼마나 앞당겨지는것으로 되오?》

직장장과 마주앉은 최남호지배인은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에 내뻐 땀을 주근주근 흘려내며 물었다. 기분이 무등 좋았다. 오래간만에 곡괭이질, 메질로 땀어깨가 땀근해지도록 땀을 뿜았고 여기로 떠나면서 품었던 이러저러한 위구심도 다소 가셔졌던것이다.

《적어도 보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시작할 때 철딱서니가 없는것들을 벌려놓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 일이 이렇듯 기적같은 성과를 낳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더랬습니다.》

흙물이 올라 불그레해진 장화를 신은 직장장은 자책감으로 해서인지 얼굴 역시 불그레했다.

《됐소. 그 소리는 인젠 그만하오. 돌파구는 이미 열린셈이니까. 그런데 직장장동무, 강원숙동무 어머니가 왔던 일을 알고있소?》

《제 그 일때문에 원숙동무를 불렀습니다. 큰일을 해냈어두 할말은 해주어야지 않겠습니까. 아글쎬 직장에 근심을 덧친다구 멀리서 오신 어머니를 합숙에서 하루만 쉬워 그냥 돌려보냈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는 있었구만, 잘 안됐소. 내 전에 동무 욕심이 땅보다 두렵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이 안들었었는데 이번에 원숙의 문제를 놓고 지내보니 그게 사실인것 같애. 어디 솔직히 말해보오.》

최남호는 떠보듯이 말을 에두르며 덧거리를 쳤다. 자기 수하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싫은 심정은 책임일군 일반의 공통된 심리인것이다. 직장장은 지배인의 말뜻을 제격 넘겨짚고 펄쩍 뛰었다.

《지배인동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심부릴 일이 따로있지, 아무렴 내가... 허허, 솔직히 말해서 원숙이가 지난 정월명절에 휴가차로 집에 갔다가 약혼식까지 하고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린 파년한 처녀가 출가하게 된것이 기쁘면서도 한편 좀 섭섭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결혼기념품으로 이불장과 밥상을 마련해주면서 언제쯤 떠나겠느냐구 물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직은 아무데도 갈 생각이 없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떠나겠다고 말하기 쑥스러워 그러겠거니 짐작하고는 통계원을 불러야에 퇴직수속을 해주라고 일렸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통계원처녀가 울먹울먹하면서 나한테 푸념하는 말이문건을 수속해가지고 원숙언니를 찾아갔다가 눈알이 빠지도록 욕을 얻어먹었다는것이였습니다. 누가 이런걸 해달라고 하던가고 하면서 발전소건설이 끝나기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왜들 그렇게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는겁니다...》

똑똑똑- 손기척소리가 났다. 범이 제소리를 하면 온다고 때마침 강원숙이 일하던 차림그대로 들어섰다. 목에 매달린 분홍빛 호각이 앞가슴에서 한들거렸다.

《찾았습니까. 직장장동지. 아이 안녕하십니까. 지배인동지.》

《강원숙동무로구만, 마침 잘 왔소. 좀 만나자던 참인데.》

최남호는 반가운 미소를 보였다.

《제 이름을 어떻게...》

강원숙은 얼굴이 딸기빛이 되어 몸둘바를 몰랐다.

《지배인이 혁신자 이름도 몰라서야 되나. 자어서 직장장동무를 만나오. 그다음 내 동무한테 단단히 할말이 있소.》

《아니 먼저 말씀하십시오. 전 후에 만나도 됩니다.》

직장장은 한발 물러섰다. 강원숙은 공연히 가슴이 달랑거려 앉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들고 신발앞코승이로 방바닥만 호비작거렸다. 지배인의 얼굴은 책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같지 않게 부드럽고 눈에는 대견해하는 빛이 력연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엄했다.

《동무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일을 잘하는 동무가 왜 부모들의 속을 그렇게 자주 태워주는거요.》

지배인의 말뜻을 짐작했는지 강원숙은 눈을 내리뜨고 입술을 옥물었다. 두뺨은 완연 불덩어리가되었다.

《내 더 길게 말하지 않겠는데 두말 말고 래일 부터 이동수속을 하도록 하오. 알겠소?》

지배인의 갑작스러운 엄한 분위에 화뜰 놀란 원숙은 부끄러움도 면구함도 다 잊고 한걸음 나섰다.

《지배인동지, 어쩌면 그렇게 갑자기...》

강원숙은 구원을 바라듯 직장장쪽으로 애원에 찬 시선을 보냈다. 직장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지령서철만 뒤번지고있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단호한 빛이 비껴들었다.

《지배인동지, 이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발전소건설전망을 듣고는 마음놓고 가셨습니다. 저쪽켠에서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허락을...》

《아니 그래두 안되오. 무조건 수속을 하도록 하오. 내 전화를 다 걸어주겠소.》

《야, 어쩌면 저의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십니까. 전 정말 못갑니다.》

《허허, 참. 정말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만.》

《지배인동지, 전 고집을 부리는게 아닙니다. 이 건 제 량심과 관련된 심중한 문제입니다.》

《량심이라니. 약혼한 녀자가 결혼을 하는건 생활의 법칙이구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권리가기도 한대 량심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그리

구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내 오늘 동무의 소행을 두고 여러가지로 생각되는게 많구만. 다시 말하면 건설장에서 어떤 녀자들은 약혼을 하기가 바쁘게 떠나가는데 동무는 그 반대란말이오. 어쩔소. 무슨 남다른 사정이 있는게 아니요? 솔직히 말해보우. 강요하는건 아니지만…》

강원숙은 화끈 단 얼굴을 짓속인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최남호는 듣던바대로 보통이 아닌듯싶은 이 이악한 녀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가 자못 궁금했다. 이윽고 강원숙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채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몇해전 발전소건설을 시작하던 때 있는 방송야회를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 방송야회에서 지배인동지는 첫토론을 하셨지요. 저는 그토론을 들으면서 몹시 감동되었더랬습니다…》

(토론?… 음 그런 방송야회가 있었지. 토론두 했구…)

최남호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졌다. 토론을 한 기억은 있지만 무엇을 말했던지는 삭막했다. 그런데 이 동무가 그 토론을 두고 무엇을 말하자는 건가.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발전소건설장으로 파견되어오면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발전소인지 잘 몰랐습니다. 방송야회에서 지배인동지랑 다른 오랜 노동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야 저는 이제 우리가 건설하는 발전소가 보통 건설공사가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수력발전소건설에 바로 내가 참가하게 된다는 크나큰 영예와 기쁨이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솟구쳐오르는것이였습니다. 그날밤 저는 동무들과 함께 미래의 수력발전소 구내를 거닐면서 마음속깊이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온 나라가 바라보는 이 발전소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기전에는 그 어디도 가지 않으리라 하고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세월이 흐르고 부모들이 바란다고해서 스스로 다진 결의를 꺾버리고 제 좋을대로만 행동하겠나요. 전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음, 그랬었구나. 그랬었어!)

최남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새 세대인가! 말하고 생각하면 반드시 한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참대같은 끝은성미에 오늘은 혁명적량심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더더욱 보석같이 빛을 뿌리고있지 않는가.

《지배인동지, 이 건설장에서 저는 물론 큰 존재는 못됩니다. 무슨 책임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니 제 하나 없다고 크게 자리날것두 없지요. 그렇지만 저 역시 병사가 화선의 한구역을 맡고 있는것처럼 발전소건설장의 한 모퉁이를 담당해왔고 할일은 아직두 많은데 그 모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구 가면 저라는 인간은 무엇이 됩니까. 결례짝처럼 집어던진 량심때문에 아마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될겁니다. 전 절대로 그렇게는 살수 없습니다. 사실 저의 애인… 그 사람도 지금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이는 저보고 우리는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인데 가정에 매이기전에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끝내고 기쁘게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부모들도 장한 생각이라고 칭찬을 하구요…》

걱정으로 하여 가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막을수도 굽힐수도 없이 강경하고 절절하였다.

《그렇단말이지, 동무의 그 마음이 이해되오. 동분 정말 숨은… 뭐이라고 할가. 아무튼 훌륭해, 쉽지 않은 일이야…》

최남호지배인은 그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생각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창문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나날이 높아가는 언제를 감회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렁이였다.

만년대계의 언제와 함께 우리 당은 또 얼마나 훌륭한 인간들을 키워내고있는가! 그의 뇌리에는 문득 인간의존엄과 진가는 조직과 집단 앞에 다진 결의를 어떻게 리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과연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의와 모임을 진행했던가. 회의 들마다에서는 수많은 결정들이 채택되고 결의들이 다져지군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손을 들어 결정하고 제입으로 다진 결의들을 쉽사리 잃어버리거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것으로 여기는 일이 드문하다. 그러나 저 강원숙이라는 인간은 어떤가. 그가 언젠가 다졌다는 결의란 그 어느 회의나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한것도 아니며 대중앞에서 한 결의는 더구나 아니다. 자기혼자 마음속으로 남몰래 다진 결의이지만 그는 그것을 어기는것을 더없는 수치로 량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여긴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이처럼 강의하고 순결한 량심으로 자기가 다진 결의를 지켜간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 안되는 일이란없을것이다.

《그럼 전 돌아가보겠습니다.》

강원숙의 나직한 목소리가 먼 우뢰소리처럼 들려왔다.

생각에서 깨어난 최남호지배인은 재빨리 돌아섰다.

《잠간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 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건설자들이 결의한대로 딸이 약속한 그날에 끝나게 될것이라고 쓰시오.》

이날 최남호지배인은 참모회의에 참가하여 원고없이 보고를 하였으나 내용이 생동하고 설득력이있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최남호지배인이 오늘 하루동안의 체험을 그대로 엮어놓은것이였다.



## 소설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의 구현문제

명일식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현시기 소설문학앞에는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하여 민족제일주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과업이 나르고있다.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보여주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민족적특성을 잘 살려내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잘 살려야 합니다.》**

민족적특성은 매개 민족의 오랜 사회력사적과정에서 형성공고화된 그 나라 인민의 사상감정과 생활, 풍습, 습관, 언어, 사고방식 등의 총체적특성이며 다른 나라 민족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민족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소설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소설을 우리 인민의 민족정서와 감정, 기호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민족적특성이 없는 소설은 자기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구, 기호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수 없다. 그러나 민족적특성을 살린다고 하여 옛날 우리 인민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감정과 생활풍습 언어들을 그대로만 그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민족적특성도 시대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변화발전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이며 충실한 방조자인 우리 작가들은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하에서 우리인민들이 체현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민족적특성을 옹게 파악하고 감명깊게 살려내야 한다.

소설창작에서 우리 시대의 민족적특성을 옹게 파악하고 잘 살려내는 문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을 옹게 그리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오랜 력사적시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바라고 우리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이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나라와 민

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곧 나라와 민족의 우월성이며 위대성인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우리 시대의 민족적특성을 옹게 파악하고 잘 그려야 사람들에게 우리 식 사회주의가 바로 우리의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다. 우리의것을 잘 알 때만이 사람들은 커다란 민족적공지를 가지고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특히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없애버리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더 악랄한 책동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 날로 그 위력이 높이 파시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을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며 여기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을 언제나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주는것은 조국과 민족이며 매개 사람들의 운명과 조금도 뗄수없이 련결되어있는것도 바로 조국과 민족이다. 조국과 민족은 진정 모든 사람들의 삶의 뿌리이며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귀중한것이다.

소설에서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민족의 슬기와 넋을 빛내이는데서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준다.

소설에 민족적특성이 뚜렷이 잘 구현될수록 우리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는 우리 맛이 나는 우리 소설로서의 풍격을 훌륭히 갖추출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우리 혁명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의 문학으로 될수있다.

소설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은 소설의 여러 측면에서 표현되고있지만 중요하게는 민족적인 성격, 민족적인 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과 풍토를 그린 진실성 묘사와 언어구사들에서 나타나고있다.

오늘 우리 소설문학은 민족적인 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하고있으며 민족생활과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과 풍토에 대한 진실한 묘사와 민족적형식의 기본요소인 민족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민

족적특성이 흘러넘치는 주체의 소설문학으로서의 자기의 풍격을 잘 보여주었고 있다.

우리 소설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은 우선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성격은 형상의 핵이며 중심과제이다. 성격을 떠나서 민족적특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늘 우리 주체문학이 요구하는 성격은 주체형의 인간성격이다. 주체형의 인간이란 바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성격은 혁명적인것과 민족적인것이 결합된 성격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받들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며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높은 주체가 철저히 선 인간들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에서 핵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성격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에는 웅대히 충성심이 깃들어있는 민족적인것을 강하게 체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인간성격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충성심에 대한 형상문제에서 기본은 효성과 의리에 대한 문제이다. 효성과 의리는 충성심의 가장 숭고한 경지를 밝혀주는것이며 동시에 민족적인 경지를 질게 보여주는 성격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역사를 두고 예로부터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고 순결하면서도 열렬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毅한 의지와 함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남에게서 신세를 지면 그 은혜를 꼭 갚을줄 아는 의리를 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왔으며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지켜왔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은혜를 갚을줄 아는 의리는 우리 인민이 오랜 역사를 두고 형성되어온 고유한 사상감정으로 된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전통적인 민족적성격이 있다.

오늘 이 전통적이며 고유한 우리 인민의 효성과 의리는 단순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령도자에 대한 감정으로 승화되고있으며 효성과 의리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가장 높은 경지로 발현되고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느끼고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상감정은 수령님께 어떻게 효성과 의리를 다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나고있는것이다.

애국의 감정도 지난 시기에는 단순히 짓밟히고 빼앗긴 항로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주로 표현되어왔지만 주체시대인 오늘 우리 인민들의 애국의 감정은 혁명적수령관을 근본핵으로 하는 새로

운 높이에서 더 뜨겁게 표현되고있다.

수령은 곧 조국이며 수령을 떠나서는 참다운 삶과 행복을 주는 진정한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깊이에 자리잡은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것처럼 우러러보며 따르고 있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다. 세상에서 우리 조국이 제일이고 위대하며 희망과 신심으로 약동하는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는것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위대성에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모든것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 잇닿아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곧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서부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 인간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뜨거운 조국애는 이처럼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열렬한 흠모의 감정이 하나로 결합되어있는데 그 본질이 있으며 새로운 특징이 있다.

이로부터 오늘 우리 인민들이 체현하고있는 민족적인 성격도 바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인 효성과 의리의 감정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에서 새로운 면모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철저히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결합된 효성과 의리의 감정에서 민족적성격이 발휘되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효성과 의리심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성격적특징으로서 그 어느 한순간에 반짝이다 꺼지는 불빛과 같은것이 아니며 또 억지로 끌어내는 단순한 감정도 아니다. 그것은 땅속에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일상적인 생활속에 깊이 잠겨져있다. 때문에 효성과 의리심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전로정에 깊이 체현되어있으며 심장속에서 뜨겁게 맥박치는 순결한 피와도 같은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장편소설 《너당원》과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와 장편소설 《축원》의 주인공 한씨의 성격형상에서 볼수 있다.

장편소설 《너당원》은 원쑤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빼앗겨 노예로 되느냐 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이야기이며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조국땅우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빈터우에서 굴함없이 조국을 일떠세우던 가장 어려운 시기의 이야기를 취급하고있다. 그리고 장편

소설 《축원》은 전후에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종파놈들의 책동으로부터 지켜내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태성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용녀와 한씨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효성과 의리를 가진 충실성의 빛나는 구감이다.

주용녀와 한씨에게서 발휘되는 효성과 의리는 어느 한순간에만 발휘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전로정에 깊이 체현되어있다.

주용녀는 남편을 잃었을 때 녀성으로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않았다. 용녀는 약한 마음과 작별하고 자기를 다잡으며 눈물없이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다진다.

그 무엇이 눈물 많고 체소한 용녀의 마음속에 이러한 결심을 가지게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세 포위원장 강대수가 《...우리는 한 남편을 잃고 있지만 수많은 조국의 아들딸들을 잃고계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마음이 피로우시겠나》고 한 말이였다.

용녀는 이처럼 남편을 잃은 크나큰 슬픔속에서도 자기의 마음보다 먼저 장군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새힘을 얻고 일어서는것이다. 이것은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딸의 심정인것이다.

이러한 용녀이기에 장군님께서 친히 공장을 찾아오시었을 때 《장군님, 너무 녀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해방후에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간것도 우리는 장군님 말씀대로 복구해가지고 잘살았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놈들이 파괴한 용선로랑 복구해보니 그리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있습니다. 복구건설은 우리가 할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귀중한 말씀을 드릴수 있었다.

주용녀의 효성과 의리의 감정은 《빈터우에서》에서도 볼수 있다.

주용녀가 대형양수기를 만드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철판을 해결받기 위하여 제의서를 가지고 성으로 올라갔을 때였다. 그는 전후의 어려운 형편에서 세멘트 한톤, 철근 한톤에 이르기까지 수령님께서 직접 배정하고계신다는것을 알고서는 스스로 제의서를 다시 찾아가지고 되돌아선다.

나라형편이 얼마나 긴장하고 어려우면 수령님께서 직접 세멘트와 강재까지 배정하시겠는가. 이처럼 어려운 때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녀려말라고 말씀드렸던 내가 철판때문에 제의서를 들고온것을 보시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심려하시겠는가!

주용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깊이 뉘우치고 되돌아선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주용녀의 뜨거운 효성과 의리가 있다.

작품에서 주용녀가 수령님께 심리를 끼쳐드릴번한 자신을 깊이 뉘우칠수록 효성과 의리의 감정세계는 더 아름답고 숭고해진다. 작품에서는 주용녀가 제의서를 드릴번한 자기의 잘못을 자신뿐아니라 당세포회의에서까지 비판하며 깊이 뉘우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인 이런 효성과 의리는 그 누구의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는 절대로 생겨날수 없다. 효성과 의리는 오직 인간의 깨끗한 량심에서 샘처럼 우러나오는것이다.

깨끗한 량심으로 부모들에게 효성과 의리를 다하는것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은 민족적이며 전통적인 고유한 사상감정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속에 깊이 체현되어있다.

이 사상감정이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혁명전사들의 효성과 의리의 감정으로 승화되어 일상적인 생활속에 체현되어있다는데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민족적성격의 새로운 면모가 있다.

주용녀가 몸매 체소하고 눈물이 헤픈 녀성이지만 일상적인 생활속에 언제나 수령님에 대한 깨끗한 량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효성과 의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철보다 더 강한 의지와 큰 심장을 가지고 전쟁의 불비속에서 수류탄을 만들어 전쟁승리에 기여하였고 전후 폐허속에서는 대형양수기를 만들어 복구건설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여기에 바로 독자들을 그토록 매혹시킨 주용녀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조선녀성으로서의 주용녀의 민족적성격의 특징이 있다.

장편소설 《축원》의 주인공 한씨의 성격에서도 그것을 찾아볼수 있다.

한씨는 이 나라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하고 수수한 농촌의 조선할머니이다.

한씨는 뼈저린 지난날의 체험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 조국을 찾아주고 행복을 안겨주신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효성과 의리를 가지고있다.

작품은 한씨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효성과 의리의 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한씨는 중앙에 회의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요새 수령님께서 안색이 더 좋아졌다고 한 말을 듣고는 종파놈들이 수령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면 그처럼 축갔겠는가고 걱정한다. 그생각으로 한씨는 눈을 떠도 감아도 그리운 수령님의 얼굴을 그려보며 밤을 꼬박 밝히였다. 하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세상을 다 주신 수령님의 은혜를 갚겠는가고 생각하는것이며 항시 마음은 수령님

의 품으로 달려가 수령님의 억만년 안녕을 축원하고싶어했다.

한씨가 체현하고있는 효성과 의리는 또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실 길을 쓰는데서도 볼수 있다.

한씨는 수령님께서 선거장으로 가시기 위하여 동리앞 큰길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일어나 수령님의 안녕에 길이길이 축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 길을 쓸고쓸었다.

이것은 한씨의 지나온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깨닫고 일상 생활속에서 억척같이 다져진 순결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효성과 의리에 기초한 뜨거운 충성심이다.

이런 한씨이기에 수령님을 만났을 때 《수령님, 안색이 몹시 좋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놈들은 인민생활이 어렵다 어떻다 하지만 인제 우리는 다 잘살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쏘아치는걸 우리가 그냥 두겠습니까. 아무렴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두손길 받들어 지지합니다.》라는 수령님께 힘이 되시는 귀중한 말씀을 올릴수 있었다.

순결하고 소박한 인민의 마음, 인민의 정이 그대로 스며있는 이 말은 일상생활을 통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수령님을 떠받드는 효성과 의리를 가진 참된 인간의 심장속에서만 우리나라울수 있는 것이다.

효성과 의리의 감정이 충성의 감정으로 승화되게 하자면 또한 운명선상에서 절박한 문제로 심화시켜야 한다.

수령님께 효성과 의리를 다하는것은 자주적인 간으로서 살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판가리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과거와 오늘을 놓고볼 때 수령님의 은정과 혜택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에서 폐중한 주인공들인 주용녀와 한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이다.

주용녀나 한씨가 수령님께 다하는 효성과 의리는 그들의 운명과 깊이 련결되어있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자신도, 조국도 있으며 수령님께서 건강하셔야 조국의 미래도 자신들의 행복도 있다고 생각하며 수령님의 안녕을 길이길이 축원하고있다.

주용녀는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의지하여 살고있으며 수류탄과 양수기를 만들 때에도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할수 있다고 확신하며 만났을 이겨나간다. 한씨도 수령님을 자기 삶의 전부로 생각하며 눈을 떠도 감아도 오직 수령님만을 그려보며 종파놈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흔들리지않고 곧바로 나아가며 효성과 의리를 다한다.

이들이 체현하고있는 효성과 의리의 감정은 단순한 도덕률리의 감정이 아니라 운명선상에서 심

화되어 충성심의 높은 경지로 승화된 새로운 감정이다.

우리 작가들은 효성과 의리의 감정을 충성의 감정으로 승화되게 그리자면 수령님께서 받아안은 사랑과 은덕을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인민의것으로 사회력사적인것으로 받아안게 그려야 한다.

수령은 시대와 력사 앞에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인민이 아버지에게 다하는 충성의 감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현하고있는 민족적성격의 특징이 있으며 가장 높은 경지가 있다.

소설에서 민족적특성은 다음으로 오늘 우리 시대 인민들이 누리는 민족생활에서 나타난다.

생활이란 자주적인간의 존재방식이며 형상 그 자체가 생활을 요구하고있다.

생활을 떠나서 민족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민족생활은 민족적특성을 살려내는 중요한 생활바탕이다.

민족생활을 깊이 탐구하여야 생활과 풍속, 습관정서와 기질, 심리 등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잘 밝혀낼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생활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돋구어주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그려야 한다.》**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지난날의 민족생활을 그려내어 사람들의 순수 흥미를 자극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북돋아주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민족생활은 마땅히 혁명적문학예술의 주제사상적과제에 복종되어야 하며 민족적자부심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살리는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소설에 그려야 할 민족생활은 본질에서 사회주의적생활이며 집단주의적생활이다.

소설창작에서 집단주의적생활을 조선맛이 나게 잘 그리자면 우선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본바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아름답고 순결할뿐아니라 끝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고상한 도덕풍모와 깊은 인정세계를 가지고있으며 생활에서 이웃간에 화목하고 단합심이 강하였다.

화목과 단합심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집단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생겨날수 없다.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근면

하며 깊은 인정세계를 가진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남을 돕고 이끌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도 있고 집단의 생명속에 자기 개인의 생명도 있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관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하에서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그 어디에나 다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집단주의적의식이 비껴있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높은 민족적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이로부터 소설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을 뚜렷이 살리자면 생활을 하나 그러도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집단주의적의식이 비껴있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근면하고 순결한 생활적측면들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레를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저절로 노동계급이 되는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는 장편소설 《노동가정》에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정의 화목과 단합심은 무원칙한 화목과 순수 가정을 위한 단합심이 아니였다.

주인공 박광록가정의 생활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앞에 놓고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단합심이며 화목이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들떠서 다른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셋째인 삼석에게 휴가신청서까지 때어보내주고 시집을 가서 살림살이에만 눈이 어두워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딸 순옥이를 준절하게 타이르며 엄하게 대하는데서 집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인 광록은 삼석이의 휴가신청서를 꾸겨 쥐고 분노해서 소리치고 할아버지인 촌보로인은 오금에 바람이 들어 너털대는 삼석에게 보따리까지 싸주고 일하기 싫어하는 순옥이의 교대를 대신해준 무원칙한 만머느리를 뜨끔하게 일깨워준다. 만머느리인 성숙이 역시 시부모님들의 충고에 자신을 깊이깊이 뉘우치며 가정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애쓴다.

여기에서 이 한가정의 화목과 단합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앞에 놓고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레는 몇몇하지 못한 과거의 경력때문에 나쁜놈들의 모해에 걸려 우울하게 살고있는 박정호기사를 친혈육의 뜨거운 심정으로 도와 한 대오속에 굳게 묶어세워주는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주인공 신철민, 인민군대에서 불구의 몸이 되어 돌아온 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 그의 뜻을 꽃피워주는 영원한 벗이 되어 한 대오속에서 참답게 살고있는 중편소설 《들장미》의 주인공 진

숙임의 생활들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 소설문학에서 민족생활은 또한 우리 인민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민족생활양식과 세태풍속들에서 나라고있다.

민족적인 생활양식과 세태풍속들은 민족적생활이 진하게 배여있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풍속들이다.

그러나 민족적인 생활양식과 세태풍속은 옛날의것들을 보여준다고 하여 그대로 옮겨놓아서는 오늘 우리 인민들이 가지고있는 민족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없다. 민족적인 생활양식과 세태풍속은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과 구미에 맞게 그럴 때만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장편소설 《백두고원의 봄》의 생활풍속에 대한 묘사가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은 우리 시대의 감정에 맞게 평복사람들의 생활풍속을 향토색이 풍기어나오게 잘 형상함으로써 민족적인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군대에서 돌아온 경찰이의 눈앞에 펼쳐진 집안에 대한 묘사가 그 대표적이다.

...정지간 뒤벽에 선반처럼 세개단으로 매여놓은 조왕우에는 맨 밑단에 갖가지 사발들과 보시기들, 도리모랭이들이 보병분대의 행진서렬처럼 주련이 줄지어있었다. 두번째단에 역시 황토를 먹이고 들깨묵 대우를 낸 합지들이 기계화군단마냥 장엄히 줄맞추어 엮혀있고 맨웃단에는 《시상》의 그 《무력》들을 엄호하는 비행기들이기라도 한듯 아버지개다리소반과 끼니때마다 경찰이와 금월이 마주앉아 식사를 하곤하던 두리반이 꺼꾸로 엮혀있었다.

이 생동한 묘사는 주인공 경찰이네 집안생활현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평복사람들의 생활풍속들을 당시의 전시생활의 환경과 우리 시대 인민들의 구미와 사상감정에 맞게 새로운 각도에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민족생활과 풍속에 대한 이런 묘사는 민족적생활을 진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민족적자부심을 더 가지게 한다.

우리 소설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은 또한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과 향토에 대한 자연묘사와 언어구사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자연과 풍토에 대한 묘사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있다. 물론 자연과 향토 그자체에 그 어떤 민족적특성이 있는것은 아니다. 나무와 꽃, 산과 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나 다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풍토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생활이 자연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 있는것만큼 소설에 그려지는 자연과 풍토도 인간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그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하나 그려도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이라는것 이 안겨오도록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환경과 향토에 대한 묘사에서도 민족적인 특성이 꽃의 향기처럼 진하게 풍기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민족적특성은 우리 인민들의 고유한 사상감정과 생활풍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일부 소설가들속에서는 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을 구현하는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는 우리 맛이 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보여주는 우리 식 소설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민족적특성이 뚜렷하게 민족적성격과 민족생활,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묘사함으로써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우리 맛이 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소설문학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날 보고 쇠돌밖에 모른대

석광희

사람들 날보고 하는 말  
쇠돌밖에 모른다나요  
아이참 우스워요  
시집갈 나이의 회작기공처녀가  
쇠돌, 쇠돌만 외운대요

생각대로 말하라지요  
마음대로 놀리라지요  
그래요 난 쇠돌을 사랑해요  
사랑해도 끔찍이 사랑해요

허나 그것이 다가 아닌줄  
미처 알지 못하나봐요  
깊은 땅속은 들여다보면서도  
남의 속은 볼줄 모르나봐요

산정길을 오르는 산허리에  
피여 반기는 진달래를 보면  
내 마음이 그대로 피여있는것 같아  
꽃잎과 조용히 속삭이던 사연을

그 무슨 기쁨을 알리는듯  
함박눈 송이송이 내리는 저녁이면  
일기장에 써넣는 서투른 시에  
내 생각을 절절히 담아보는줄

그래도 사람들 날보고  
그저 쇠돌, 쇠돌 한대요  
아이참 기막혀  
은근히 따르는 총각들 많건만

아는지 모르는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구요

처녀시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한때인줄 모를가  
알기나해요  
시원시원하고 일잘하는 총각을  
가슴 설레며 남몰래 그려보는  
그런 밤도 있는줄을

하건만 이 모든것 소중해도  
내겐 아직 급하지 않아요  
생각은 오로지 하나  
향도의 자옥이 새겨진 철산봉  
거룩한 산마루를 우러를 때면  
쇠돌이 더없이 귀중한것으로 안겨와요

그래서 꿈을 꾸어도  
쇠돌과 말하는 꿈을 꾸고  
노래를 불러도  
쇠돌의 자랑을 노래하는  
이 회작기공처녀의 마음

사람들 날보고  
쇠돌밖에 모른다 해도  
난 정녕 나무람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워  
철산봉을 지켜가는 광부  
나에겐 그것이 더 듣기 좋아요

## 나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리영

## 너를 찾은 이 하루는

달밝은 마을길  
 낮익은 은행나무에 나는 기대여섯다  
 새지 말아다오, 고향밤아  
 어찌다 들린 네 품이어서  
 나에겐 이 하루가 귀중하구나

다정했던 이웃들의 숨결처럼  
 이밤의 훈풍을 맞고만싶구나  
 문필가로 된 이 몸을 반겨주던  
 송아지적 동무들의 속삭임처럼  
 푸른잎소리 듣고만싶구나

조국을 받들어 근로하는 법을  
 푸른 벌에서 배워준 품아-  
 내 희망 더 활짝 나래퍼라고  
 대학으로 보내던 네 손저음 잊었다면  
 어찌 귀중한 이 하루를 얻을수 있으랴

아, 대건설의 불꽃을  
 원고지에 옮기던 열정의 그런 밤을  
 반짝이는 별빛으로 축복해주는 고향아

당의 뜻으로 심장을 달구던 그런 새벽을  
 오리오리 달빛으로 이어주는 고향아

온 하루 애무해주던  
 정어린 눈길이 살뜰한 손길이  
 용단같은 이밤의 고요로 펼쳐진듯  
 마치도 내 장기출장 끝내고  
 네 품에 다시 돌아온듯싶어라

진정 타고장에서  
 백날 천날을 보낸들 어찌리  
 너의 논둑길 그 들길을 안고 살았기에  
 고향아, 너를 찾은 이 하루는  
 보통날 천백날을 대신해주는게 아니라

고맙다, 고향아  
 조국을 받들어온 나날  
 네앞에 부끄럼없었기에  
 달빛도 이 아름다운 밤으로  
 너는 표창처럼 펼쳐주고있구나!

## 처녀는 이야기하는데...

좋은 글감 얻을가구  
 콩포기 설렁이는 두렁에 앉아  
 고향처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처음엔 즐겁게 듣기만 했다

올해도 풍년이라며  
 모래기 많던 새피논까지  
 흙갈이했다는 이야기...  
 가물타던 순덕체 더기까지  
 분수관을 늘였다는 그 이야기...

처음엔 즐겁게 들었어도  
 나는 점점 머리가 수그러졌다  
 한겨울 저수지 공사도 끝냈다는  
 처녀앞에, 고향사람들앞에

어떻게 가꿔오는 이 땅이나  
 성실한 땀으로 안아온  
 벌의 설레임, 이 들바람을  
 붓끝으로 먼저 그리려 했음을  
 고향아, 용서해다오

오래간만에 너에게 왔다면  
 땀이라도 먼저 흘려보는것이  
 내가 차릴 응당한 도리 아니라  
 하마트면 낯선 사람 될번하였거니

논고의 물소리처럼  
 처녀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만에야 논판에 들어섰다  
 숨어있는 돌피를 찾으려구-  
 내 적은 땀이나마 이 땅에 묻으려구-

## 내가야, 작은 시내가야

물이끼 오른 돌에 미끄러져  
나는 몇번이나 꽃신을 흘려보냈나  
물장구치던 유년시절의 물결이  
오늘도 날보고 반가웁다 조잘대네

그 시절엔 부러진 나무아지도  
동쪽우에서 쳐매주었지  
장마에 씻긴 강변기슭에  
금잔디때 꼼꼼히 입히기도 하였지

내가야, 작은 시내가야  
그 시절 그때처럼

한점 티 앓지 말라고  
너는 이 마음 깨끗이 씻어주누나

향토에 대한 첫사랑  
가슴속에 움티워준 시줄같은 흐름아  
안고 살라고 이 땅을 안고 살라고  
어릴적 읊조리던 동요처럼 너는 속삭이누나

진정 어머니 젖줄같은 내앞에선  
어른이 되어 설수 없구나  
아이되어 다만 아이로만 되어  
내 걸음마 다시 가다듬게 되누나

## 렬사들의 분묘앞에서

청솔숲 우거진  
여기 야산기슭  
렬사들의 분묘앞에서  
내 지금 머리속인다

살았으면 분여지의 달밤을  
옛말처럼 들려줄 사람들이다  
살았으면 《애국미》 실어나르던  
그 동구길을 두고두고 추억할 사람들이다

뼈꾸기 울음 구성진  
이 산천을 사랑한것이 죄였거나  
못다산 그들의 명을  
앞날에로 이어주고싶구나

고향앞엔 들꽃처럼 소박했어도

원췌앞엔 사자갈았던 렬사들아  
두고간 녀인듯 푸른잔디 쓸며쓸며  
두고간 마음인듯 하얀비 어루만지며  
스스로 자신을 돌이키노라

그러면 맑은 날, 좋은 날 고루며  
농장벌 공장길을 찾아가던 그런 날들이  
오늘에 할일 래일로 미루며  
탁상등 서두르게 끄던 그런 밤들이  
어인 일로 이리 가슴 맺히느냐

사랑하는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피방울까지 바칠줄 안  
여기 렬사들의 분묘앞에 서니  
오오, 조국을 위해 아꼈 땀 따로 없음을  
가슴치며 내 깨닫게 되여라!

## 바래지 말아다오!

잘 가라고  
다시 오라고  
먼 개발지로 취재길 떠나는 이 몸을  
동구길에서 바래주는 고향사람들아

잘 가라는 말 하지 말아다오  
다시 오라는 말 하지 말아다오  
어쩐지 손님처럼 떠나는듯싶어  
두고가는 내 마음 먼저 받아다오

그대들이 김매며 땀을 흘릴 때  
나도 함께 흘린다고 생각해다오  
그대들이 비내리는 물길을 걸을 때  
나도 삽을 메고 곁에서 걷는다 믿어다오

어느 하룻들 이 땅을 잇었으랴  
폭우가 쏟아질 때면

물대던 그 논고를 더듬었노라  
태풍이 창문을 두드릴 때면  
강냉이밭이 눈에 어려 잠못들었노라

이 땅을 가꿀 일손이 남아서  
고향은 나를 떠나보내지 않았다!  
조국을 안고 더운피 뿜이라고  
내가 할 일감 도맡아 안으며  
오늘도 손저어주는 그 진정 어이 모르랴

날 바래지 말아다오  
아직은 할일이 많은 이 땅에  
내가 가꾸던 이랑을 그대로 남겨다오  
가물탈 때면 이 마음 약비 되리라  
장마질 때면 이 마음 보퉁이 되리라

아 고향이라는 향토의 숨결을 모르고야



조국이라는 대지의 맥박을 어이 깨치랴  
정든 사람들아, 날 바라지 말아다오

조국애로 이 가슴 불태울 자리  
고향땅에 원고지처럼 남겨다오!

## 내 고향 어머니품아 외 1편

김봉운

꿈결에도 불러 다정하고  
안겨 포근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정다운 고향아  
오늘은 초소에서 내가 왔다  
배나무집 셋째아들이 왔다  
  
어린 시절 나에게 힘과 의지를 키워주던  
랑림의 산발들은 두팔 벌려 반겨주고  
이고장의 젖줄기 청천강은  
추억의 갈피를 번져주며 예대로 흐르누나

어디 보자 오봉산  
봉황대의 아아한 절벽아  
바위돌에 불을 비벼도 부드럽고나  
흰모래 자갈밭에 앉아도 따스하구나

별거승이시절의 동갑들아  
형제처럼 친근한 벗들아  
먼저 내 인사를 받아다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사랑하는 고향땅에 자욱마다 꽃피운  
그 위훈앞에 삼가 머리숙이노라

그대들의 얼굴마다에 잔주름은 물결쳐도  
소먹이풀도 아니돈던 산달밭에  
솔뚜껑같은 뽕잎이 푸르려 설레이고  
피나무껍질로 정갱이를 뒤감고

가시팔기, 찢팡이를 따먹던 산비탈에  
복숭아, 참배, 앵두, 살구꽃이  
저렇듯 피어 만발하였구나  
  
고기잡이로 신나던 소무천개울가  
그곳에 소형발전소가 일떠서고  
매끌어구 식료공장에 넘쳐흐른다  
보기에도 군침도는 수십종의 산과실식료품이

아, 정녕 이곳이  
나를 낳은 산천인가  
잠복의 밤에 어려운 훈련길에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던  
그 산천, 그 골짜, 그 언덕인가  
보고 다시 휘둘러보아도 새로워  
청춘의 활력으로 변모된 어머니품아

허나 며칠후면  
다시 나는 초소로 떠나야 하리  
이 행복, 이 꽃피는 생활을 노려  
칼을 가는 원썩가 있기에

오, 너를 지키는 길이라면  
천만리 불속길도 서슴지 않을  
사랑의 불씨를 새롭게 지펴주는  
나의 고향아

## 모교에서

보고싶어 정녕 보고싶어  
기어이 한번은 찾아보리라  
눈앞에 그려 잠못들던 학교이건만  
선뜻 들어설수 없어라  
너무도 낯설고 황홀해서

예가 바로 입학의 첫기쁨 웃음으로 날리며  
**김일성**장군의 노래 높이  
내가 처음 들어선 교문이던가  
우리 말 한자두자 익히며  
새 조선의 꽃봉오리로 피던 그 학교던가

알수 없어라  
돌팔매로 채 익지도 않은 돌배를 털다  
선생님한테 된추궁 받고  
남몰래 눈물 흘리던 학교뒤뜰 구석도  
만장의 박수속에 시를 읊던 드넓은 강당도

오, 전쟁의 날  
미제날강도들은 이 산골에도  
폭탄을 떨어주고 기관총을 퍼부었더라  
불탄 학교 재가루에 아린 눈물 떨어지며

주먹으로 눈굽을 훔치던  
그날도 눈앞에 어려오누나

아직은 애어렸건만  
불타는 증오에 가슴끓이던 그 시절  
이깔숲속 바위를 책상삼아  
조국의 귀중함과 함께 복수를 다짐하던  
그날의 눈빛들도 보여오누나

복구대로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학교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들고  
단하나 누이동생마저 앗아간  
그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입술을 깨물던 그 마음이  
다시금 심장에 일어서누나

오, 그날의 그 맹세대로  
총을 잡고있는 이몸  
오늘도 군복을 아니벗은 이 가슴에  
옛 교정은 오늘도 나에게 깨우치고있구나  
내 한생 투쟁으로 이어가야 할 사명을

## 반제재판소

(총련)로진용

벗들이여, 세계의 벗들이여  
그대들의 옆자리를 하나씩 비우시라  
더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해도  
그래도 옆자리를 하나씩 비우시라  
와야 할 사람이 있다  
반드시 자리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반제재판소 이 마당에

이역의 우리들도 이렇게 왔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그대들도  
이 푸르른 평양의 하늘아래 이렇게 모였는데  
어찌 그들이 못올수가 있으리  
보라, 그대들의 옆자리  
우리 남녘의 형제들의 얼굴이 있다

그렇다  
바로 이 반제재판소 증인석  
그대들의 옆자리에 앉아있지 않는가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박종철  
그외 동창생들이 앉아있지 않는가  
보라 그대들의 옆자리를  
불고문에 형제조차 알수 없었던 리철규

그의 동갑들이 함께 앉아있다

벗들이여, 세계의 벗들이여!  
들었는가, 그들의 목소리를  
저 1980년의 광주에서  
2천명이 넘는 무고한 인민들이  
어떻게 무참히 학살되었는가를

저 서울과 부산, 아니 남녘의 곳곳에서  
어떻게 미국문화원이 불탔으며  
통일을 부르짖으며 휘발유를 들 쓴 청년들이  
어떻게 우리결을 떠나갔는지

보는가, 벗들이여  
그들이 끌어낸다 피고석에  
조선의 원수, 세계의 원수를  
평화의 교살자, 인류의 악마를  
미제국주의를

우리 함께 인도하자 무자비하게  
분노의 불길로 화형이라고  
그 제도 은하계로 영원추방이라고!

## 고달부

김종석

## (1)

얼룩소는 두눈을 습벅이며 단한번 고개를 들고 푸른 들판을 향해 《음메-》 하고 긴 영각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꼭 《엄마》 하고 부르는것 같았다.

불에 꺼렇게 그슬린 도끼자루를 우악스럽게 거머쥔 백정의 큼직한 손은 순간 후두둑 떨리었다.

반나마 풀어헤쳐진 상투머리아래 왼쪽 눈언저리가 경련으로 푸들 뛰놀았다. 한뼉 백정살이를 해온 자신도 놀라리만치 밀물처럼 겹쳐드는 까닭모를 애수와 불안, 동정이 가슴 한구석을 불로 지지듯했다. 어쩐지 자기와 마주선것이 소가 아니라 꼭 소의 허울을 쓴 자기자신처럼 느껴졌다...

《이 짐생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게 우리 신세다, 우리 신세야!...》

그의 험상궂은 얼굴은 다시 이지러지고 시퍼런 도끼날이 번쩍하고 허공을 획 내리거었다.

정수리를 면바로 맞은 소는 두눈을 희뜩 뒤집으며 네다리를 애처롭게 버둥거렸다.

《음머어...》

피가 흥건히 피여 바짝 말랐던 흙을 질적하니 적시였다.

백정은 가볍게 몸부림을 하며 애처롭게 마지막 숨을 넘기는 소의 슬픈 정상을 얼없이 바라보며 한동안 까딱않고 앉아있었다.

《후우-》

그의 입에서 땅이 꺼질듯한 깊은 한숨이 내뿜렸다. 피발이 서고 툭 불거진 백정의 눈은 스스로 감기였다.

강바람이 건들 불어오는속에 노래가락이 울려오자 그는 악몽에서라도 깨어난듯 흠칫 놀라며 눈을 떴다. 그는 눈길을 들고 휘늘어진 버들숲사이로 빨갛고 노란 색깔이 언뜻이는 《련광정》 쪽을 바라보았다.

...

대동강 맑은 물은  
옛정을 싣고서

...

술을 퍼마시고 미친듯 고아대는 허꼬부라진 왜말속에 섞이여 간간이 울려오는 너인의 노래소리는 끊어졌다가는 이어지고 또다시 잠잠해오기도 했다. 아마 아침에 불고기감을 가지러 왔던 왜병

놈이 풍만난 병신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오늘은 적장이 이름난 평양기생 계월향을 끌어낸다더니... 그 말대로 정말 평양성을 타고 앓은 왜장들앞에서 풍악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는것 같았다.

평양감영에 매인 백정이었던 고달부는 몇달전 만하여도 옥같은 얼굴에 산뜻한 몸매로 하여 온성안이 너겔처럼 대하면 명기가 오늘은 왜놈들의 품에 안겨 노래까지 부르는것을 보자 역스러움을 느꼈었다.

(과연 기생은 기생이로나.)

제스스로의 판단에 위안을 하며 부지중 칼을 잡던 그는 또다시 갈마드는 생각에 내뻗치던 손을 맥없이 내리었다. 웬일인지 그는 이미 숨죽은 소가 웅얼진 피덩이를 지닌채 싸늘하게 식어들어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자꾸만 눈앞에는 팔애또래의 어린 계집애 하나가 얼른거리며 떠나지 않았다.

바로 어제 한낮이 다 되어서였다. 며칠째 병석에 누워 아무것도 입에 못대는 아버지에게 꿇일 감을 가져가자고 갓 잡아 김이 문문나는 돼지의 내포 몇점을 들고 집으로 갔을 때였다.

《온다-》

집앞에 이르니 비둘기처럼 오구구 모여있던 조무래기들이 와하고 흩어져버렸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집으로 들어서던 그의 눈은 금시 화등잔같이 커졌다.

방안과 벽은 온통 진흙투성이였고 살이 떨어져 나간 문짝은 토방돌우에서 덩굴고있었다.

《아...버...지이...》

굴뚝쪽에서 여섯살난 딸애가 몽당치마엔 흙이 게발리고 이마엔 피가 말라붙은채로 엉엉 울며 나왔다.

《순희야 이게 웬일이냐 영? 왜 이렇니?》

입술이 새파래진 딸애는 비맞은 참새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영...영 쇠돌이랑 오빠들이... 아버지 왜놈편이라...》

《뭐어!?...》

순간 벅긋하고 경악과 분노로 치렸던 그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딸애의 이마에 가져다대던 손이 꾸부러놓은 쇠갈구리처럼 까딱 움직이지 못했다. 말을 하자고 해도 허끝에 못이 박힌듯했다.

《할아버진... 문턱에서...넘어졌어.》

딸애는 웃방문을 가리켰다. 문이래야 종이를 언제 발라보았는지 가루채처럼 구멍이 숭숭 나있

다.

문을 열어보니 병자인 아버지는 벽에 기대인 채 황소숨을 몰아쉬고있었다. 겨우 아물던 상처가 다시 독을 쓰는 모양이었다. 아까 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오다가 애너석들의 돌에 맞았는지 이마와 적삼할것없이 흙탕발림이 되었다.

(고현놈들, 백주에 만나니것을 하다니...)

고달부가 울컥하고 일어설 때였다. 문밖에서 애들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

개백정 소백정

왜놈에게 붙어서

꼬리 살살 젓는다

다시 또 흙덩이, 돌맹이들이 연방 날아왔다.《철썩!》하고 더러운 오물덩이가 방금 토방우에놓은 내포에 떨어졌다.

고달부는 무작정 마당에 덩구는 몽둥이를 쥐고 밖으로 뛰쳐갔다. 그의 얼굴은 모닥불을 쓴듯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놈들, 게 서지 못할가!》

《뛰자아!》

호박순이 열기실기 뱀처럼 기여올라간 흙담벽우에 참새들마냥 보이던 얼굴들이 사라졌다. 맨 나중에 짙막한 발로 뛰여가던 딸애또래의 어린 계집애가 서너걸음앞에서 무서움도 잊었는지 《흥!》 하고 코방귀를 끼며 돌파서 달아났다.

《...》

고달부는 찌르르 가슴이 저려와 휘청거리는 발을 더 내질지 못하고 돌아섰다. 호박덩쿨과 담장너머에서 엿보던 애들이 엉거주춤 일어나 웬일인가 하여 꾸부정한 그의 뒤편등에 눈길들을 박았다.

온종일 아이들의 노래구절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 아픔을 자아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일에 전갈지 않다는 예감이 불쑥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단 말이고?)

고달부는 자작 지어만든 소가죽 칼집에서 끝이 뾰족한 칼을 뽑아들었다. 끝은 예리하나 등이 없이 가재미처럼 넘직한 칼날은 보통손칼보다 엄청나게 컸다. 단단한 참나무자루에 뒤끝엔 손가락 굽기의 넓은 구리가락지까지 끼워주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는 백정칼이었다.

백정자식은 백정되는 세상이라 고달부는 병자가된 아버지에게서 얼마전에 이 칼을 넘겨받았다. 대대로 이어오는 고통과 가난과 설움이 모두 이 칼속에 스며있었다.

그는 칼끝을 매만지며 생각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일을 하며 그것으로 먹고 살아간다. 뒤집 박서방이 구들쟁이로 살아가듯 나는 이 칼로 짐승을 잡아주며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천한 백정이다! 백정은 누구에게든 짐승만

잡아주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갈가마귀처럼 어두운 그늘이 자꾸만 갈마들어 바닥을 알수 없었다.

정말로 달라졌다면 자기가 잡은 고기를 처먹어주는 놈들이 바뀌었을뿐이었다.

량반과 왜놈! 고달부는 량반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피가 꺼꾸로 서군했다. 량반세상에서 패랭이를 얹은 백정은 버러지와 다를바 없었다.

백정이란 말뜻자체가 아무것도 못가졌다는 말로서 성이 없어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름을 지어도 천하게 여기는 《돌》자를 많이 썼다. 백정들의 거처지는 량반, 량민들이 사는 마을엔 들어설수 없고 백정촌을 따로 이루었다. 혼례를 가져도 남자는 머리우에 천민표적인 패랭이를 얹어야하고 녀자들은 머리칼을 쪽지지 못하고 빠리머리를 했다. 그것은 비너를 꽃을수 없기때문이었다.

백정은 죄를 지어 매를 치는 경우에도 량민들과는 달리 형들이 분에 넘친다고 맨땅에 엎어놓고 볼기를 내리쳤다.

백정이 받는 특혜란 오직 장례식에 상여군으로 뽑히거나 사람을 죽이는 망나니로 뽑히는 기회뿐이었다.

당시 량반사대부들은 그들이 살생을 일삼는다 하여 백성을 사람과 짐승의 중간으로밖엔 여기지 않았다. 바로 그 세상에서 달부의 아버지는 낱새도 손짓으로 떨군다는 세도줄을 가진 량반놈의 옥색도포자락에 피방울을 몇점 튕긴 죄로 살점이 묻어나도록 볼기를 맞고 끝내는 발뒤꿈치까지 잘려온 신세가 되었다. 정신을 잃은채 이웃들의 등에 업혀 들어서던 아버지... 아래도리를 후줄근히 적시고도 계속 떨어지던 선지피... 류혈이 랑자한 아버지를 불안고 목놓아 울던 어머니의 모습... 이태전 수리날의 광경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났다. 고달부가 결국 성을 떠나지 못한것도 아버지의 병이 위급해서였다.

고달부에게는 오랑캐인 왜놈들이나 세도량반들이나 다 같고 같은 족속들이었다. 왜적이 평양성으로 기여들던 날의 끔찍한 참변들을 생각하면 억이 막혀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불길에 휩싸였던 대동문... 사무라이들의 칼에 찔려 창자가 뒤집힌채로 길가에 덩굴던 시체. ...운신을 못하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마을을 빠져나오던 고달부는 경상골어구에서 온몸에 매돼지처럼 털이 더부룩한 왜병들과 불시에 맞닥들었다. 왜놈은 여럿이고 게다가 병자인 아버지까지 업은 몸이라 그는 어쩔수없이 불들리고 말았다.

그날 저녁, 다짜고짜 반주검이 되도록 매를 얻어맞고 난쟁이 왜병의 발길에 채이며 웬 장막안에 들어서니 서너명되는 사람들이 먼저 끌려왔었

다. 그중 한사람은 대동강의 물지게꾼이었고 나머지 두사람은 모를 사람이었다.

《너는 또 어떤놈이냐?》

마귀의 옷자락처럼 너울대는 불그림자쪽에서 갑옷차림에 쫄마게(뒤로 묶은 일본무사의 머리)를 한 왜적 장수놈이 고달부를 쏘아보았다.

《저놈은 평양성안의 친한 백정놈을시다.》

왜놈장수의 곁에서 눈이 씹다뺨은 대추씨만한 놈이 지껄었다. 언젠가 평양감영에서 본적있는 아전나부랭이였다.

《백정?…》

적장놈은 호피방석이 깔린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신기한 산짐승을 노려보듯 고달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좋은것이.》

허꼬부라진 왜말을 알리 없는 고달부는 왜놈장수의 상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있었다.

이때 적장놈은 모난 얼굴에 눈썹이 류달리 큰 고달부의 눈을 보면서 방금전 대동강 선창가에서 본 한 조선청년을 생각하고있었다....

선봉장 고니시의 명을 받고 소금배를 붙들러 나가니 도끼를 손에 들고 이마우에 흰 수건을 질끈동인 대동강의 배군은 두팔이 칼에 맞아 다 떨어지면서도 끝끝내 소금배를 물속에 가라앉히고 야말았다. 그 청년의 마지막 눈빛이 바로 저랬다.

적장은 애써 불쾌한 생각을 털어버리며 고달부에게로 다가왔다. 이런 백정놈은 굶주린 제놈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은것이! 우리 일본무사들에게는 다섯가지의 도덕이 있다. 충성, 신의, 렬치, 결백, 절절, 이것이 무사의 행동규범이다. 우리를 도와나서는 사람에게는 이 무사도의 오덕으로 대할것이다.》

그날밤, 장막에서 나와 이제는 영악없는 죽는 길로 가는가부다하고 발길을 비척이며 끌려가보니 그곳은 뜻밖에도 이전 평양감영의 짐승도살터였다.

## (2)

고달부는 애써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는 안해의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며 무거운 걸음으로 살짝 문을 나섰다. 공연히 자기때문에 안해가 욕을 본것이었다. 딸애의 말에 의하면 안해는 이웃집 너인들에게서 무수한 욕을 먹고 또 치마자락에 구정물까지 받았다 한다.

《어허...》

그의 입안에서 피로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엿저녁 고달부는 앞가을 건너에 사는 김서방의 어머니가 왜놈들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혼자소리처럼 왜 밥이라도 한그릇 가져가지 않았

는가고 했다.

아침 일찌기 보리밥을 짓는 차제로 내포국을 푹배기에 담아든 인해는 급히 이웃을 찾아갔다.

거적문을 들어올리니 쿼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속에 할머니는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흙바닥은 물이 질퍽했다.

《에그머니...》

안해는 서둘러 할머니를 부둥켜안았다. 방안어디라 할것없이 싸늘한랭기가 풍기였다.

《할머니! 할머니...》

뼈만 앙상한 가슴이 금시라도 마른 가랑잎처럼 부서질것 같았다. 한동안 흔들어 불려서야 깊이 감졌던 눈거죽이 가늘게 들렸다. 어느새 눈가장자리에 맺혔던 눈물이 주그러든 살결을 타고 흐르다기 깊은 고랑에 맺혀 더 흐르지 못했다.

할머니는 한동안 실눈을 짓고 숨을 두어번 들이쉬다가 곧 무엇에 놀란듯 눈을 번쩍 떴다.

방안에는 안해가 퍼놓은 음식그릇이 눈에 띄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음식냄새에 취한듯 비칭거리며 일어섰다. 허나 눈은 황황히 타는 불기둥 같았다.

《이년! 내 손주는 배고파 흙을 파먹고 죽어도 제 나라의 흙을 먹고 죽었다. 감히 왜놈에게서 얻은 더러운 밥을!...》

할머니의 손주는 삼년전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하여 흙을 먹고 죽었었다. 할머니는 와락 밥그릇을 걸어 구정물에 처넣었다. 안해가 문밖에 나서니 증오에 찬 동네너인들의 눈길이 기다렸다.

...고달부는 대동강동쪽길로 나섰다. 찌는듯한 6월의 무더위로 초목은 죽은듯했고 강물은 그 무슨 슬픔에 젖은듯 호곡소리를 내며 여울을 지나고있었다.

고달부는 요즘에 와서 자주 듣게 되는 나라라는 말을 입안으로 조용히 곱씹으며 걸었다.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알수 없는 말이었다. 지금껏 그 말은 고달부의 입에 올라본적이 없었고 처음만지는 물건처럼 손에 설었다. 그러나 어쨌든 요즘은 량반이나 선비님들이 아닌 《상놈》아낙네들의 입에서도 그 말이 자주 새어나왔다.

애매몽롱한 생각에 잠겼던 그는 목언저리를 가며 스치는것에 놀라 머리를 쳐들었다. 한줄기 버드나무가지가 강바람에 흐느적이며 목을 가렸다.

(아, 버들!...)

갓 물이 올라 벌써 파릇파릇한 잎새가 돋은 버들은 아침이슬에 시원히 머리를 감고난듯 잎새에 맺힌 물방울들을 떨구며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고달부는 버들잎 하나를 뜯어 입안에 넣었다. 옛날부터 백정은 버들잎을 물고 죽는다고 했다. 그 만큼 버드나무는 그들과 운명적으로 얽혀있었다. 백성이라면 원래 짐승도살을 하고 가족을 이기는 것과 함께 고리버들로 고리짜이며 등고리같은것

을 걷는일도 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백정들은 버드나무를 남다른 눈으로 보며 아낀다.

고달부의 안해 역시 고리백정의 딸로 그에게 시집을 왔다. 고달부는 아침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푸르싱싱한 버들잎새들을 바라보자 불현듯 지난날의 모든것들이 못건디게 그리워졌다.

해마다 팔월 대보름이면 모란봉에 인총들이 하얗게 올라 달을 구경하던 일... 저녁이면 대동강가에 성안의 물지게군들과 함께 큰가마를 걸어놓고 피며 뺨이며 내장들을 한데 넣고 펄펄 끓여먹던 설렁탕... 왜 지금에 와서 못먹고 못살던 그때가 슬프도록 그리워지는지 알수 없다...

도살장에 이르니 옷등을 벌렁 드러내놓은 왜병들이 기다렸다는듯이 고달부를 에워쌌다. 빨리 고기를 잡아내라는 것이었다. 어떤놈은 시뻘건 고기점을 베어 한입 삼키고는 털이 부르르한 가슴을 쓸어만지며 《허허허...》 너털웃음을 쳤다.

《어이!어이!》

키가 격두룩한 늙은 왜병이 곱이 낀 눈에 눈물이 글썽한채로 급히 다가왔다.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코등은 퍼렇게 부어있었고 얼굴엔 손자국이 려연했다. 왜병은 자꾸 한곳을 가리켰다.

(소금?...)

무슨 일로 소금을 찾는가 하여 한줌 쥐여주자 왜병은 도리머리를 하며 자루채 가져가자고 했다.

칼을 든 왜병과수막을 두군데 지나니 《청허관》이 보였다.

저기에서 왜장이 찾는다는 것이었다.

《청허관》 뒤뜰은 복마전같이 음산하고 괴괴했다.

이때였다. 회랑아래쪽에서 갑자기 욱하는 비명소리가 울렸다. 고달부는 머리한끝이 으쓱 들리는 듯했다.

《몇개나 썩었는가?》

《한 오십개쯤...》

《뭇이!》

퇴마루쪽을 눈여겨보니 왜병 두놈이 적장놈에게 줄경을 치르고있었다. 한가운데 아가리를 벌린 배가 불룩한 자루가 있었다. 적장은 자루를 가리키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

《빠가야로! 귀때기를 그렇게 썩이면 무얼 가지고 본국으로 가겠는가, 양?》

놈의 세모눈이 파란 독기를 뿜었다.

《그걸 다 가져오라. 가져다 이 마루우에 퍼놓으라. 그것만이 우리의 공로이며 재산이며 출세의 밑천이란 말이다. 에도의 장군들은 오직 저수량을 보고 우리의 용감성을 평가한다... 어이, 어이.》

적장은 그제야 고달부를 발견하고 소리쳐 불렀다. 고달부는 말없이 다가갔다.

《어서 소금이나 뿌려라. 소금을 많이많이 뿌려

서 하나도 허실없이 말리란 말이다.》

적장의 명대로 왜병들이 자루를 거꾸로 쳐들었다.

《?!...》

고달부는 순간 마루우에 쏟아져나온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스라쳤다. 그의 눈앞에 두두룩한 무지를 이룬것은 다름아닌 사람의 귀들이었다!

고달부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어 후두둑 떨리는 두손을 소금자루속에 넣었다. 입안에서는 으드득하는 이발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적장과 왜병들은 그러한 고달부를 흠족해 바라보며 발길로 귀들을 문질렀다.

그날밤 고달부는 미친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머리칼을 쥐여뜯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기도 했다.

밤새 그의 머리속에 돌팔매질을 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가는 개울집 할머니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했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덧 마을사람들로 바뀌어 《백정놈 잡아라!》소리치며 방문올마스고 들어오기도 했다. 그속엔 왜놈들의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산 생명, 죽은 생명이 다 모여있었다. 제일 두려운것은 그 모든 《생명》들에 귀들이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분노로 달아오른 눈길로 고달부를 쏘아보았다...

자리에서 일어난 고달부는 화끈화끈 달아오른 머리를 무겁게 추켜들고 왜 간밤에 자기가 죽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 (3)

거치장스러운 목숨이지만 그렇다고 쉬-죽어버릴수 없는것이 사람의 목숨이었다. 온밤 악몽속에 시달리고난 고달부는 전혀 판사람처럼 되었다. 눈확이 폭 꺼져 횡맹그렇게졌고 구레나룻이 덮인 구리빛 살결은 시신처럼 창백했다.

원래 과묵한편인 그는 아예 빗장을 지른 대문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는 오늘도 밤새 성안에서 로락질해온 짐짐승들로 그득했다. 요즘 왜놈 사무라이들은 조선군사와 의병들이 무서워 성밖으로는 한걸음도 열썬 못하면서 민가들에서 락탈만 일삼고있었다.

코등우에 백동엽전을 주련이 매단 황소를 비롯하여 돼지 지어 개, 닭까지 들어있었다.

이 모든것 이 평양성 사람들에게서 닥치는대로 빼앗아온것이라고 생각하니 살점이 찢기는듯했다.

(어째서 나는 왜적에게 이 모든걸 잡아바치는 신세가 됐고.)

고달부는 자기의 신세가 도살장에 든 가축보다도 더 가련해보였다.

《이 등신같은놈아, 뭘 멍청히 썼는거냐!》

나비수염을 기른 사무라이 하나가 말채찍으로 그의 등줄기를 후려쳤다. 취사일을 맡아보는 왜병이었다. 고달부는 그제야 느릿한 걸음으로 스텝스적 도살장에 들어갔다.

《빠가야로...》

그의 뒤통수를 쏘아보던 나비수염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헛하고 마을쪽으로 내려갔다.

고달부는 온종일 허리 한번 못펴고 각을 뜨고 내장을 우버내고 껍질을 벗겨냈다. 얼굴에선 비지땀이 흘러내려 피칠갑을 한 손등우에 점점이 떨어졌다. 시뻘건 고기들이 어느덧 작은 산더미를 이루었다.

정오가 지나서였다. 큼직한 소 한짝을 메치고 칼질을 할 때 한마을 사람인 덕수로인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이사람, 큰일났네! 자네 아버지가 왜놈 총에...》

《뭐라구요!...》

고달부는 손에 들었던 고기함지를 떨어뜨리며 한동안 로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피로운 신음소리를 지르며 마을로 급히 달렸다.

...나비수염은 백정손 하나로는 어렵도 없다는 생각으로 마을에 내려갔다. 병졸들이 달려들어 남정이라곤 모조리 끌어냈으나 쓸만한건 겨우 열명뿐이었다. 그중엔 고달부의 아버지도 있었다.

나비수염은 뒤통거리는 그를 보자 이마살을 찡그리었다. 저런 산 송장이 무슨 소문난 백정이람...

적장이나 막하장들에겐 백정을 한놈 붙였으니 나머지 왜병들은 저놈들을 하나씩 주어 강가나 들판으로 내몰자는 생각이였다.

이날 병자인 아버지는 왜병들의 멸시를 당하며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짐승을 도살했다. 굶주린 왜병들은 피상야릇한 소레기를 질러댔다. 왜병들은 아버지의 굶픈 행동이 성차지 않는듯 산채로 서있는 소와 돼지에게 큰칼을 찌르고 《탕!》하고 조총을 쏘아댔다.

그 서슬에 아버지가 주물고있던 개가 와닥닥 용을 쓰며 빠져나왔다.

목줄을 조이던 울가미에서 빠져나온 송아지만한 개는 피진 눈알을 번뜩이며 그길로 미쳐버렸다. 단숨에 네발걸음으로 달려가 키다리병정의 상통을 물어뜯고는 바람처럼 휙 돌아서 혼도시채로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사무라이의 허연 넓적다리를 한입에 으앙 물어뜯었다.

너무도 뜻밖에 생긴 일이어서 아버지도 왜병들도 한동안은 어안이 빙빙했다.

개를 놓친 아버지는 경황없이 두발을 벌리고 엉거주춤 몇걸음 내짚었다.

이때였다. 《개를 죽여라!》 하는 소리와 함께 《탕!》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총성은 계속 몰방

으로 터졌다. 발을 옮겨질던 아버지가 가슴 한쪽을 부둥켜잡고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사람이 총에 맞았다아-》

총성이 려이어 울리는속에 마을사람들이 달려갔다. 아버지를 일으키니 벌써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땅우에는 피가 흥건히 피어있었다...

《아버지!!-》

고달부는 얼음처럼 싸늘해진 아버지의 몸을 마구 흔들었다. 가슴은 무딘 칼끝으로 살점을 도려내는듯했다. 황량한 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후려치며 지나갔다.

아버지는 널죽도, 상여군도, 곡성도 없이 모란봉기슭 작은 둔덕아래 맨흙속에 묻혔다.

피빛노을이 산을 물들일 때까지 고달부는 봉분가에 앉아있었다. 돌을 쏘아놓은듯 거뭇거뭇한 얼굴로 두줄기눈물이 썸처럼 흘러넘쳤다.

아...그처럼 아버지를 잘 모시자 했건만! ... 모진 량반세상이 아버지를 병신으로 만들었어도 목숨까지는 앓아가지 않았는데... 섬나라 오랑캐들이 달려들어 목숨을 앓아간것이였다!

아이들의 노래소리... 할머니의 목소리... 몸서리치던 《귀》... 아버지의 죽음... 이러한것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여직껏 뒹췌던 실마리가, 어둡던 머리가 트이면서 제자리에 잡히는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정녕 나의 《팔자탕》이란 말인가? 어쩔수 없는 《운명》이란 말인가, 소처럼 묵묵히 순종해온 대가로 이웃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제 나라를 잃고말았다. 아! 악귀같은 왜놈들!...

낮가락을 달구어 허공중에 내던진것 같이 초생달이 걸려있었다.

고달부의 얼굴은 희미한 달빛에 청동처럼 푸르게 보였다. 그의 장알진 손에는 짐승들을 도살하던 백정칼이 쥐여져있었다.

그는 오늘 처음 이 칼로 사람을 죽이리라 결심했다...아니! 그놈은 사람이 아니였다. 그놈은 온 평양성을 피로 물들인 승냥이며 아버지를 잡아먹은 야수였다.

(그 짐승을 마땅히 백정인 내가 잡아야 한다.)

이 시각 고달부는 피수인 적장놈이 소나 잡는 백정의 칼채주로는 어렵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야마도 명장》이 라고 불리우는놈이였다.

죽이자! 아버지의 원쑤, 평양성사람들의 원쑤를 갚고 나도 기꺼이 죽자. 고달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청허관》뒤 우중충한 수림속에 고달부는 숨을 죽이고있었다. 왜병들은 오늘 낮에 무술시합을 벌린데다가 저녁에는 고달부가 《특별》히 술과 고기안주까지 대접한 덕에 세상모르게 뿔아떨어졌다. 절호의 기회였다.

관사에 뛰여든 그는 손더듬으로 한걸음한걸음

들어갔다. 사방에서 코고는 소리는 들리나 어느 방이 적장의 방인지 알수가 없었다.

희미한 초불이 새어나오는 방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었다. 무엇인가 뭉클하는것이 손등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번쩍 얼굴을 돌리니 희미한 등불에 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녀인은 얼른 입가에 손을 가져갔다. 고달부는 여우귀신이 나타나 사람의 혼을 뽑아간다더니 자기가 분명 귀신의 홀림에 들었다는 생각을 가졌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그 손에 끌려나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으스스한 굴뚝모서리였다. 그를 끌고온것은 왜장 적장의 수청을 드는 기생인 계월향이었다.

고달부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제는 모든것을 망쳐버린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어제날 그토록 자랑하던 평양의 너절이 오늘은 왜놈의 품에 안겨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다니!

《더러운년! 우선 네년부터 내 칼을 받아라!》

월향의 눈길은 의외로 평온하고 홀어지지 않았다.

《좋아요. 어서... 어서 찌르세요. 그러나 참말로 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부디 이 쪽지를 성밖에서 싸우는 김응서장군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 짐승같은 왜장을 죽이고 평양성을 수복한 다음 이 더러운 몸을... 죽여주세요.》

고달부의 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럼?!》

...모든것을 깨달은 순간에는 고달부가 녀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는 월향이가 자기의 모든 행동을 은근히 주시해왔으며 어서 이날이 오기를 눈물로서 기다렸다는것을 알았다. 애국충정으로 뜨거워진 피가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가며 끓어번지는것 같았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지금 김응서장군이 성밖 아미산기슭에서 싸우고있다는것, 왜병배치도를 그린 그림을 어린 기생 옥개가 보통벌에서 연으로 띄우다가 조총에 맞아 죽은 일, 어제밤 장삼속에 쪽지를 넣고 성벽을 넘던 영명사의 상좌중도 파수병에게 걸려 대동강물속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고달부의 손에는 반드시 가닿아야 할 왜병배치도가 쥐여져있었다.

월향은 믿음어린 눈으로 고달부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아저씨라니? ... 저는 비천한 백정놈을시다.》

《백성이면 어떻게 기생이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의로운 싸움에 함께 목숨바치는 우리들이 아니오이까.》

《!...》

고달부의 눈은 새별같이 빛났다.

## (4)

아미산기슭에 이르자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성문밖 후미진곳에서 함께 오던 왜병 두놈을 삼시에 요정내고 옷을 벗겨든 채 칠닝쿨에 감기고 벼랑에서 굴러내리며 간난신 고해온길이었다. 림름한 군사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엔 눈물이 줄줄이 흘렀다.

《아니 자네가?! ... 그렇지, 그렇구말구. 가난뱅이야 가난뱅이의 편이지. 어떻게 오랑캐편이 되겠나?》

마을사람들이 얼싸 부둥켜안는속에 이웃집 김서방 등이 얼굴에 기쁨을 담고 얼싸 추어올렸다.

김응서장군에게 왜병배치도를 가져왔다는 말을 들은 판군들과 의병들이 너도나도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섬오랑캐들을 평양성에서 미친개 때려잡듯하게 뺐구만...》

《장군에게 어서 희소식을 전하라우...》

고달부는 그들의 뜨거운 환대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왔다.

관청의 뜰은 여전히 높았다.

왜적이 침노하여 아미산기슭에 림시로 꾸린 감영이라 육중한 대문과 섬돌은 없어도 도도한 기상은 고달부를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평양성을 수복하는 중대사라 맨 상좌에는 도체찰사 류성룡이 근엄하게 앉아있었다. 그아래로 도원수 김명원이 앉았고 좌렬과 우렬을 갈라 융복차림의 장수들, 사모관대한 문관들이 벼슬품계대로 제자리를 차지했다. 판리중이라 성안을 뒤흔쳐나온 차림으로 복색은 가지각색이었다. 구군복차림 흥배두른 문관복, 깨어진 갓망건차림새도 있었다.

장수들속에 청년무사 김응서가 쇠비늘이 덮인 갑옷에 해불모양의 붉은 털술이 달린 투구를 쓰고있었다. 고달부는 류성룡의 앞에 꼬깃꼬깃 접은비모종이를 반듯이 펴놓았다.

《이것이 적진을 그린 도면이로소이다. 이것이 왜병들의 막사요. 이것이 적장이 있는 <청허관>이운데 그뒤를... 이렇게 돌면 로송나무가 보이니 그밑에서 월향아씨가 기다릴것이오이다. 그다음은 월향아씨가 다 마련이 있사오니 왜장의 침방에 들어가 놈의 목을 베소이다.》

고달부의 눈빛은 왜적을 내몰고 수복된 평양성을 보는듯한 기쁨에 빛났다. 얼마나 기다려온 오늘날인가...

김응서는 와락 달려내려가 고달부를 그러안고 싶었다. 그의 뜨거운 손을 부여잡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김응서는 며칠전 어린 기생 옥개가 목숨바쳐 날린 연을 집어들고 도원수 김명원을 찾아갔었



다.

그때 김명원은 연쪽지를 휴지통에 내버리며 단 마디로 눌러버렸다.

《나라의 일개 장수가 천한 기생따위에게 마음을 둔다》고...

그 비양섞인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에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똑같은 도면이 사선을 넘어 왔으니 ...

《이놈! 네놈이 지금 김응서장군을 꺾어 적진에 데려다 살해하러들지? 네놈의 심보를 모를줄 아느냐.》

아까부터 찌프린 상통을 하고 시답지 않게 바라보던 김명원이 좌중에 돌던 종이쪽지를 홀 내 던지며 벌떡 일어났다. 도원수 김명원은 벼슬과 록이 금관자에 이르는 대신으로 왕(선조)으로부터 서울방어를 책임졌으나 제 한목숨만을 살리려고 비겁하게 도망을 해온자였다. 그리하여 왜적이 몇번 접전도 없이 거침없이 평양성까지 가로타게 만들었다. 평양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중에서 뛰쳐나온 조방장 김응서가 련이어 왜적을 쳐이기고 명성을 떨치자 놈은 은근히 그를 질시하고있었다. 이제 곧 명나라의 대군이 나올텐데 자는 범의 수염을 다치치 말라는 것이었다.

《웁소이다. 저 백정놈의 말을 믿어서는 안되오이다.》

《모가지를 돌려앉힐놈! 어서 썩썩 이실직고하지 못할가.》

김명원의 마음을 타진한 비겁한 벼슬아치들이 여기저기에서 고달부를 향해 소리쳤다.

대돌아래 꿇어앉은 고달부는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돌로 깎은듯한 얼굴은 말없이 상좌쪽을 향하였다...

이 시각 류성룡은 김응서에게 보낸 계월향의 편지와 소나무를 수놓은 정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과죽지세로 밀려오면 왜적이 평양성안에 갇힌지도 벌써 한달이 되었다. 서북쪽에는 평양감사 리원익과 순변사 리민이 거느린 오천명의 관군이 진을 치고있었으며 강서, 룡강, 증산, 함종, 삼화 등 다섯고을에는 청년장군 김응서의 일반군사가, 동쪽에는 리일의 군사 오천명, 서쪽 교외에는 평양부사 남부흥과 평양유생 양덕록의 일반군사가...

어찌 그뿐인가. 림중량, 조호익, 김진수, 차은진 등의 의병부대가 창궐하여 평양성을 겹으로 에워싸고있었다.

울안에 갇힌 승냥이는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이런 때 왜적의 피수를 베인다면 적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평양국사람들의 원한도 풀수 있었다.

만약... 이것이 참말로 적들의 꼬임수라면... 김응서장군을! ...

류성룡은 입귀를 실룩거렸다. 어딘가 프아해하는 표정이었다.

《네 금방 애비를 잃고 처자를 버리고왔다고 했지?》

《그렇소이다. 소인은 비록 버려지같은놈이오나 평양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대동강물을 마시며 살아온 평양사람이옵니다. 처자가 귀하다 한들 어찌 평양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비기오리까.》

《...》

이때 하늘소기침소리같은 웃음이 또다시 울려왔다. 김명원이었다.

《하하하... 기생, 백정들이 나라요 뭐요 실로 해괴한 일이다.》

《으하하...》

비양과 조소가 가득찬 웃음이 만좌중에 넘쳐나고 달부의 얼굴로 소낙비처럼 쏟아져내렸다. 류성룡도 꺾꺾 따라웃었다.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것이 확인했다.

(아아! 백성을 버려지만큼도 여기지 않는놈들, 저런 량반족속들이 조정을 타고앉았기에 이 나라엔 란리가 일고 왜적이 평양성까지 기여들수 있었고나...)

아미산 중천에 옛가락같이 희미한 달이 구름속에 잠기었다가는 나타났다. 하현달이었다.

아 그믐밤! 그믐밤을 잊지 말라던 월향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는듯했다. 월향아씨... 이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 어찌면 좋소...

고달부의 눈앞에는 마을아이들과 이웃 할머니와 끽한 《귀》들이 나타났다. 이어 너털웃음을 짓는 왜장의 낮짝이 바뀌어 나타났다.

(아 장군!)

고달부는 무사들이 앉은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김응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수 없는듯 창살같은 눈섭만 꿈틀거리며 한일자로 꼭 담겨진 입을 벌리지 못하고있었다. 본시 그도 룡강땅 농사군의 아들로 난 사람인지라 월향의 정표와 고달부의 하소를 듣고 대뜸 안아일으키며 호응해주고 싶었으나 장내의 공기가 그렇지 못하였다.

김응서는 칼집을 잡은 손에 지그시 힘을 주며 꺾꺾 웃어대는 김명원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취재기상통의 김명원이는 제가 큰일이라도 한 듯 부채를 활활 부쳐대며 조소에 찬 눈길로 아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

(아! 개만도 못한 량반놈들, 도대체 량반이란 무엇이고 천민이란 무엇이기에 기생, 백정은 나라를 사랑할 마음조차 못가진단 말이나.)

고달부는 언뜻 얼굴을 스치며 지나는 바람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움을 느끼었다.

(아, 모란봉술숲의 바람결소리가 바로 저랬지.) 모란봉, 모란봉, 그밀을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대동강, 어린 시절 알몸뚱이바람으로 큰애들과 함께 게잡이를 하던 일, 언제인가 량반들이 풍악놀이를 하는 《을밀대》에 갔다가 사령군노들의 못매를 맞고 아버지등에 업혀오던 오솔길, 뼈도 채 굳지 않은 어린몸으로 커다란 황소를 넘겨뜨렸을 때 오히려 눈물을 지으시며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던 아버지… 어릴 때의 모란봉과 대동강은 어머니의 얼굴을 모르는 어린 소년에게 산열매를 주고 맑은 물과 물고기를 준 《어머니》의 젖줄기였다. 다 커서는 기쁘고 슬퍼도 모란봉 술숲에 누워 마음껏 울기도 했고 땅을 치며 통탄하기도 한 봉우리며 강이었다. 고달부는 지금 이 시각 어디선가 들려오는 술바람소리와 강물소리에 온넋을 한곳에 모으고있었다. 아, 나라, 나라란 다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서자란 저 모란봉이고 대동강이고 푸른 하늘… 못먹고 굶주리면서도 서로 위하던 가난뱅이들, 그것이 진정 나라가 아닐가… 량반세상에선 아무리 《백정놈》소리를 들으며 매를 맞아도 설음을 터뜨릴 모란봉이 있었고 대동강이 있었으나 섬오랑캐들에게 그것마저 빼앗겼으니 어찌 가난뱅이들이 제 땅, 제 강물이 없이 살아간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고달부는 번쩍 눈을 뜨고 무섭게 이글거리는 눈길로 벼슬아치들을 쏘아보았다. 사모관대를 한, 것처럼 도도해 보이던 벼슬아치들이 모두 발아래에 까맣게 내려다보였다. 고달부는 류성룡을 향해 머리를 곧바로 쳐들었다.

그의 확신에 차고 떳떳한 목소리가 간담이 서늘하게 울렸다.

《대강! 애국일념을 안고 목숨바쳐 싸우는 월향에게 어서 김응서장군을 보내주소이다.》

《저… 저… 무엄한…》

사모관대한 량반놈들이 뒤걸음을 쳤다.

고달부는 태연자약한 자세로 서서히 일어났다.

《제가 할말은 다했소이다… 목숨을 끊어 웨치는 제말을 믿어주소서!》

고달부는 품속에서 너무도 손에 익은 시퍼런 백정칼을 꺼내들었다.

《아… 아니.》

《저런!》

사령군노들을 헤집고 마을사람들이 달려왔다.

고달부는 눈을 내리깔고 손에 쥔 칼을 바라보았다.

아, 내 이 칼로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였던가. 오늘에야 진짜 포악한 《짐승》을 잡으려 했건만…바로 이 칼로 내 목숨을 찌르게 되다니… 원통하도다! 그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배 한쪽을 폭찼다. 뜨겁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팔팔 솟구쳐 올랐다.

《고서방, 이사람아 눈을 뜨라구!…》

마을사람들과 군사들이 고달부를 에워싸고 애타게 불렀다. 흑흑 흐느낌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었다.

《당신들도 사람이요, 금관자, 옥관자 단 량반님네들이 지금껏 이사람에게 무얼 준게 있소… 아아 이 어진이를 죽게 하다니…》

김서방과 마을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

김응서가 자기 무릎위에 고달부를 눕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나?》

《장군이 가서 적장의 목을 베시면 소인은 백번 죽어도 한이 없소이다…》

《어허허!》

김응서장군이 슬프게 흐느꼈다. 둘러선 사람들이 목메여 흐느끼는 소리가 창공으로 날아갔다.

고달부는 온몸이 늘어져 숨을 거두는듯하더니 간신히 눈을 떴다. 그는 김응서의 손을 더듬어 찾았다.

《장군, 월향아씨를 용서해주소이다…》

고달부는 평양의 푸른 하늘을 영원히 새겨넣으려듯 눈을 감지 못했다. 어디선가 훈풍이 불어와 그의 얼굴에 작은 일사귀를 떨구고 지나갔다. 벼들잎이었다.

×

세상에 유명짜하게 알려진 계월향과 김응서가 적장을 쳐죽인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났다.

《평양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계월향은… 그의 동무 옥개와 평양사람 고달부와 의논하여 적들가운데 가장 광포한 소섭을 죽임으로써 침략자들의 사기를 꺾고 우리 인민들의 반격을 용이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고달부는 이렇듯 《천민》인 탓에 이름 석자로써 력사에 희미한 자취만을 남기고갔으나 평양의 너겔과 명장을 받들어올린 하나의 주추돌로, 오늘날도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성의 작은 성돌이 되어 모란봉 술숲의 정겨운 설레임소리와 대동강의 유정한 물소리를 듣고있다.

## 종구나, 이런 밤은!

한정현

떠들썩하던 애들의 웃음소리도 찾아들고  
방송에서 울리던  
귀익은 가수의 노래소리도 이젠 그치고  
별들만 반짝이며 창가에 내려앉는 이밤

눈을 감으니  
뜨끈한 구들맡으론 더운 열이 흘러오는 소리  
로동으로 땀흘린 나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음향인듯 정다운데...

문득 들려오누나  
창너머 역전쪽에선  
행복에 목멘 이 마음속 웨침인가  
나와 속삭이는 다정한 음성인가  
기적소리 기적소리 울리여오네

가슴들먹이여라, 저 기적소리  
이 모든 기쁨을 싣고  
이 벅찬 생활의 음향들을 싣고 달림이  
너를 위한것이라고 알으켜주는  
조국의 목소리인듯

배개머리에 찾아오는 꿈이  
더 달콤해지라고  
다가올 새 아침이

더 명랑한 하루로 시작되라고  
조국이며, 그대는 이밤도  
달리고 또 달리는구나

무슨 걱정 무슨 시름 있으랴  
해빛눈부신 아침이면 다시 마주할  
우리 생활은 이밤사이  
그 얼마나 더 넓고 풍만해지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로 울려퍼지랴

오, 내 안겨사는 나의 조국이며  
언제나 나를 위해 수고로운  
고마운 어머니품이며  
이제 단잠속에 들 우릴 위해  
아아, 이밤도 저렇게  
조국은 쉽없이 달리는구나

이런 조국이 나를 책임지고  
이런 조국이 나를 보살펴준다  
이런 미더운 조국이  
그 너른 품에 나를 안고있기에  
내 조국에 대한 경의로 가슴뿌듯한 이밤이다  
기적소리조차 나를 위해 울리는  
이런 밤은 아, 정말 종구나!

## 땅이 하는 말

리남룡

들에 밭에  
구름발 헤치며 날아오는 삭도  
밀차와 함께 달려오는 밭걸음소리  
눈덮인 대지를 흔들며 깨우니  
땅도 기쁨 겨워 입을 열었네

목은 잎새 설레는 숲이며 바람이며  
네 꾸준히 부식토 만들어  
몇백년을 바쳤어도  
종시 나를 기름지우지 못했건만

산을 허물고 강바닥을 헤쳐  
흙갈이 흙갈이로  
이 한계절에  
나를 한껏 기름지우누나  
꿈같은 전변을 다 이루어주누나

보라  
저 불같은 마음들이  
쉬임없이 듬뿍듬뿍 안겨주는

푸근한 흙더미 흙밭에  
내 새집 솟고 젊어지네

온 벌에 들에 넘치는  
열정의 노래소리  
줄지어 달리는 트랙터르 동음소리는  
젊음을 안고 일어번지는  
나의 꿈 더해주는 시대의 노래

번덕많은 자연도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이 변혁앞에 머리숙였으니  
나는 기쁨에 넘쳐 대답하리

땅이 생겨 흐른 세월  
수억만년 이래도  
나는 늙지 않으리  
주체농법 꽃피는 세월속에  
영원히 풍요한 이삭만을 펼치리

## 관산나루언덕에서

전병구

### 비내리는 강화도

노한 번개의 물줄기가  
산허리를 가르며 꽃히자  
휘감긴 구름의 옷자락을 헤치고  
수난자의 컴컴한 얼굴처럼  
후줄근히 젖은 모습 드러내는 강화도

깃땀혀 사는것이 부끄러워  
머리조차 들수 없다더나  
내 어릴적에 유정히 들던 산새의 지저귂소리  
군용기의 동음소리에 사라져버린 땅  
비발이여  
이 가슴에 치며는 창끝처럼 날을 세워다오

배전이 넘치도록 고기배 돌아오면  
섬마을처녀들 마중나오던 기슭  
수평선 저끝에 몸잡그는 둥근달  
한가슴에 안아보던 그 저녁이 눈에 삼삼해  
분별의 반세기를 사이에 두고  
모습조차 희미하게 보인단말인가

아, 강화도 강화도여

내리는 비발속에 지금은 머리 숙이고있어도  
너를 불안고 몸부림치는 마음속엔  
맑게 개일 네가 있어  
푸른 하늘 드리울 네가 있어  
분노의 우뢰가 가슴에 운다

너를 잃은 반세기  
너를 안고 몸부림치는 가슴에서  
이제 더는  
이제 더는  
아픈가슴 부여안고 모태길수만 없어  
무심한 비발에도 가슴에 타는 불줄기를 엮는다

세월이여  
이제 더 무심한 비발을 뿌리며  
산과 들을 적시라  
내 살점같은 저 땅에서  
그 검은 자욱자욱 다 씻어버릴 때까지  
우뢰여 번개여 노해다오  
비발이여 날을 세워다오

### 아, 림진강

마식령, 아호비령  
깊은 산골짜기를 타고  
소리치며 흘러오던 물이  
예와선 그 어이 흐름조차 더디드나

이 땅에 흐르는 강이여도  
그 어이 낮이 설어  
이 가슴을 처야 하고  
보기조차 무시무시해지는것이나

관산나루  
푸른 언덕우에 서면  
손끝인 김포와 파주땅도  
천리처럼 갈라놓은  
림진강 아, 림진강

강건너 저 기슭을 보아라  
흐르는 물결을 토막치는 수증장벽

저기가 통진나루아이들  
호드기들 불며불며  
모래성을 쌓던 그곳이 아니냐

밤이면 호룡불을 켜들고  
고기반두를 대이던 그 풀숲에도  
싫도록 탐조등 불빛을 비치던 그 원썩가  
저 기슭에 얼른거리는곳

물갈기를 높이라 림진강이여  
통일을 부르는 이 나라 인민의 함성처럼  
꽝꽝 장벽을 두들겨패라  
노한 물결속에 삼켜버려라

이제 통일의 날이 밝아  
꿈같은 만남을 눈물로 적실  
그 기슭으로  
물새떼를 불러오라

아, 우리의 강이면서도  
남의 강처럼 낮설어  
가슴을 두드리게 하는 림진강

이것이 갈라진 이 강토의 울분이다  
이것이 내 고향 시내물처럼 정들어야 할  
내 나라, 내 땅의 림진강이다

## 밤기러기

흘러가는 구름세에 달도 움츠리고  
가을 끝난 들판우에 흰서리 불리는데  
말못할 설움에 뺨을 적시며  
끼룩끼룩 울며가는 밤기러기

넓은 하늘 밤길을 잃지 말자고  
어깨걸고 줄져가는듯  
으스스한 달빛속에 선을 그으며  
서둘러 떠나가는 밤기러기

늦가을 추위에 몸돌קות을 찾아  
힘주어 날개젓건만  
한낮의 밝은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어이 밤길을 택하였더나

달도 물결우에 흐느끼는 분계선  
저 앞엔 장벽의 함정  
어지러운 전쟁연습 땅크소리  
하늘을 태우는 불연기 개일날없어  
더더구나 한낮엔 날수 없었던가

물어선 무엇하리 밤기러기  
하늘은 하나 다름이 없어도  
관산별에 내렸다 어둠을 타는 그 사연  
끼룩끼룩 가슴 저미도록 전해주누나

이 땅을 갈라놓은 가증스런 원쑤놈들  
보기조차 역겨워 밤길을 떠나노란다  
북과 남을 자유로이 날아넘을 그 하늘을  
나래밑에 가없이 펼쳐가노란다

## 떨어지는 감알

잡초 무성한 관산나루언덕  
분계선이 가로 건너간곳에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감알

주인은 없고 집터만 남은 자리  
벌써 몇몇해 한그루 감나무  
저 혼자서 감을 익히우고  
무정히도 떨치고있느냐

손을 내밀면 빨강게 익은 감 한알  
얼른 집어들수도 있으련만  
가슴을 찌르는 분계선 철조망이  
한결음도 옮길수 없게 하누나

안타까워라 감나무야  
분별의 고통을 너도 당하니  
언제면 주인을 다시 불러오라  
네 푸른 아지를 타고

즐거이 감을 딸 그날이 오랴

저렇게도 탐스러운 감알을 고여놓은  
잔치상 받고  
림진강 건너 파주로 시집 갔다는  
이 마을 처녀들  
감알처럼 빨강던 그 얼굴들에  
지금은 주름살이 퍼그나 깊어졌으리

그 시절의 그 각시들 어느곳에 있느냐  
저 강건너 찾아봐도 볼수 없는 그들  
꿈결에나 안아볼 빨간감알  
후두둑 후두둑

이 가슴을 친다  
이 땅을 친다  
주인을 부르며 통일을 부르며  
후두둑 후두둑 아, 떨어지는 감알

## 우리는 수확기로 본다

푸르려야 할 가을하늘이  
비구름 끼인 하늘처럼 거뭇다  
분계선 이 마을에선  
관산별 이 들판에선

날알향기와 포연내  
엇갈려 풍겨오는 별관  
우리는 가을을 한다  
수확기의 낮으로 버를 벤다

놈들이야 지랄을 치라지  
여기 관산별은 풍년인데야  
제아무리 포연을 휩쓸어와도  
우리는 날알향기로 밀어제끼리

또 한배미 넘기자  
처녀들아 어서 단을 묶어라  
금포땅에 으르렁거리는 직송기소리  
아마도 제놈들의 전쟁연습에  
제놈들의 죽은 시체가 실려가겠지

《팀 스피리트》 전쟁연습때도  
저들의 포성에 놀라  
눈깔이 뒤집혔다는 이야기야  
열번도 더 들어온 이 마을이 아니냐

풍년노래도 한곡조 부르자꾸나  
우리 어떻게 평화를 지켜섰는가를  
통일을 원하고있는가를  
놈들에게 보이자꾸나  
그리고 씨원 씨원 베어나가자꾸나

오늘따라 더욱 서슬 푸르러지는  
수확기의 낮으로  
놈들의 전쟁연습을 베이자  
저 포성소리를 베이자

아, 침략자 미제를 베이자  
백악관을 베이자  
분렬주의자들의 장벽을 토막내자

## 광주의 어머니에게

(총련)강명숙

어머니는 오늘도  
진달래꽃 피는 무등산기슭  
망월동묘지에 오르십니까

나리꽃 반겨주는 이른봄에도  
산국화 설레이는 늦은 가을에도  
어머니는 여기를 찾으시였고  
해별 따가운 한여름에도  
어머니의 발길 더딘 일 없었건만

해마다 5월의 그날이 다가오면  
어머니의 하얀 치마자락  
의례껏 여기에 나뭇길입니다  
곱게 피어 맞아주는 진달래꽃속에  
그날의 아들 모습 찾아보시려는듯

이 몸은 벌써전에 다 말라서  
눈물이란 한방울도 남지 않았다고  
남들을 보고는 애써 웃으시건만  
옹이 진 그 마음  
여기서만은 풀어서 그러십니까  
날이 저물도록 없드리고 우시는 어머니  
그날의 아픔 가시기에는

너무도 짧은 10여년이였습니다  
그날의 상처 아물자면  
아, 백년을 두고도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젠 눈물을 거두시고  
붉게 피는 저 꽃을 보십시오  
제 철을 알고 해마다 피어나는  
무등산의 진달래처럼  
이 땅의 젊은이들 가슴마다에는  
그날의 그 피가 또다시 맥박치고있습니다

들으십니까  
저 합성을  
10여년전의 피의 뜻 이어가자고  
민주와 통일의 새 아침 당겨오자고  
금남로에 모여든 수십만의 목소리를

그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귀한 자식들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들 싸우는곳으로  
어머니결을 떠난지 10여년  
하루도 잊은적 없는 아들얼굴을  
어머니는 그들속에 찾으실것입니다

## 우리는 고발해야 한다

(총련) 리은직

수일전 불일이 있어서 도교역 야에스구찌앞거리를 거쳐 교바시쪽으로 걸어갔다.

여기를 지나가면 거리를 새삼스럽게 되돌아보지 않을수 없다.

거대한 철근빌딩들이 늘어섰지만 나의 가슴속에는 해방후의 조선중앙총본부나 도교본부의 건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1949년 9월 8일 미점령군과 일본정부는 《단체동규제령》이란 악법을 들썩워 조선, 민청을 강제 해산시키고 조선이 소유하고있었던 재산일체를 몰수해버렸다.

당시 후카가와에 살고있던 나는 기별을 듣고 곧 조선중앙회관에 달려갔다.

회관두리에는 일본경관들이 이중삼중으로 포위망을 치고있고 도교 각처에서 달려온 수많은 동포들이 아우성치고있었지만 누구 하나 얼씬도 못하게 차단하고있었다.

나는 곧 발을 돌려 도교본부앞에 달려갔다.

도교본부 목조2층건물앞에도 경관들이 늘어서서 가로막고있었다.

나는 지휘자같이 보이는 경관앞에 다가가 명함을 꺼내보이고 《나는 이 건물에 사무소가 있는 조선문학회 책임자다. 사무소에 들어가야 할일이 있으니 들어가야 하겠다!》 하고 강경히 요구하니 《오늘은 명령으로 아무도 건물안에 사람을 넣을수 없소. 사무실정리는 래일 오전중에 한다니까 오전10시경에 와보시오.》

그런 뻔뻔한 대답을 믿고 나는 다음날 아침 사무소에 갔으나 경관들 립회밀에 방에 들어갔다가 왔을뿐 장부 하나, 용지 한장 손에 대지도 못하고 경관들에게 끌려나와 건물밖으로 축출당하고 말았다.

그때의 굴욕감과 허탈감은 42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생동하게 마음속에 치밀어오른다.

조선활동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 청춘의 정열을 쏟고있던 일본 전국의 동지들은 그 누구하나 이 쓰라림을 잊고있지 않을것이다.

그후 3년이 지난뒤 나는 요코하마 우리 학교재산을 접수한 일본법무청이 우리 학교방울을 일본사립학교재단에 헐값으로 팔아넘겼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학교방울을 우리에게 돌려라고 항의간 일이 있었다.

그 사건을 취급한 법무정담당청사는 일본 궁성안에 있었다. 청사에 들어갈 때부터 수위놈들은 나를 무슨 엄중한 죄수를 다루듯이 인권유린적인 몰수색까지 하였으며 담당관리놈들은 반말을 써

가면서 항의하는 나를 모욕했고 두번다시 이런 항의를 하러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취급하여 구속하겠노라고 협박했다.

나는 나라잃은 식민지노예상태에 되돌아간것 같은 쓰라림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조련을 해산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함으로써 우리 재일동포가 겪은 희생과 손해는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 막대한것이였다. 이것은 미제점령군과 일본정부의 악랄한 범죄적행위에서 비롯된것이였다. 특히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만큼 응당한 손해배상과 보상을 해야 할것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일본자민당과 사회당 대표의원들은 우리 나라와 일본이 국교정상화할것을 협약했고 배상문제와 해방후에도 적대시정책을 저질러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도 관련해서는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회담을 시작한 일본정부대표는 해방후 보상문제는 승인할수 없다고 되풀이하고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우리들에 대한 온갖 범죄적행위를 모두 잊어버리고말았단말인가?

속담에도 말하기를 《가해자는 잊어버리기 쉬워도 피해자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나 피해를 많이 당했기때문에 우리들은 피해의식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셈인가?

당연히 일어나야 할 불법적 조련해산과 재산몰수에 대한 일본정부에 대한 추궁과 손해배상요구가 나오고있지 않다.

그 당시 일부 인사들이 제기했던 재판이 일본정부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기각된후 일체 대중적인 항의운동이 일어난바가 없다.

국교정상화와 배상문제가 제기된 이 시기야말로 과거 일본정부 또는 일본관헌들에 의해 또한 일본의 권력기구에 의해 피해를 입고 희생당했던 모든 동포들이 소리를 높여 낄날이 그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배상을 요구하고나서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당했던 모든 피해사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것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량우직동지의 장편소설 《비바람속에서》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글쓰는 우리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우리 동포의 희생당한 사실과 우리의 고귀한 투쟁을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쳐부르는 나의 류행가 외 1편

고규태(남조선)

진눈까비 흘뿌리는 감방 저편

회색 담벼락과 마주서서 내가 부르던

류행가처럼 애끓는 곡조처럼

네가 죽어 내가 산다면

새벽별 상기도 잠들지 않은 철창아래

뽕끼통에 앉아서도 내 무심코 흥얼거리던

하 기쁨의 봄물같은 그 노래말처럼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반역의 세월동안 내가 죽어 네가 살았고

온갖 부와 권세, 우리들의 사람마저

밟히고 또 짓밟혀

너희와 너희 앞잡이들만이 풍요를 누려왔다면

양키야말로 학살의 숨은 원흉이고

양키야말로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이같은 사실을 일깨워

비로소 함께 일어선 지금

양키여 아메리카여 악의 제국이어

고쳐 부르는 나의 노래 나의 류행가는

안과 밖 어디서나 반짝하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부를 우리의 노래 우리의 류행가는

네가 죽어 내가 사는것

너희를 죽여야 우리가 사는것

## 반미의 기발

길고 끈질긴 싸움을 위하여

패배로부터 승리를

파괴로부터 건설을 위하여

곧고 단단한 기대 끝에 우리가 매단 이 기발

한나산 상상봉, 대구의 네거리

남도땅 막장의 화순탄광에서도

세계 최초로 휘날렸던

아비가 서늘히 식어가며 건네준 기발

그것이

육신의 죽음을 부르는 손짓이라 해도

결코 내릴수 없는 우리들의 기발

지금 이 싸움터에서 펴떡이는

끓는 심장이여

반미의 기발이여